

발간등록번호  
11-1311153-000111-08

# 기록인 <sup>IN</sup>

정보가 모이는 곳 역사가 숨쉬는 곳 미래가 보이는 곳 국가기록원  
ISSN 1976-5754 2011 SPRING + Vol.14



**기록IN은**  
기록 및 기록관리 관련 정보와 지식이 모이는(IN) 공간입니다.

**기록人은**  
기록 및 기록관리에 관심있는 모든 이(人)들을 위한 소통의 장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담기는 이 시대 기록 및 기록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하나의 우리 역사가 될 것입니다.

**기획특집 \_ 해외기록은 '자원' 이다**  
이슈와 현장 - 전라감영 복원사업과 국가기록원 소장문서  
기술동향 - 스마트폰에서의 문화정보의 활용과 가능성  
소개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기록관  
기록의 발견 - 일상의 기록, 시간을 넘어 역사가 되다  
휴(休) - 과거(科擧), 그 문란함

# CONTENTS

2011 SPRING Vol.14



- 4 칼럼 세계로 기록문화 영토를 넓히자 / 이경욱
- 8 화보 대한민국 대통령 정상외교 기록전
- 16 기획특집 해외기록은 '자원' 이다  
국외 전적문화재 환수와 그 과제 / 박상국  
국가기록원, 해외기록물 수집현황 및 과제 / 이강수  
나라 밖에서 나라 찾기의 기록물 / 김도형  
기록문화유산의 국외유출 현황과 과제 / 박대남  
한국이민사박물관 해외이민자료조사 현황과 과제 / 박은미
- 58 휴(休)  
군가는 軍생활 애환 달래고 용기·사명감 주는 멜로디언어 / 왕성상
- 66 이슈와 현장  
전라감영 복원사업과 국가기록원 소장문서 / 이동희  
제3호 기록사랑마을 지정과 의의 / 한상호  
행정박물관로 다시 보는 서울 G20 정상회의 / 김성민
- 80 기술동향  
스마트폰에서의 문화정보의 활용과 가능성 / 엄원석  
광디스크의 상태측정·분석 고찰 / 김상국  
영화필름과 디지털 매체의 보존기술 현황과 논쟁 / 장광현



- 104 소개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기록관 / 하승이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관리 / 부용식
- 112 기록의 발견  
일상의 기록, 시간을 넘어 역사가 되다 / 신창균  
대한제국의 독도 경영 입증 기록물 울도군 절목 / 유미림
- 122 휴(休)  
과거(科擧), 그 문란함 / 허인욱
- 130 정보광장  
국가기록원 소식  
국내 기록관리 소식  
해외 기록관리 소식  
새로 나온 책들



# 세계로 기록문화 영토를 넓히자

이정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 해외 유출 기록물의 귀환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가 약탈한 외규장각 도서가 150여 년 만에 귀환된다는 소식을 지면을 통해 접했다. 프랑스 정부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 외규장각에서 약탈해 간 규장각 도서 297책을 반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되는 도서에는 조선왕실 규범을 상세히 기록한 「의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본 정부에서도 최근 일제 강점기에 약탈한 「조선왕실 의궤」, 「대전 회통」 등 1,205책을 '반환'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재 반환을 지켜보면서 과거 통한(痛恨)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아 가슴 한 구석이 저미어 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기록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는 일제와 미·소군정, 6·25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기록물이 소실되었다. 정부수립 이후에도 먹고 살기에 바빠 기록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주요 기록물이 유출되거나 결락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연구자들이 한국 현대사를 쓰기 위해서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을 직접 찾아가 기록을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고 한다.

“ 인간에게 DNA가 있는 것처럼 해외기록물도 생산 및 소장 주체에 따라 DNA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관련 해외기록물은 물리적 공간이 해외일지라도 그 내면은 분명 'KOREA' 일 것이다. ”

## 해외기록물의 DNA

필자는 인간에게 DNA가 있는 것처럼 해외기록물도 생산 및 소장 주체에 따라 DNA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관련 해외기록물은 물리적 공간이 해외일지라도 그 내면은 분명 'KOREA' 일 것이다.

해외소재 우리나라 기록물은 생산 및 소장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먼저, 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강탈당한 국보급 문화재가 있다. 해외 유출 문화재는 일본에만 30만점에 이른다고 하니 그 수를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이다. 다음으로 민간에서 생산한 기록물 가운데 이민 등으로 개인이 해외로 가지고 나간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직접 생산한 기록물이다. 일본은 일제시기 징용·징병 관련 기록을, 미국과 러시아는 미·소군정 및 6·25전쟁 관련 기록을, 독일은 광부·간호사 파견 관련 기록을, 베트남은 한국군 파병 관련 기록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해외기록물 수집을 통해 결락 기록물을 보완하고 기록정보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해 일본,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지의 해외기록물 수집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생산한 우리나라 관련 기록물을 주요 대상으로 수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여 해외 소재 기록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기록이 역사적 가치는 물론 증빙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 기록관리기관의 '방어'가 만만치 않은 것도 한 몫한다. 이번에 일본에서 반환되는 기록물을 둘러싼 한·일간의 입장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록물 반환 및 수집을 위해서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점도 해외기록물 수집을 더디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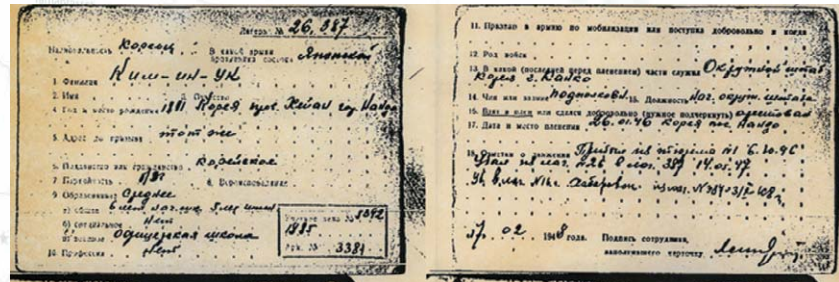
## 해외에서 기록정보 자원을 캐라

이러한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자국의 기록을 찾기 위해 오늘도 쉼 없이 뛰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막대한 예산과 인력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자국의 기록을 수집 관리하고 있다. 물론 미국, 호주 등 선진 기록 국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렇게 해외 소재 기록물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외기록은 자국의 역사적 자원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국제간 영토분쟁이나 과거사 문제 등에서 기록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사회에서 기록은 역사적 가치는 물론 증빙적 가치를 가진 또 다른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해외기록물 수집은 다이아몬드, 주석과 같은 '자원' 찾기의 일환이다.

잃어버린 기록은 분명 오늘날 우리의 아픈 상처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위기를 기회로 삼아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성장하였듯이, 이젠 잃어버린 기록에서 아픔을 넘어 희망을 쫓아야 할 시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해외 소재 기록물의 중요성에 대한 민·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현황조사부터 수집 관리까지를 염두에 두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노력이 절실하다.



▶ 러시아 조선인 포로명부(러시아 군사문서보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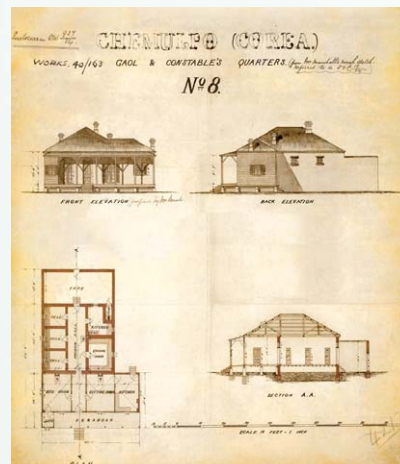
### 해외기록에서 '아리랑'을 본다

필자는 해외 소재 한국관련 기록물을 생각하면 아리랑이 떠오르곤 한다. 아리랑이 갖는 아련한 '한(恨)'의 역사와 이미지가 겹쳐지기 때문이다.

해외 소재 한인기록을 보노라면 더욱 그렇다. 한말 미지의 땅 하와이로 이민을 떠난 이들은 '아리랑' 만큼이나 많은 사연을 갖고 떠났다.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해 팔려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낯선 땅 하와이에서 날뎠을 팔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조국을 위해 독립자금을 흔쾌히 내놓았던 것도 이들이었다.

당시 이들은 고국 처자들의 사진만 보고 결혼하는 일명 '사진결혼'을 하기도 했다. 일부 한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멕시코로 건너가 '애니깁(Henequen 에네켄) 노동자'로 힘든 삶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또 다른 미지의 세계로 이주해야만 했다. 이렇게 퍼진 해외 한인인 이제 역사가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 오늘의 한인동포사회를 만들었다.

러시아 사할린을 비롯해 중국 등지로 강제 이주한 이들의 기록은 우리의 아픈 기록 가운데 하나이다. 동토(凍土)에 내몰렸던 이들은 이제 한국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 사이에서 있는 경계인이 된 지 오래다.



▶ 한말 영국 제물포영사관 설계도면 (영국 국립문서보존소)

이들의 기록까지 경계인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는가. 또한 냉전체제 붕괴 이후 러시아와 동유럽 등지에 산재해 있는 북한 관련 기록도 챙겨야 한다. 통일대비 기록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갖은 사연을 간직하고 해외에 떠돌고 있는 해외기록은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다.



▶ 기록물 복원 과정을 살펴보는 이경옥 국가기록원장

### 세계로 기록문화 영토를 넓혀라

100여 년 전 미지의 세계로 떠났던 이들의 흔적은 빗바랜 사진과 누렇게 바랜 기록들로 남아 있다. 이렇게 살았노라고, 하지만 이들의 고단한 삶만큼이나 기록 역시 '고단' 한 세월을 견디어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여 년의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양 6대주에 뿌리 내린 이들의 역사는 챙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로 나아간 이들의 역사를 이제는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 그들의 마른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의 시작은 해외기록물 수집이다.

해외기록물 수집은 대한민국 기록문화 영토를 넓히는 것이다. 인류는 기록을 만들고 기록은 역사를 만든다고 하였다. 해외 소재 한국 관련 기록물은 향후 인류사에 '대한민국'을 만드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21세기 경제영토와 함께 기록문화 영토를 넓히는 것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이 함께 할 것이다. **AV**

“ 21세기 경제영토와 함께 기록문화 영토를 넓히는 것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이 함께 할 것이다. ”



▶ 일본 공탁금 관련 문서(국가기록원)



▶ UN대표단(UN사진기록보존소)

#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외교 기록전

2010.11.1~11.12 | 청와대 사랑채

## ◀ 윤보선 대통령

제4대 (1960. 8 ~ 1962. 3)

니카라과 특사 접견 및 서신 교환  
윤보선 대통령이 1961년 니카라과 친선 사절단 일행을 접견하고 서신을 교환하고 있다



연미복 윤보선 대통령이 외빈 접대 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미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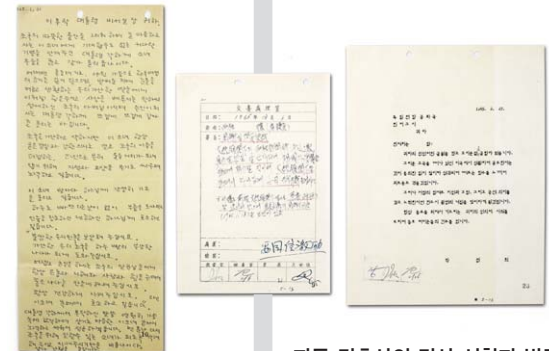


영문 타자기와 액자  
이승만 대통령이 편지와 공문서 등을 직접 사용하던 타자기이다



## ◀ 박정희 대통령

제5~9대 (1962. 3~1979. 10, 권한대행 기간포함)



파독 간호사의 감사 서한과 박정희 대통령의 회신  
박정희 대통령의 1964년 서독 방문 시 격려사 말씀에 대한 파독 간호사의 감사 서한과 박정희 대통령의 회신 서한이다



미 백악관 방문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5월 미국 린든 존슨 대통령의 공식 초청으로 열흘간 미국을 국빈 방문 하였다

## 이승만 대통령 ▶

제1~3대 (1948. 7~1960. 4)



미 의회 연설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미국 방문 중 미 의회 연설에서 '휴전의 폐기'를 주장 하였다



중화민국 방문 환영 행사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의 중화민국 공식 방문 시 환영 행사 모습이다

지팡이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 아서 H 술츠버거 뉴욕타임즈 회장에게 선물한 지팡이로, 'PRESENTED TO A.H.S BY SYNGMAN RHEE, AUGUST 10, 1954' 라는 글씨가 새겨 있다



한일 기본 관계 조약 및 부속 협정서  
1965년 한일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이다

## 최규하 대통령 ▶

제10대  
(1979. 10~1980. 8, 권한대행 기간포함)



쿠웨이트 훈장 최규하 대통령은 1980년 쿠웨이트 샤베르 국왕으로부터 무바라크 최고훈장을 받았다



가방 최규하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이 새겨 있는 낡은 갈색 가방으로 대통령의 검소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쿠웨이트 샤베르 국왕과 정상회담  
최규하 대통령은 1980년 5월 13일 쿠웨이트를 방문하였다. 쿠웨이트 샤베르 국왕은 한국의 원유 사정이 악화될 경우 최대한 협력할 것을, 최규하 대통령은 쿠웨이트의 공업화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만년필 노태우 대통령이 1990년 '모스크바 선언' 서명 시 사용한 만년필이다



유엔 연설 노태우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1992년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이다

## ◀ 노태우 대통령

제13대 (1988. 2~1993. 2)

도자기 노태우 대통령이 1990년 소련 방문 시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서 받은 선물로 노태우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 전두환 대통령 ▶

제11~12대 (1980. 9~1988. 2)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총리에게 보낸 친서  
전두환 대통령이 1985년 일본의 대한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이다



아프리카 4개국 공식 순방 환송식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의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앞두고 열린 환송식 모습이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총리를 위한 만찬 전두환 대통령은 1983년 1월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총리를 초청하여 만찬을 가졌다

## 김영삼 대통령 ▶

제14대 (1993. 2~1998. 2)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의 연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미국을 방문하여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였다



조깅복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영국 방문 시 영국 총리실에서 제공받은 조깅복이다

아르헨티나 훈장 김영삼 대통령이 1996년 아르헨티나 대통령 접견 시 받은 훈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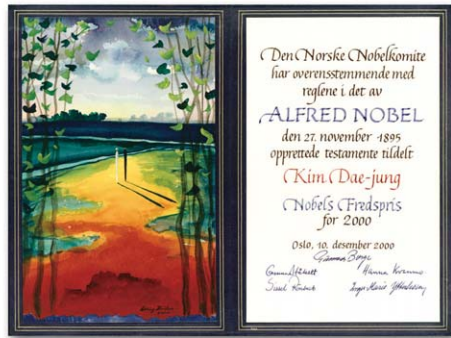
세계지도자상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UN협회가 선정한 세계지도자로 꼽혔다

## 김대중 대통령 ▶

제15대 (1998. 2~2003. 2)



IMF 신용 인출 잔액의 최종 상환 서류 2001년 IMF 신용 인출 잔액의 최종 상환 서류이다



노벨평화상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12월 10일 노르웨이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상장을 수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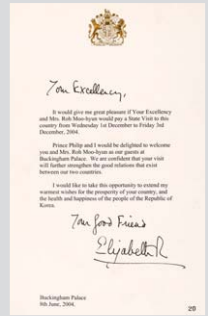
제3차 ASEM 기념 촬영 2000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 제3차 ASEM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손목시계 1997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선물이다



영국 공식 환영 행사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 영국 국민 방문 시 환영식 모습이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국민 방문 초청장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게 영국 국민 방문을 요청한 초청장이다



해외 파병 지갑 2004년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장병들에게 지급한 검정색 지갑으로, 케이스에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 이명박 대통령 ▶

제17대 (2008. 2~현재)



라오스 교과서 라오스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보급 사업 및 교과서 제작 지원 사업에 따른 성과물이다



DAC 가입 초청 및 수락 서한 2009년 11월 25일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초청 및 수락 서한이다

제4차 G20 정상회의 기념 촬영 제4차 '2010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 기념 촬영을 하였다



## 노무현 대통령 ▶

제16대 (2003. 2~2008. 2)



제13차 부산 APEC 정상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 Special Edition

기획특집

## 해외기록은 ‘자원’이다



### 국외 전적문화재 환수와 그 과제

-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 국가기록원, 해외기록물 수집현황 및 과제

- 이강수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 나라 밖에서 나라 찾기의 기록물

- 김도형 독립기념관 선임연구위원

### 기록문화유산의 국외유출 현황과 과제

- 박대남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 한국이민사박물관 해외이민자료조사 현황과 과제

- 박은미 한국이민사박물관 박물관팀장

# 국외 전적문화재 환수와 그 과제

❖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 퇴계언행록 표지



▶ 퇴계언행록 (권지일)

## I. 머리말

문화재는 선조들이 오랜 세월동안 창출한 문화의 결정체이다. 이것이 제자리를 떠나게 되면 한갓 골동적인 가치로만 치부된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외침과 근대화를 위한 격동기를 겪으면서 강대국들에 의해서 수많은 문화재를 약탈당했다. 이들 문화재는 한국 전통문화의 실상을 밝히는데 있어 국내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 가치가 높은 것도 많다.

우리나라 문화재는 이웃 나라간의 선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증된 예도 있지만, 고려시대 거란족, 몽고족의 침입이나 왜구의 노략질,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을 겪으면서 수없이 약탈당했다. 특히 1910년의 한일합방 후 일제강점기 36년간의 문화재 약탈은 극에 달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골동품상과 도굴꾼에 의한 식민지적 수탈행위와 몰지각한 판매행위에 의해 유출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문화재는 대부분 불법으로 유출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에 있다고 모두 불법으로 유출된 문화재라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조선조 초기부터 중기까지의 일본과의 교류는 고려대장경이 핵심이 된 매우 특이한 교류였다. 당시 극심한 왜구문제로 한·일간의 외교관계가 활발하였는데, 배불승유 정책을 폈던 조선은 일본 사신이 올 때마다 요구하는 고려대장경을 한부도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일본 사신들에게 주었던 사실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선린외교의 산물도 상당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188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함대가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하였고, 해방이후 6·25동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기에도 여러 경로로 문화재 반출은 계속되었다. 이렇게 국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는 대부분 우리나라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유출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국외 문화재는 불법에 의한 것이라는 국민적인 감정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외에 있는 많은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불법적으로 유출된 경위도, 그 대상도 모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먼저 국외 문화재에 대한 실태파악을 선결해야 하고 이들 문화재에 대해 반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한국문화 콘텐츠로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II. 국외 문화재 환수

국외 문화재 환수하면 떠올리게 되는 것이 17년이 지나서 겨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외규장각도서'이다. 사실 외규장각도서 반환문제는 국외에 유출된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돌려받고 싶어도 상대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화재 환수는 상대국에게 꾸준히 신뢰를 구축하면서 접근해야 이를 수 있는 것이라는 교훈을 남겨 주었다.

문화재청의 환수현황에 의하면, 일본으로부터 5,108점, 미국1,295점, 스페인 892점, 독일 678점 기타 271점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이외에는 약탈문화재 환수로는 보기 어렵다. 일본으로부터는 1965년에 한일 문화재 협정결과 1432점(창녕 교동고분군 출토 금제이식 등 106점은 1958년 6월에 반환받음)을 반환 받았고, 1991년에는 영친왕비 복식 등 295점, 2005년에는 북관대첩비 등을 정부간 협상을 통하여 반환받았다. 그리고 1996년에는 야마구찌여대의 데라우치문고 가운데 일부인 135책, 이외에

2005년에 동경 야스쿠니 신사에서 북관대첩비 그리고 2006년에는 동경대학에 있던 조선왕조실록 47책 등을 반환받았다. 이외에 대부분은 양식 있는 일본인이나 재일 동포들이 구입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고 있다가 기증한 것이 많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1987년에는 이우찌(井内功)씨가 고구려 연화문 수막새 기와 등 1082점, 1994년에는 하찌우마씨가 금동여래좌상 외 316점 등을 기증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2007년에 미국 해사박물관의 신미양요 때 탈취한 어재연 장수 '수(帥)' 자 기(旗)가 장기대여의 방법으로 환수되었고, 그 외에는 대부분 개인이 구입한 문화재를 기증의 방법으로 돌려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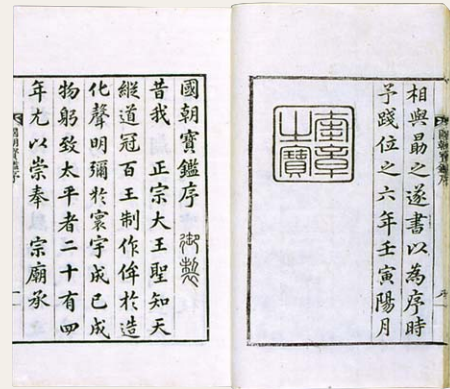
이렇게 문화재의 환수는 정부간 협상에 의해 반환받는 방법 외에도 기증, 구입, 영구대여, 장기대여의 방법도 있다. 그러나 사실 약탈문화재 환수는 정부간 협상에 의해 반환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개인이 수집한 것을 친선우호 차원에서 기증한 것이 대부분이다.

## III. 전적(기록)문화재 환수

### 1) 기록문화재 환수 실적

그동안 기록(전적)문화재의 환수는 한일간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서 1966년 5월에 도서 163종 852책과 마이크로 필름 379롤(238종)을 인수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1971년에는 일본에서 재일동포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상지(椽紙)에 은니(銀泥)로 쓴 묘법연화경(7권)이 있고, 1996년 경남대학교는 일본 야마구치여자대학의 데라우치문고 소장본 135책을 기증받았다. 데라우치문고는 조선 제3대 통감이자 초대총독을 지낸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 : 1852~1919)가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근무하며 수집한 3국의 고전적 18,000여 점을 바탕으로 기초를 확립하고, 그의 아들 히사이치(壽一)가 완공하여 운영해 온 사설문고이다. 현재 이 문고는 야마구치현립대학(山口縣立大學) 도서관 2층 개인 기증 문고실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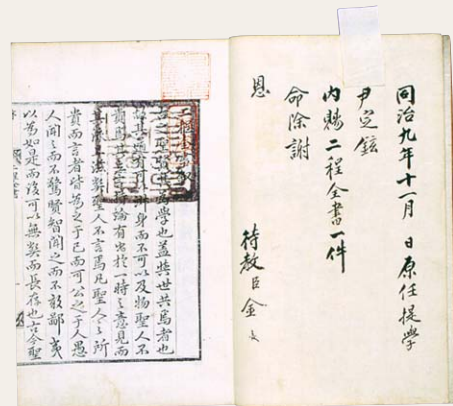
테라우치는 그의 출신지가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지리적 영향 등으로 인해 일찍부터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조선에 부임하면서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한 서도 전문가 고토 쇼헤이(工藤壯平)를 데리고 와서 통감부에 근무케 하였다. 고토는 규장각에 근무하면서 한편으로 서울 시내에 흘러넘치는 수준 높은 조선의 전적들을 접하게 되었고, 조선총독에게 재직 기념으로 거리에 범람하고 있는 한국의 전적류를 수집해 일본으로 가져가서 기념관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하여 문고 설립의 뜻이 세워지자 테라우치는 자료 수집에 적극 나섰다. 그리하여 시중에 널려있는 조선의 옛 서책들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소문을 듣고 스스로 집안에 소장되어 있던 서첩 등을 가져오는 사람들로부터 선물로 받은 하여 수집된 것이 테라우치문고 컬렉션 내의 조선관계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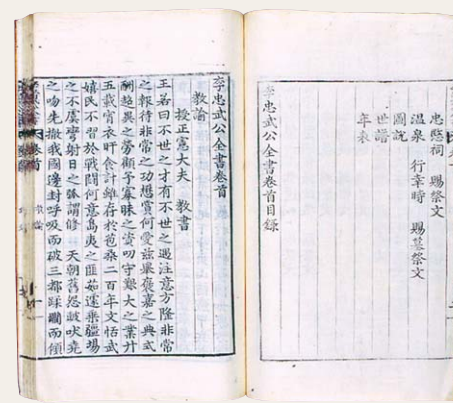
▶ 국조보감



▶ 여사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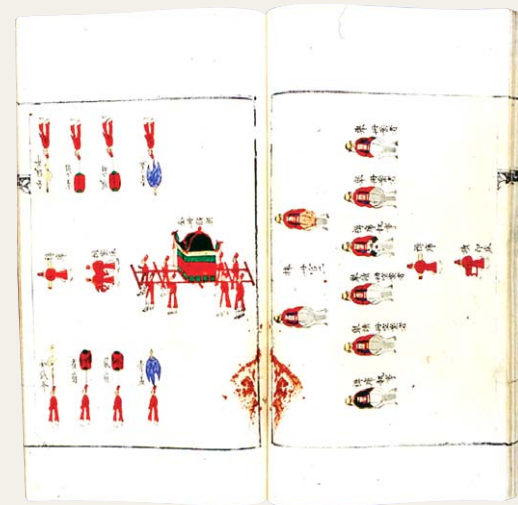
▶ 이정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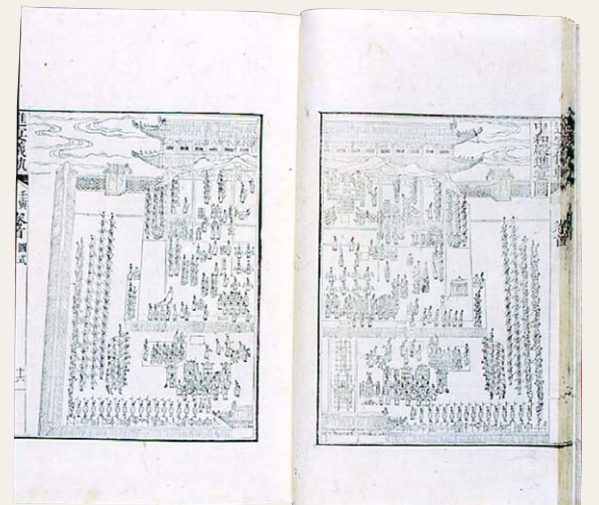
▶ 이충무공전서

이 외에 2006년 7월에 도쿄대학이 조선왕조실록을 서울대학으로 기증하는 형식으로 환수(2006)되었는데,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의 노력이 계기가 되었다. 이 조선왕조실록은 월정사 오대산 사고(史庫)본으로 1913년경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것인데 1923년 관동대 지진으로 거의 소실되고 남은 47책을 기증 형식으로 반환받은 것이다.

2006년 10월에는 추사 연구의 선구자였던 일본인 학자 후지쓰카 지카시(藤塚, 1879~1948)가 추사의 친필 20여 점을 비롯하여 평생 모은 자료(2,750점)를 그의 아들 후지쓰카 아키나오(藤塚明直, 94)가 한국에 기증해온 것과 2006년에 김시민장군 공신교서를 시민모금을 통하여 일본에서 구입한 것이 있고, 2009에 국립고궁박물관이 대한제국기(1897~1910)에 사용했던 “황제어새(皇帝御璽)”를 재미교포로부터 구입한 것을 꼽을 수 있다.



▶ 진봉황귀비 의궤도설



▶ 진연의궤 중화전진연도

## 2) 국외 한국전적의 실태

그 동안 필자가 참여하여 해외전적조사연구회에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도움으로 조사한 것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리고 2010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태 조사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1991	일본 나고야 봉좌문고 155종 1,475책
1992	일본 교토대 하합문고 727종 2,496책
	일본 교토 상국사 1,490종 5,967책
1993	미국 워싱턴 미의회도서관 451종 2,933책
1994	미국뉴욕 콜롬비아대 동아시아도서관 817종 2,235책
1995	미국 UC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839종 4,013책
1996	일본 교토 남선사 530종 1,748책
1997	일본 도쿄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 209종 2,455책
1998~2000	일본 도쿄 공내청 서릉부 636종 4,678책
	프랑스 기메박물관 100종 224책
2001	프랑스 파리 중앙어학교 98종 341책
	파리 기메박물관 100종 224책
2002	영국 런던 국립도서관 229종 594책
	일본 쓰시마 역사민속자료관 586책
2004	일본 쓰시마 금강원 166책
2005	일본 나라 천리대학 도서관 1,867종 5,711책
2006	일본 도쿄 존경각문고 172종 1,369책
2007	키자흐스탄 국립도서관 330종 1,015책
2010	일본 교토 대곡대학도서관 4,995책
	중국 원난대학 도서관 124종 676책

일본에 있는 한국전적은 나고야 봉좌문고(蓬左文庫)를 비롯하여 11개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을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교토 상국사(京都 相國寺), 쓰시마 역사민속자료관(對馬島 歴史民俗資料館), 교토 남선사(京都 南禪寺), 쓰시마 금강원(對馬島 金剛院), 교토 대곡대학도서관(京都 大谷大學圖書館)에 소장하고 있는 고려대장경은 14~15세기 조선초기부터 일본으로 전래된 것이다.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고려 말부터 극심한 왜구문제로 한·일간의 외교 관계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양국의 사절이 왕래하면서 조선에서는 왜구의 금압을 요청하기 위해 사신(使臣)을 파견하였고, 일본에서 오는 사절은 대부분이 승려였다. 실정(室町)시대의 일본 승려는 외교문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외교사절로 활약하였던 시절이었는데 일본 사절로 활약한 승려들의 관심 대상은 고려대장경이었다. 조선에서는 배불숭유정책(排佛崇儒政策)을 펼쳐 불교계의 입지가 매우 약해졌을 때였고 조정에서는 왜구대책(倭寇對策)을 위해 일본 사신이 요구하는 대장경을 사급하면서 일본과의 선린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국내에 남아 있던 고려대장경판은 모두 일본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조선초기에는 고려대장경은 일본과의 교류의 핵심이었고 일본과의 교류는 대장경 교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교토대학(京都大學) 부속도서관에는 조선재정에 관하여 연구한 가와이 히로다미(河合弘民)가 수집하여 기증한 가와이문고(河合文庫)가 있다. 가와이 히로다미(河合弘民)는 1916년에는 「이조세제(李朝稅制)에 관한 연구」로 문학 박사 학위를 획득하였으며, 우리나라 고서적 내지 고문서 수집에 열성적이었다. 1918년 그가 죽고 난 후, 1919년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주선으로 교토대학 도서관에서 가와이의 유족들로부터 수집 장서를 일괄 구입하였다. 가와이문고는 가와이 히로다미(河合弘民)의 이름을 딴 것이다. 세종16년(1433)에 간행한 초주 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을 비롯하여 임진왜란 전후의 주자본 등 귀중서가 많다.

가와이가 수집할 당시의 서울 인사동 서점에는 조선의 서적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값이 매우 저렴하였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에 와 있던 일본인의 경제 형편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종이 값 정도만 지불하고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고야의 봉좌문고, 동경의 내각문고, 궁내청 서릉부 그리고 존경각의 한국본은 임진왜란때 약탈해 간 고문헌이 주축이 되어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약탈해간 도서는 도요토미가 죽어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 중 200부는 그의 학승(學僧)이 경영하는 후시미(伏見)학교에 기증되었고, 나머지는 스루가(駿河)문고에 들어갔다. 그 뒤 스루가 문고는 이에야스의 세 아들에게 분양되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봉좌문고가 되었다. 나머지는 모미지야마(紅葉山 : 楓山)문고로 들어갔다가 그 뒤 내각문고와 궁내청 서릉부로 들어갔다. 존경각은 도요토미의 막료로 참전한 마에다(前田)가 탈취해간 고문헌을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 받아 간직한 것이다. <2009, 천혜봉> 내각문고에는 모미지야마의 구장본(舊藏本)을 상당수 소장하고 있고 궁내청 서릉부에도 소장되어 있다.

필자가 일본의 대량 소장처를 조사해 본 결과 국내에는 오래된 귀중서는 대부분 낙질인데 비해서 일본에 있는 한국의 귀중 도서가 낙질이 없이 온전하다는 점이 너무나

부러웠다. 물론 귀중자료도 국내보다 훨씬 많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한국 전적을 소장하고 있는데, 워싱턴의회도서관, 콜롬비아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도서를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버클리대학 동아시아서관 아사미문고는 일본인 법학자인 아사미(淺見倫太郎)가 일제때 수집한 한국자료이다. 그는 1906년에 한국에 와서 통감부 법무원의 법제관으로 시작하여 1910년 이후에는 경성고등법원의 판사를 겸직하였던 사람이었다. 그는 한국의 법제사에 관심을 갖고 한국 고서를 수집하여 귀국한 후 조선법제사고의 논문을 써서 도쿄대학에서 법학박사의 학위를 받기도 했다. 아사미 컬렉션은 모두 839종 4,013책과 한국 탁본 155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희귀자료와 유일본이 많았다. 이 장서는 1920년에 미쓰이(三井) 재단이 소장하였다가 일본이 패전으로 그 재단이 해체되고 1950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동아시아 도서관으로 팔려 보관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 런던 도서관에도 한국 전적이 소장되어 있는데 별로 특색이 없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 소장 한국전적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원동조선사범학교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을 1937년 스탈린 정권에 의해서 조선인 강제 이주와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옮겨 왔던 책들이다. 이 책들은 대부분 조선후기에 간행된 교과서류가 대부분이다. 아마도 이주 조선인들이 2세들을 위해 조국에 대한 민족교육차원에서 수집하여 가져온 책으로 추정된다.

작년에 원난대학도서관 조사를 한 결과 자체에서 작성한 목록에 판본의 간행사실 등에 오류가 많았다. 중국에 있는 한국고서에 대한 나름대로 작성한 목록들이 있지만, 한국의 서지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지에서 나름의 조사 목록이 있지만 조사기준이나 방법이 다르고 한국 고서 전문가들이 없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

프랑스에 소장된 한국전적은 대부분 프랑스 외교관이었던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 : 1853~1922)와 지리

학자인 샤를 바라(Charles Varat),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 등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 한국을 다녀간 사람들에 의해 수집되어 프랑스 기메박물관, 파리 국립도서관, 프랑스 동양어학교에 각각 기증되었다. 특히 국외의 한국 전적조사는 서지에 대한 정보가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하고, 간행년 판정 등 학술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목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IV. 프랑스 외규장각도서와 일본 궁내청 서릉부 도서

##### 1) 프랑스 외규장각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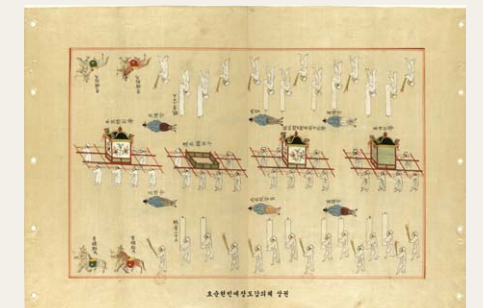
외규장각은 1776년에 설립한 규장각에 이어 1781년에 강화도의 행궁지에 부속기구로 왕실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강화도의 외규장각은 국방상 안전하여 열성조의 어제, 어필을 비롯하여 국가의 주요한 행사 기록을 담은 의궤 등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해 왔다. 그런데 1866년 10월에 로즈제독이 지휘한 프랑스 극동함대가 강화도로 침입하여 강화도를 점령하였다가 퇴각하면서 약탈한 것이다. 당시 외규장각에는 1,042종 6,130책이 있었으나 340책 외에는 프랑스의 방화로 모두 소실되었다. 이 책들은 그 이듬해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넘겨져 현재까지 보관되고 있다. 그러다가 1975년에 박병선 박사가 베르사이유에 있던 국립도서관 별관에서 확인하였다. 1991년 11월에 당시 규장각도서 관리실장 이태진 교수에 의해서 조선왕실의궤 191종 297책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어 같은 해 12월에 외무부에서 바로 수용하여 12월에 프랑스 외무성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그 후 1993년 9월 김영삼 대통령이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청와대 만찬 자리에서 「취경원원소도감의궤」상권을 돌려받았다. 당시 돌려받은 이 한 권의 책은 외규장각 도서를 모두 돌려받는 상징적인 의례로 생각했으나 이후 17년이 지난 세월이 지나서야 겨우 타결되었다.

처음부터 프랑스에서의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은 등가등량 방법에 의한 상호 대역라는 “교류와 대역(exchange and loan)의 원칙”에서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세월을

보냈던 것이다. 그러다가 2010년에 프랑스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상호 대역이 아니라 영구임대 형식으로 돌려준다는 획기적인 제안을 하였다. 그리하여 11월 11일부터 이틀간 열렸던 서울 G20 세계정상회의에 참여하였던 프랑스 대통령과 한불정상회담에서 외규장각 도서를 5년 단위의 갱신 대역 방식으로 사실상 반환하겠다는 합의문을 채택하여 외규장각 반환을 요청한지 20년 만인 금년 전반기에 장기 미해결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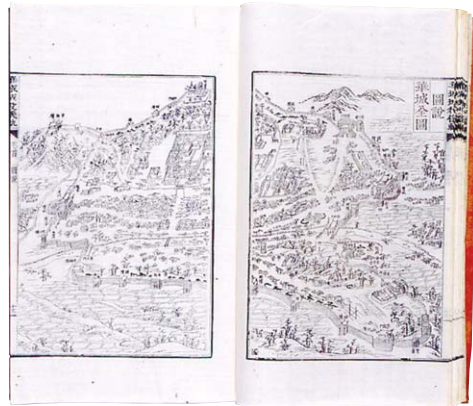
이 왕실의궤는 왕실의 주요행사와 그 집행방식, 그리고 왕조의 살림규모와 문화를 알 수 있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번에 돌려받는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는 191종 297책이다. 이 가운데 어람용 289책, 분상용 의궤 5책, 형지안 2책, 등록 1책으로 규장각의 의궤보다 품격이 뛰어난 도서이다. 현재 실무적인 접촉으로 절차를 협의하고 있어 늦어도 금년도 전반기에는 환수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외에도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는 선원계보기략 등 47책의 외규장각도서가 더 있고, 지도 2점, 족자 7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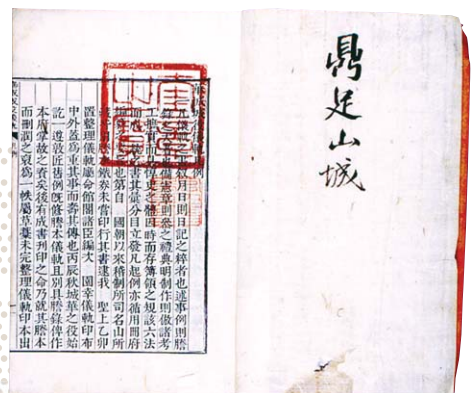
▶ 효순현빈 예장도감의궤 상권(어람용, 문화재청 사진 제공)



▶ 영조 · 정순왕후 가례도감의궤 하권(어람용, 문화재청 사진 제공)



▶ 화성성역의궤 화성전도



▶ 화성의궤 범례

## 2) 일본 궁내청 서릉부 도서

2010년 11월 14일에 제18차 APEC정상회의(일본 요코하마)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칸 나오토 일본 총리 간에 일본 궁내청이 소장한 조선 왕조의궤를 포함한 150종 1,205책의 반환에 합의하고 양국의 외무장관이 배석하여 정상 간 합의내용을 명문화한 「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협정」에 서명했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부터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의 활동과 노력으로 국회에서도 2차례의 결의문을 채택(06.12.8/10.2.25)하는 등 각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정부는 2008년 4월의 한일외상회담에서 국내사정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반환을 요구하였고, 2009년 5월부터 외교부, 문화재청 등의 관계부처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마침내 2010년 8월 10일에 일본 칸 나오토 총리는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도서의 반환” 의사를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총리 담화를 기준으로 선정한 반환대상 도서 1,205책에 대한 목록이 ‘부속서’라는 이름으로 10월 하순 한국에 전달하였다. 이 목록을 검토한 결과 우선 책 수량이 예상보다 많았고, 이어 이 책들이 조선총독부가 기증한 의궤류 이외의 책은 이토 히로부미가 반출한 도서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놀랐었다. 그리고 이후 반환대상 도서에 대해 2010년 11월 1일~2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한일 전문가 간 의견교환의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확정하였다.

이번에 반환되는 도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통치에 필요하다고 반출해 간 나머지 66종 938책과 조선총독부가 기증한 조선왕조의궤류 81종 167책을 비롯하여 「증보문헌비고」 2종 99책, 「대전회통」 1종 1책 등 150종 1,205책이다.

궁내청 서릉부(宮內廳 書陵部)는 일본 황실의 보록(譜錄), 실록(實錄), 도서(圖書), 공문서(公文書), 능묘(陵墓) 등의 업무를 관리하는 곳으로 궁내청 도서관(圖書寮)라 부르다가 1949년 궁내청 서릉부로 개편한 곳인데, 이곳에 있는 한국본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희귀한 책들이 많을 뿐 아니라 전질(全帙)을 갖추고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많다. 한국 해외전적조사연구회에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636종 4,678책을 조사하고 목록을 발간하였다. IMF 등 예산문제로 19~20세기에 간행한 판본과 필사본은 조사하지 못했음 이 목록을 근거로 하여 이 가운데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반환받을 수 있는 대상 문화재라고 생각하여 선정한 것은

다음과 같이 3종류의 기준이었다.

- 1) 조선 총독부 기증본 : ‘조선총독부 기증인(朝鮮總督府圖書之印)’ 이 찍혀 있다.
- 2) 제실도서 : 1909년 홍문관, 집옥제, 시강원 등에서 모여서 ‘제실도서지장(帝室圖書之章)’ 의 도장을 찍었다.
- 3) 조선초기 ‘경연(經筵)’ 에서 소장했던 책 : 고려 숙종때 송나라에서 수입한 통전은 고려와 조선 양국에서 임금을 위한 교재로 사용된 매우 특이한 위치에 놓인 책이다.

이 3종류의 책은 조선 왕실에 소장되었던 것이 분명한 반환대상으로 손색이 없는 전적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실도서」와 「경연도서」는 ‘일본 총리의 담화기준’ 과 부합하지 않다고 하여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일본 총리의 담화에서 언급한 내용이 기준이 되어 반환대상이 정해진 것이었다. 그리하여 「제실도서」와 「경연도서」는 조선총독부를 경유하여 반출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재 반환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상대의 입장과 기준이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반환되는 궁내청 소장 한국전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조선총독부 기증 도장이 찍힌 책 : 84종 267책
    - 1) 조선왕실의궤 : 80종 163책
    - 2) 진찬의궤 : 1종 4책(활자본, 서릉부에서 구입한 것)
    - 3) 증보문헌비고 등 : 3종 100책
  2.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빌려갔던 책 : 66종 938책
    - 1) 한국궁내부 규장각본 33부 563책
    - 2) 구 통감부 채수본 33부 375책  
(원래 44부 465책인데 1965년 한일협정때 11종 90책은 반환받았음)
- 합 계 : 1,205책

조선총독부에서 기증한 “조선총독부기증(朝鮮總督府寄贈)” 인(印)이 찍힌 조선왕실 의궤는 80종 163책이고, 증보문헌비고 등 3종 100책으로 모두 83종 263책인데, 구입

도서인 진찬의궤 1종 4책을 추가하여 84종 267책이 되었다.

이 책은 조선왕실 의궤를 모두 돌려준다는 입장에서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토 히로부미가 1906년에서 1909년 사이에 한국 통치 자료로 참고하기 위해 규장각본 33종 563책과 통감부 채수본(采收本) 44종 465책 등 77종 1,028책을 가져갔다. 이중 11종 90책은 지난 1965년 「한일 문화재협정」에 따라 반환되었고 이번에 그 나머지가 반환대상으로 포함된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가 대출해 간 책(77종 1,028책)은 그가 죽고 난 후 궁내성 도서관에 보관되었던 것인데, 1911년 5월 15일 궁내성 대신이 테라우치 마사다케 조선총독에게 이 책들을 궁내성에 양도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던 관련기록이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기도 하다. 이토 히로부미가 반출해간 책은, 1998~2000년에 한국해외전적조사연구회에서 조사한 궁내청 조사목록에는 빠져 있었다. 그런데 11월 양국의 전문가 협의회에서 이 책들은 그동안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이번 반환되는 전적은 1922년 조선총독부가 기증한 조선왕실의궤류와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대출해 간 전적들이다. 간총리의 담화에 한정된 반환이기는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의 대출도서들을 일본 측에서 먼저 제기한 것은 일본측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 V. 국외문화재 환수전략과 과제

국외에 유출된 문화재가 모두 환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이다. 그리고 무엇이 환수 대상인지도 사실 모르고 있다. 반환받을 대상 문화재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흔히 국외에 유출된 문화재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나 환수대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료이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환수대상으로 주장할 대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환수 대상을 위한 실태파악 조사가 없이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는 모두 반환받아야 한다는 감정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다.

국외문화재를 환수받으려면 무엇보다 각국에 있는 한국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외에 있는 한국문화재의 환수가 능사가 아니다.

프랑스 외규장각도서의 반환 협상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으로 유출된 것이 확실한 문화재로 환수하는데 17년이 넘게 걸리고 있다. 문화재 환수는 일방적일 수 없는 것이고 상대 국가가 반환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제는 문화재를 매개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여 상호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06년에 이탈리아와 미국사이에 문화재 반환 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있는데, 2006년 2월에 이탈리아와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과 21점의 문화재 반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미국 각지의 박물관으로부터 총 96점의 문화재를 2010년 1월에 반환받았다. 이탈리아 정부는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미국박물관으로부터 자국문화재를 반환받는 대가로 '동등한 미와 예술적 또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를 '장기대여'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문화재에 대한 반환요구보다도 장기임대나 기증 구매 등의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보다 효율성이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외문화재를 환수대상으로만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 심정적으로 약탈된 것이라 하더라도 불법으로 유출된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적, 고문서, 사경 등 고문헌은 국내에 없는 희귀자료들에 대한 선부분 반환보다도 영인 복제나 디지털화를 통하여 국내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고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기록문화재는 형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록 내용이 핵심이 된다. 그러므로 기록문화재는 그 내용을 복제해 오면 아무리 외국에 있더라도 별 문제될 것이 없다. 앞에서 설명한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나 일본 궁내청 서릉부의 반환도서는 분명하게 약탈의 증거를 지니고 있지만, 대부분 다른 문헌은 구입의 방법으로 유출된 것이 많다. 그러므로 환수 차원이 아니라 자료 확보 차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실태 파악조사도 전문가적인 안목을 갖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조사내용도 연구를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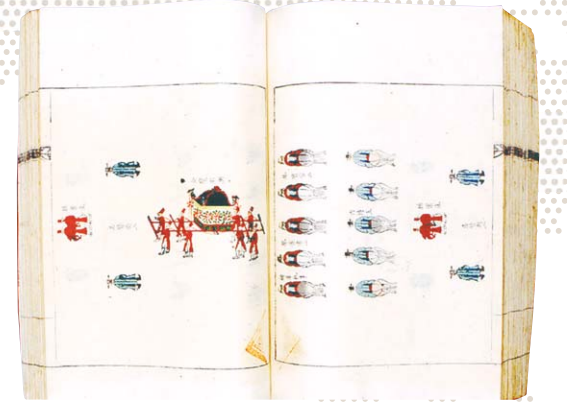
학술적인 가치를 손상함이 없어야 하고 학술적인 자료로서 활용 가능한 조사여야 한다.

국외에 있는 문화재 가운데 역사적으로 생성된 것뿐만 아니라 근세에 생성된 문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근세사에 대한 사료로서의 중요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근세 일본에 의한 강제침탈 그리고 6·25 한국동란 등으로 정신없는 세월을 지내면서 자신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고 이 당시에 생산된 문서들도 상당수가 불타버리고 흩어져 버렸다.

이제 근세 혼란기에 생산된 문서는 물론이고 국외에서 생성된 한국관련 고문서도 수집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구한말 일제 강점기 그리고 6·25전쟁 때와 그 이후에 생성된 문서들과 이 시기에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당사국인 미국이나 일본에서 한국 관련 문서를 수집해서 정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에는 1870년 강화도 사진, 1882년 한미수교에 관한 문서와 6·25때 이북의 각 지방 관청에서 취득한 공산당 문서, 미군정 때 작성된 문서 등도 수집대상이 된다. 일본은 이미 1984년부터 2억5천만 불의 예산으로 미국의 일본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2년에 걸쳐 복사해 갔다고 양기백 박사는 증언하고 있다. 일본은 1945년에서 1952년에 걸친 일본 점령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사해 갔는데, 이 가운데는 한국과 관련된 자료도 많을 것이다. 미국에 있는 한국관련 서류(필사본)들은 인터뷰할 때 메모한 쪽지도 소중하게 보관되고 있다. 그동안 미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등 미국의 20여개가 되는 각 기관에서 비밀 또는 대외비공개 자료들이 지금은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이들 자료는 File, Interview, Memorandum, Note, Records, Reports 등의 형식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다. 한국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로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료적인 가치가 높은 문서라고 생각된다. 특히 근세에 있어 관련국과 정치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생산된 관련 기록은 국제관계 뿐 아니라 국내의 정치 경제 안보에 관하여 매우 귀중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들 문서는 한국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새로운 사실과 당시의 주변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읽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외의 한국관계 기록과 서류는 단순히 사료적인 가치 뿐 아니라 당시 한국이 처해진 상황을 알 수 있으며 당사국의 한국 인식에 관한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축적한 자료들로서 대부분 국가 기관에서 이를 보존 관리하며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외 한국관련 기록물 수집은 문화재 환수와는 다른 자료 확보 차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국외 한국관련 기록물 수집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여 구심력을 갖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IN**



▶ 황태자가례 금보채어

**필자 소개**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거쳐 일본 도쿄 대정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문화재청 전문위원, 문화재위원,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장,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하였고, 20년 동안 국외문화재 실태조사를 하였다. 현재 (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전국사찰소장 목판집」, 「사경, 해외전적조사 목록」 등이 있다.

# 국가기록원, 해외기록물 수집현황 및 과제

❖ 이강수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 I. 태동기 : 역사적 진실을 찾아

국가기록원은 대한민국의 National Archives로서 모든 공공기관 기록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후대 기록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기록유산은 공공기관 기록만이 아니라, 민간에 소장된 기록물, 더 나아가 해외에 소장된 기록도 포함된다. 이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한말 이후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권위주의 정권 등 일련의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외세는 한반도의 실제 권력으로 존재하거나 정책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자리하였다. 그리고 한국 민족운동도 국내가 아닌 해외가 중심지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한국사의 주요 사건·사고와 관련된 기록물이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 산재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는 한국관련 기록물이 대량으로 소장되었고, 아직도 그 절대량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기 힘든 상태이다. 국가기록원을 필두로 국내 주요 기관·대학, 전문연구자들이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해외 기록물을 수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기록원이 해외기록물을 수집한 것은 1980년대부터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1980년대 수집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이 해외에 나가서 수집한 것이 아니라 타 기관에서 수집한 기록물을 복사한 것으로 해외기록물 수집이라고 규정하기 힘들다. 1) 1990년대의 해외기록물 수집도 해외에 소장된 한국관련 기록물 수집을 일차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특정 국가와 기록물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선진적인 기록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한국사회에 정착시킬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해외 기록물관리기관이 어떻게 공공기록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 과정에서

1) 2000년 이전에 기관에서 복사한 기록은 현재 M/F로 보관중이며, 대부분은 미국과 일본 자료로 해방직후 미국 국무부의 한국관련 보고서, 한국전쟁기 미군활동, 그리고 일본 외무성 문서 등이다.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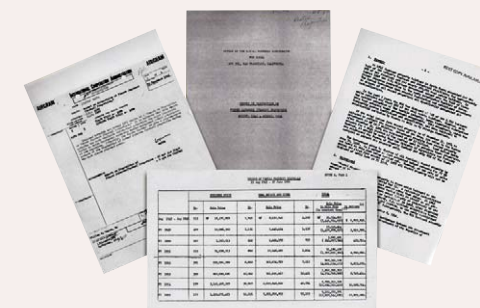
2008년 4월 경기도 성남에 개관한 나라 기록관은 연면적 62,240㎡,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최첨단 전문 보존시설이다.

한국관련 기록물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해외기록물 수집업무가 시작된 것이다. 해외기록물 수집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지만, 원내외의 여건상 단순 조사 이상으로 나아가기는 힘들었다.

## II. 성장기 : 수공업적 수집기

국가기록원에서 해외기록물 수집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부터이다. 이후부터 일본, 중국, 미국 등에 소장된 한국관련 기록물 수집이 본격화되었다. 미국의 케네디·포드·닉슨대통령 관련기록,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소장 1950년대 한미원조관련 기록, 일본의 학습원대학 소장 우방문고, 중국의 북경시당안관 소장 '한국교포선무단' 관련 기록 등이 대표적 기록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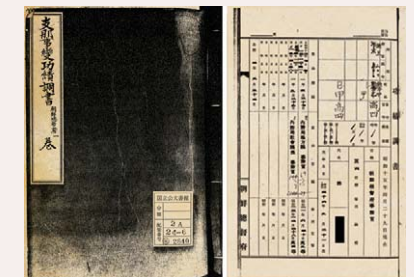
미국에서 수집한 기록물은 주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와 트루먼대통령기념도서관 등에서 수집한 기록물로, 시기적으로 해방직후부터 1950년대 기록물이 다수이다. 1949년 미국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과 비망록, 한국전쟁 시기 미국 주요 신문에 보도된 한국전쟁 관련 자료, 미 의회군사위원회 및 외교활동위원회 보고서(1951), 주한유엔경제조정관(OEC)의 보고서(1953~1958), 한국재건은행 고문 R. F. W. Whitcomb의 월례보고서(1958), 한국은행 고문 O. S. Powell의 월간보고서(1958) 등을 수집했다. 신문 스크랩의 경우, 미국 민주당 국가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가 스크랩한 한국전쟁관련 자료로서,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 내 정세동향, 미국 언론에 비친 한국전쟁 등이 반영되어 있다.



▶ 1950년대 미국 경제원조 관련 보고서(미국립문서보존소)

특히 트루먼행정부 관련 기록이 다수 수집되었는데, 트루먼행정부는 38선 이남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한 미군정기는 물론, 한국전쟁 발발 전후 등 한국관련 정책을 가장 많이 관여한 정부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일본에서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외무성 등에서 수집하였다. 공문류취(公文類聚)와 조선인 서훈(敍勳) 관련 기록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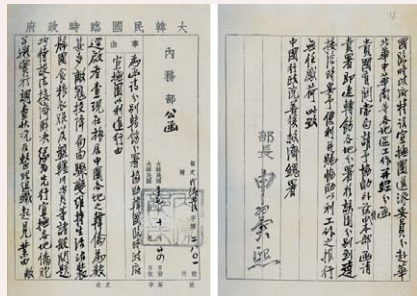
▶ 일제시기 조선인 공적조서 (일본 공문서관)

공문류취는 188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내각에서 생산한 공문서군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의 근간을 살필 수 있는 주요 자료이다. 이 기록에는 일본 최고 통치기구인 태정관에서 생산한 기록에서부터, 대한제국시기 황제의 전권위원 이완용과 일본 국왕 전권위원 테라우치가 조인한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안」 기록까지 다양한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일제시기 서훈(敍勳)은, 1900~1904년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기록으로, 조선인 중에서 서훈을 받은 명단이 실적과 함께 다수 포함되어 있다. 주요 서훈자는 조선총독부 도지사·군수·판사·검사 등 관료, 교사, 군인, 순사 등이며, 자료에는 서훈자의 성명, 서훈명, 당시 직위, 서훈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중국 북경시당안관 소장 한국관련 기록물은 2000년대에 수집했다. 일반적으로 중국 소장 한국관련 기록물은 동북3성 지역 기록물을 중심으로 수집해 왔다. 동북3성 지역이 일제시기 우리의 독립운동과 밀접한 지역이고, 현재도 조선족이 많다는 점 등이 작용된 결과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관내, 특히 중국의 수도인 북경시당안관에서 한국관련 기록물을 수집한 것은 당시로서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북경시당안관에서 수집된 기록은 이후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등 관계기관과 전문연구자에게 제공되었다. 특히 '선무단(宣撫團)' 관련 기록은 한국 역사학자들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중국학자들에게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 임시정부 선무단 관련기록(중국 북경시당안관)

이 외에 국가기록원은 2004년 몽골과의 기록관리교류 협정을 기반으로, 1862년부터 1956년 사이 생산한 몽골 소재 한국관련 기록물, 1950~1990년대 북한-몽골 교류 관련 기록물, 남·북한-몽골 교류 관련 기록 영상 등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했다.



▶ 1930년 전후 김일성 모습 (몽골 기록보존소)

이 기록물을 기반으로 향후 국가기록원이 한국내 몽골 기록을 총괄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기록원은 2000년 전후로 해외기록물을 직접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기록물교류협력을 기반으로 기록물을 수집하는 방식이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직원이 단 몇 일간의 출장으로 기록물을 수집해서 가져오는 수공업적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III. 발전기 : 해외 네트워크 구축기

#### 1) 해외기록 수집 시스템 구축

해외 기록물 수집 체계는 2005년부터 대폭 변화되었다. 우선 해외 기록관리기관과 교류협력을 통해 기록물을 수집하는 방식이 정착되어 갔다. 국가기록원이 대한민국의 National Archives라는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5년 러시아국립문서보존소, 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존소, 국립사진영상기록보존소, 군사문서보존소 등과 기록물 교류협력을 체결하고, 2006년 이후 베트남 국립문서보존소, 중국 제2역사당안관, 영국·헝가리 국립문서보존소 등과 기록물 교류를 확대했다.

이 때부터 공식적인 기관간 협의와 절차 속에서 해외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게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국가기록원은 일반 연구단체나 개별 연구자들과는 달리, 국내 기관·단체, 그리고 전문연구자에게 기록물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기록물 수집 행위 자체 보다도 이용권 협의 등 이후 활용에 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National Archives간 MOU체결에서 기록물 소장 기관간 MOU체결로 구체화되었다.

기관간 MOU체결을 통한 수집 후, 수집방식 또한 변화되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직원의 단기 출장에 의한 기록물 수집이 주를 이루었다면, 2005년부터는 체계적인 기록물 조사 및 수집을 위해 현지 유학생이나 교수 등 전문 연구자를 해외조사위원으로 선정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필요한 경우, 기관간 협정서에 조사위원 제도를 명시하거나 현지 대사관에 조사위원의 위촉사항을 통보하는 등 이들의 활동을 공식화했다. 2005년 모스크바대 박사과정 2인을 러시아 해외조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을 필두로 주요 국가에 해외조사위원을 위촉하였다. 또한 언어와 내용적 특성상 해외기록물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하므로 해외기록물 자문위원제도를 병행 운영하였다. 이로써 수집대상의 선정부터 최종 수집단계에 이르는 과정까지 기록물의 가치 및 수집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렇게 해외기록물 수집기반을 정비함으로써, 러시아, 베트남, 영국, 헝가리, 불가리아, UN 등 다양한 국가로 수집을 확대시켜 나갔다.

#### 2) 러시아 기록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정책을 결정했던 실제 권력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러시아 기록의 자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 국가기록원은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존소와 러시아국립문서보존소에서 코민테른 기록과 한국전쟁 관련 기록 등을 수집했다. 한국전쟁 관련 기록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러시아 군인 및 정부에 보낸 감사편지 등이고, 코민테른 기록은 '동방노력자공산대학' 관련 기록 등이다.

특히 동방노력자공산대학 관련 기록은 명단과 회의록 등 관련 기록을 병행 수집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주의운동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었다. 한편 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존소에는 일제시기 코민테른 계열로 활동한 한국독립운동가의 개인화일철을 보관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내와 주고받은 편지부터 관련 문건 등 개인 관련 모든 기록이 보관되어 있으며 개인별로 많게는 2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자료는 해방 후 북한에서 활동한 인물도 상당수 포함되어 현재 비밀로 분류되어 있으나 향후 국가기록원 뿐만 아니라 국내 유관기관의 중요한 수집과제로 남아 있다.

국립영상기록보존소에서는 1945년 소련의 대일전 참전부터 1956년 김일성의 동독 방문까지의 동영상과 사진자료 등을 수집했다.



▶ 1949년 김일성의 러시아 방문 모습 (러시아 국립사진영상기록보존소)

이들 영상기록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대일전 참전 및 북한의 진주과정, 해방직후 북한의 사회상, 특히 1945~46년 북한인민위원회 선거모습과 북한 인민군 창군 모습,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의 서울입성모습 등 매우 진귀한 기록물로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사진·영상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체포된 미군포로 (러시아 국립사진영상기록보존소)

특히 '1949년 김일성의 러시아방문 관련 동영상'은 러시아방송으로 방영되기 전 無音의 상태에서부터, 김일성이 모스크바역에 최초로 도착한 후 연설모습 등을 수차례에 걸쳐 찍은 것으로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볼 수 있다.

한편 러시아 군사문서보존소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으로 참전하여 소련군에 체포된 조선인 '포로명부' 약 3천여명 분량의 개인카드를 수집하고 있다.

이미 개인카드 목록을 전량 수집한 상태이고, 현재 개인별 화일철을 추가로 수집 중에 있다. 이 자료는 친일연구 또는 강제동원 연구에 핵심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러시아에서 최근 비밀해제된 한국관련 기록물 수집도 주목된다.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에 체포된 조선인 포로 명부(러시아 군사문서보존소)

이 기록물은 2005년 출장 당시 러시아연방기록관리청장이 비밀기록물 해제심의회에 직접 참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관련 비밀기록물의 신속한 해제를 요청하면서 관련 기록물 수집이 추진되었다. 러시아 비밀해제 기록물의 수집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3) 유럽 지역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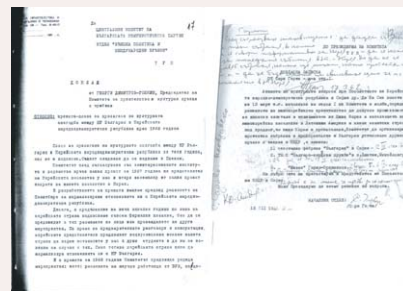
유럽지역에서는 영국과 헝가리·불가리아 등에서 한국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8년 영국 국립문서보존소와 MOU를 체결하고, 한말 개항기 관련 기록, 한국전쟁 관련 기록 등을 수집 중이다. 특히 왕립지리학회 소장 한말 제물포 주재 영국영사관 도면이 주목된다. 한말 제물포에 있던 영국영사관은 현재 소실되어 없지만, 한말 영국영사관이 벽돌로 만든 120평규모의 단층건물로 존재했고, 감옥실까지 만들어 운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 국립문서보존소 소장 한국전쟁 관련 기록물 또한 기존 미국 자료의 결락을 보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말 주한영사관 조계지 선정지도 (영국 국립문서보존소)

국가기록원은 2008년 동유럽국가로는 처음으로 헝가리 국립문서보존소와 MOU를 체결했다. 동유럽 국가들은 수 년전부터 북한관련 비밀문서를 대량 비밀해제하고 있었

다. 이에 폴란드를 필두로 헝가리 등에 소장된 북한관련 비밀해제 기록물에 대한 수집협약이 진행되어 2008년 헝가리국립문서보존소와 MOU를 체결하고 한국관련 기록물을 수집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2010년에는 불가리아 기록물을 수집했다. 수집한 기록은 북한주재 불가리아 대사관에서 생산한 문서와 불가리아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불가리아 외무부로 발송한 문서류 등으로, 특히 「북한 유학생의 망명 관련 기록물」(1968년)은 1962년 8월 불가리아 북한유학생이 불가리아로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되자, 북한 송환을 요구하는 북한정부와 이를 거부하는 불가리아 정부 간에 대립이 첨예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1968년에 가서야 해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 북한유학생 망명사건 관련 기록 (불가리아 국립문서보존소)

이런 동유럽 기록물은 남북한 관계사, 1950~70년대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또 다른 보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4) 베트남전쟁 기록

동남아시아 기록 중 특히 주목되는 기록이 베트남 전쟁 관련 기록이다. 이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베트남 전쟁 관련 기록물에 대해 국내 실태를 조사하면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수집 권의 책과 연구는 대부분 한국에서 작성한 베트남 기록이거나 단순한 신문 보도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베트남 소재 전쟁 관련 공식기록의 수집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국방부와 베트남 전쟁 관련 전문 연구자들은 본 자료의

수집을 기대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수집과정에서 현지 학자들도 파악하지 못한 기록물이 확인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사진기록'이었다.

순	의거자(의거행위)	날	연	비고(의거장소, 의거행위)
1	이준	3월	1898년	2월4일경 - 4월1일 경
2	이완용	3월	1898년	3월29일 - 4월29일
3	홍사익	3월	1898년	3월29일 - 4월1일
4	유관순	3월	1898년	3월29일 - 4월1일
5	이인	3월	1898년	3월29일 - 4월1일
6	이인	3월	1898년	3월29일 - 4월1일
7	이인	3월	1898년	3월29일 - 4월1일
8	이인	3월	1898년	3월29일 - 4월1일
9	이인	3월	1898년	3월29일 - 4월1일
10	이인	3월	1898년	3월29일 - 4월1일
11	이인	3월	1898년	3월29일 - 4월1일
12	이인	3월	1898년	3월29일 - 4월1일
13	이인	3월	1898년	3월29일 - 4월1일
14	이인	3월	1898년	3월29일 - 4월1일

▶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게 뿌려진 전단 (베트남 국립문서보존소)

이 기록은 대부분 정리되지 않아 정확한 수량과 내용은 파악할 수 없었지만, 베트남 전쟁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남과 북이 별개의 국가로 규정된 상태에서, 북한기록을 요청할 경우 북한 측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향후 기관간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집해야 할 기록물이다. 특히 북한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므로 이 자료는 베트남 전쟁사 연구의 한 획을 그을 것으로 생각된다.



▶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모습 (베트남 빈딩성박물관)

베트남 전쟁 기록 중 빈딩성 지역의 기록 또한 중요하다. 빈딩성은 일반인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베트남 전쟁의 최전선 지역이기도 하다. 빈딩성에서는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전쟁지도와 유적지, 유물, 그리고 기록과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호치민에는 한·베트남 관계기록과 이승만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기록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전쟁 관련 기록의 수집은 단지 전쟁사가 아니라, 한·베트남간 아픔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화해의 역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5) 조총련 및 북한 기록

조총련 계열의 기록은 조총련 본부를 필두로, 조선신보사, 조총련 영화제작소, 재일조선사회과학자협회, 재일조선인역사연구회, 조선대학교 등에 주요 분포되어 있다. 이 중 조선신보사와 '총련영화제작소'는 익히 알려져 있지만, 재일조선인역사연구회는 남한에서, 그리고 일본역사학자들도 제한된 곳 중의 하나이다. 재일조선인역사연구회는 <조선신보>광고 등을 통해 재일동포 초창기 기록과 문건 등을 수집하고 있었다. 이 자료들은 향후 재일동포사 연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차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재일 조선대학교에는 한말 개혁파였던 박영효 선생의 친필 휘호와 한말에 작성된 <사진첩> 등이 보관되어 있다. 한말에 어떤 사람이 어떤 경로로 사진첩을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사진의 질과 내용은 그 자체로 귀중함을 말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조선신보사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수집했다. <조선신보>는 조총련기관지로 조총련의 역사와 궤를 같이해 왔다. 조선신보사에서 수십년 동안 촬영한 사진과 <조선신보>자체가 일차기록으로 주목되었는데, 이 중 <조선신보>만 우선 수집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북한 기록물 수집은 남북한 기록관리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남북한 기록교류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남북한의 중요 민족기록을 후대 기록유산으로 전승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실제 동독과 서독은 통일이전인 1986년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동서독 기록물 교류를 추진했고, 이것이 현재 통일독일 기록관리의 기틀이 되었다.



▶ 한국사진첩 (일본 조선대학교)

북한측과의 직·간접적 접촉은 2007년부터 준비되어 2008년 본격화되었다. 기록을 통한 남북교류, 기록문화유산의 술탄반도적 보존관리라는 우리 측의 의지를 북측에 전달하고, 북측도 우리의 의도에 공감하면서 본 사업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8년 국가기록원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다. 당시 남북한 당국의 교류와 협상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어, 평양방문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협상방법과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와 조율' 등은 조심스러웠다. 그럼에도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대학습당, 묘향산 보현사, 팔만대장경 서고 등 기록관리 현장을 방문하고, 2차례의 실무협의를 추진했다.<sup>2)</sup>

당시 정치적 영역의 교류가 아닌 문화적 교류, 특히 민족적인 기록유산을 후대에 남겨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우리측이나 북한측이나 모두 공감했다. 과거 동독과 서독의 통일과정에서 동·서독의 기록물교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처럼, 남·북한 기록관리교류협력이 향후 통일 시대의 밑거름이 되길 기원해 본다.

2) 방문기간 중 북한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이 국가문헌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문헌국이 우리의 국가기록원과 같이 귀중본이나, 훼손위험이 있는 문헌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 IV.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기록원의 해외기록물 수집은 단순히 해외 소장 한국관련 기록물 수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National Archives로서 해외 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물 교류, 더 나아가 기록관리 인적·물적 교류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가기록원의 해외기록물 수집은 수집국가와 기관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해외기록물 수집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할 점도 있다. 첫째, 수집대상국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이다. 기록물관리기관 간 MOU체결 및 기관간 협의는 많이 증가하였지만, MOU 체결 이후의 지속적 관리 및 전문적 수집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MOU체결 및 수집량 확보라는 실적 중심의 행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실적주의에서 벗어난 가치 있는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원내 시스템 마련, 더 나아가 일부 국가의 해외기록물 수집을 기록물 '이전'이라는 큰 틀에서 미정리 된 기록물의 정리 및 상호교환 방식의 사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수집기록물의 가공 및 대국민 서비스 체계 구축이다. 해외기록물은 다양한 자료가 수집되고 있고 최근 정리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부의 기록은 언어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일반 연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록집 또는 자료집 발간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원을 필두로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등 해외기록물 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의 공동 활용방안 모색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기록관리 교류협력의 본격적 추진이다. 북한관련 기록물 수집은 수집절차와 방법 등에서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특히 기록관리 외적인 정치적 요인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적 남북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N**



▶ 북한의 팔만대장경 보존소

#### 필자 소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백범학술원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현재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저로는 「반민특위연구」(나남), 「분단의 두 얼굴」(역사비평사), 「해방직후 국군준비대의 조직과 활동」, 「1960년 양민학살진상조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외 다수가 있다.

# 나라 밖에서 나라 찾기의 기록물

— 해외 독립운동 자료수집의 현황과 과제 —

❖ 김도형 독립기념관 선임연구위원

## 한국독립운동은 세계가 무대

올해는 광복 66주년 되는 해이지만 독립운동사적으로는 항일무장투쟁의 상징적 교육기관으로 널리 알려진 신흥무관학교(신흥강습소)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작년 광복절에 즈음하여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로부터 기증받은 신흥강습소의 기관지 「신흥교우보」를 공개한 바 있다. 일반에게 공개된 「신흥교우보」 제2호(1913년 9월 15일 발행)는 그 이름만 전해올 뿐 원본은 발견되지 않아 무수한 추측을 낳았다. 그런데 이 귀중한 자료가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던 중국지역에서가 아닌 미국에서 우연찮게 발굴·수집되었던 것이다.

▶ 신흥교우보 2호 표지(1913. 9.15)

「신흥교우보」의 발굴로 독립군의 양성기관인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새롭게 밝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만주지역 독립운동사 연구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기록물로 높이 평가된다.

이처럼 신흥무관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빛을 보게 된 독립운동의 귀중한 자료도 있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 '나라 찾기의 흔적들'이 하루바삐 발굴·수집되어 역사적 사실들이 환히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독립기념관에 근무하면서 국외의 독립운동 사적지의 실태를 조사하였고,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여러 해 동안 담당해 왔다.

여기에서는 자료수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외 독립운동 자료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터득한 것을 상술하고자 한다. 특별한 연구나 조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경험에 의지하다 보니 필자가 미처 알지 못하거나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 간과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해외 독립운동 자료의 현황에 대해 알기 위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특징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한국독립운동의 특징은 전 세계가 모두 독립운동의 무대였다는 점이다.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일본·미국·유럽·동남아시아 등지에서도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독립운동의 특징은 자주 지적되는 것과 같이 '공간의 세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일제에 의해 강요된 '을사늑약'으로 주권이 상실되면서 식민지나 다름없는 고국을 등지고 타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고국을 떠난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한인사회를 형성하고 고된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도 잃어버린 나라를 찾는 일에 전념하였던 것이다.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지만 나라를 되찾기 위한 활동은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만의 몫이 아니었다. 전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한인들 모두 온 힘을 쏟았던 것이다.

1910년 경술국치를 전후하여 많은 구국 지사들이 국내와 접해 있는 중국과 러시아지역에 망명하여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투쟁을 벌였다. 이처럼 국내와 가까운 중국·러시아지역에서 독립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고, 멀리는 영국 런던에서 이한용열사가 국망을 당할 위기에 처한 고국의 처지를 개탄하면서 순국하였으며,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국특사들이 국제적 외교를 벌였던 것이다. 심지어 멕시코 유카탄반도의 에네켄발에서, 쿠바 마탄사스지방의 사망수수농장에서도 나라를 찾아가자는 열망은 식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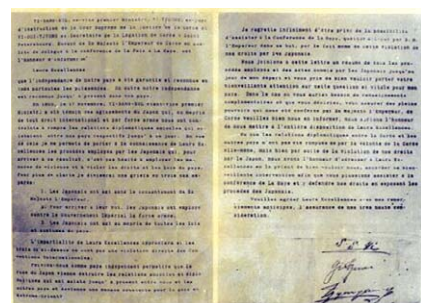
▶ 평화회의보(1907. 7. 5)

헤이그 특사의 활동을 보도한 제2차만국평화회의의 「평화회의보」



▶ 위임장(1907. 4.20)

고종황제가 이준열사에게 수여한 헤이그 특사 위임장



▶ 독립호소문(1907. 6. 27)

을사늑약의 무효화와 일제의 침략상을 폭로하고 평화회의에 참석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3인의 헤이그 특사가 각국 대표들에게 전달한 「독립호소문」

### 독립운동가들의 나라 밖에서 나라 찾기

1910년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한국인들의 나라 찾기는 국내에서보다도 해외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보다는 국외에서의 활동이 일제의 직접적인 간섭과 방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해외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곳을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중국·러시아·일본·미주·유럽·동남아 등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를 세분하면 중국지역도 관내와 만주로 나뉘고, 러시아지역도 연해주와 흑룡주 등 극동지역과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유럽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미주의 경우 미국·멕시코·쿠바 등으로, 동남아지역도 필리핀·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미얀마 등 나라별로 구분된다.

한국독립운동의 무대가 전세계에 걸쳐 있었다는 일례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독립운동가인 도산 안창호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독립운동을 위해 그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이 세상 끝까지라도 방문하고 일을 성사시켰다. 도산은 전 세계를 유력(遊歷)하면서 세계의 여러 나라에 장기간에 걸쳐 머물며 독립운동을 추진하였다. 우선 그는 1902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공립협회와 대한국민회를 탄생시켰으며, 1907년 국내에 돌아와서는 비밀결사로 신민회를 조직하였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 국내를 탈출하여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중국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을 모아 독립운동의 노선을 논의하였으며, 다시 러시아로 건너가 그곳에서 대한국민회의 조직을 확대시키는 활동을 하였다.

연해주와 북간도를 오가면서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하는 활동하던 그는 다시 유럽의 독일과 영국을 거쳐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돌아왔다.

미국에서 도산은 대한국민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1917년 멕시코로 가서 그곳의 한인사회를 정돈시키고 독립운동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멕시코에서 10개월 가량 머물다가 다시 미국에 귀환한 그는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면서 중국 상해로 가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등 해외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중국에 있을 당시 도산은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하고 한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만주지역의 구석진 곳까지 찾아 다녔다. 그런 가운데서도 도산은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 갔다가 호주를 거쳐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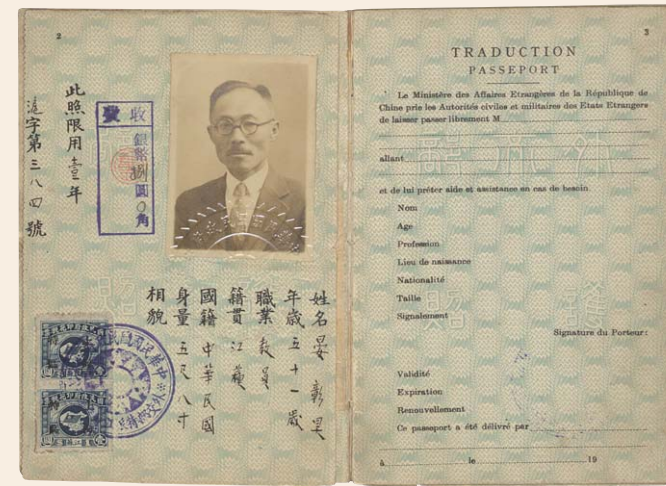
중국에 돌아온 도산은 필리핀 동포들의 초빙으로 1929년 2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50여일간 필리핀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가 필리핀을 방문한 목적은 만주지역에서의 이상촌 건설과 독립운동 기지개척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남방' 지역에서 이를 진행시키기 위함이었다. 필리핀 순방을 마친 그는 다시 중국으로 와서 독립운동을 모색하다가 1932년 4월 상해 홍구공원에서 윤봉길의사의 상해 의거가 있었고, 곧 일제에 체포, 국내로 이송되어 1938년에 순국하였다.



▶ 상해 임시정부 청사  
중국 상해시 마당로 보경리 4호에 복원된 임시정부 청사



▶ 중경 임시정부 청사  
중경시 유중구 연화지 38호에 복원된 중경 임시정부 청사



▶ 안창호선생이 필리핀에 갈 때 사용한 중국여권(1929)

도산 안창호 외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역임한 이승만, 초대 국무총리 이동휘 등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해외 각국을 돌아다니며 독립운동을 벌였다. 다시 말해, 나라밖에서 나라를 찾기 위해 전세계를 상대로 활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독립운동가들이 '나라 밖에서 나라 찾기'를 하다 보니 한국독립운동의 생생한 움직임은 전세계 곳곳에 그 흔적들을 남겼다. 이러한 흔적들을 우리는 '독립운동 자료'라고도 부르고, '독립운동의 기록물'이라고도 한다. 광복 직후 독립운동의 역사는 해방정국의 혼란과 6·25전쟁 등으로 정리되지 못하였다. 독립투쟁의 기록들은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수집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한국독립운동사 정리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나 독립운동가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도 이용되었지만, 일제가 우리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에 의지하여 정리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본격적으로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 자료들이 발굴·소개된 것은 광복된 지 40년이 지나 공산권과의 국교가 수립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독립운동의 주무대는 공산권 국가였던 중국과 구소련지역이었기 때문에 냉전시기 공산권 국가와 교류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그곳에 있던 독립운동 기록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은 당연하였다. 그러나 구소련이 붕괴하고 중국과 국교가 열리면서 국내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 기록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규탄하는 국민들



▶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국민성금모금운동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기념관 건립발기대회



▶ 독립기념관 건립모금 성금관련 신문기사



▶ 도산 안창호선생 유품 기증식



▶ 미국에서 수집된 서재필박사 유품

### 독립기념관 건립은 해외 독립운동 자료 수집의 본격화

아이러니컬하게도 해외에 있던 독립운동 자료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 때문이었다. 일본은 아시아 각국에 대한 '침략'을 '진출'로 고치는 등 자신들의 침략행위를 부정하는 내용을 역사교과서에 실었다. 더군다나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마침내 '극일운동'으로 발전되어 1982년 8월 27일 민간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독립기념관' 건립을 결의하게 되었고, 다음날인 28일부터 "독립기념관에 벽돌 한 개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독립기념관 건립 범국민모금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해 국민의 성금을 모으기로 결정되었고, 건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은 실제로 기념관에 전시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었다. 전국민적 성원속에서 독립기념관 건립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전시자료의 수집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아갔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독립운동 자료들이 해외에 산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국외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일본, 미국을 비롯한 독립운동 자료가 있는 곳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독립기념관에 전시될 자료수집운동은 광고와 방송을 통해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되어 갔고, 1983년 8월 15일 역사적인 기공식이 거행되면서 국민들의 성원 속에 전시 자료수집운동이 전개되었다. 기념관에 전시할 유물과 자료는 국민 개개인의 소장자료를 헌납 또는 기증을 통해 수집되었다. 짧은 기간에 국민들의 열렬한 호응과 해외 동포들의 협조로 1983년 말 접수마감일까지도 자료가 쇄도하여 총 622건 12,106점이라는 엄청난 자료가 수집될 수 있었다.

독립기념관을 건립하면서 해외 독립운동 자료와 기록물들이 본격적으로 수집되기 시작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외의 신문과 방송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로 국외에 산재되어 있던 독립운동 자료들이 수집될 수 있었다. 또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외의 독립운동 자료가 수집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본, 하와이, 미주지역 교민회 내에 수집위원회를 두고 그곳에서 자료를 조직적으로 수집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외자료 수집을 위해 주재국 공보관이나 문화원장에게 자료수집을 대행시키거나 혹은 전문가를 파견하여 합동으로 자료를 수집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와 수교가 되어있지 않은 중국에는 제3국 학자나 연구기관에 대행시키도록 하였으며, 기타 동남아나 유럽지역에는 각국 공관의 협조를 받도록 하였다.

독립기념관 개관을 위해 국내의 전시자료 수집에 총력을 집중하고, 전시국 소속 전문위원과 연구원들이 자료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수집계획을 실행해 나갔다. 1987년 8월 15일 역사적인 개관을 앞두고 총 8,242건 43,412점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로써 해외에 있던 귀중한 독립운동 자료들이 속속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독립기념관을 건립하면서 수집한 대표적인 해외 소재 독립운동 자료로는 도산 안창호 자료와 송재 서재필 자료, 하와이 국민회 자료를 들 수 있다. 1986년 3월 서재필 자료를 소장하고 있던 웨이커 문서보관소에서 5,238점의 자료가 입수된 데 이어, 개관 이후인 1989년 8월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기념재단으로부터 357점의 자료가 영구위탁 형식으로 기증되었다. 또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따님인 안수산여사가 1985년 3월 3,129점의 도산 관련자료를 기증하였고, 미주의 흥사단이 도산과 흥사단 관련 자료 1,500여 점을 잇달아 기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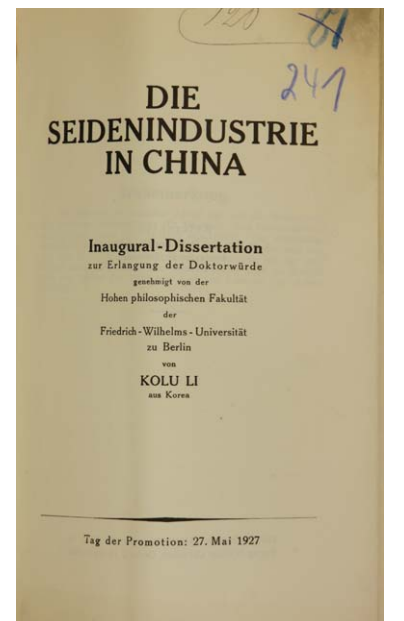
▶ 중국에서 기증된 용연 김정규 일기

### 공산권 국가의 붕괴는 해외 자료수집의 새로운 전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이 발단이 되어 독립기념관이 건립되면서 제1차적으로 해외 독립운동 자료가 국내에 들어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후 제2차 해외 독립운동 자료의 본격적인 수집은 공산권 국가의 붕괴가 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주무대는 우리나라와 그동안 국교가 없었던 중국과 구소련 지역이었는데, 그로 인해 어떠한 자료가 어느 곳에 소장되어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것이 당시의 실정이었다.

독립기념관의 개관을 전후한 시기 중국과 구소련 지역에서 소재하고 있는 자료가 제3국 학자를 통해 극히 소량 입수될 수 있었을 뿐, 중국과 러시아지역의 수많은 독립운동 자료들이 소재 파악도 되지 않은 채 쌓여있었다. 그런데 독립운동 자료수집에 일대 전기가 된 것은 구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과의 수교였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9월 한국과 러시아간의 수교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어 1992년 8월 중국과 수교가 됨으로써 상황이 크게 변화하였던 것이다. 이들 지역의 독립운동 자료수집은 정식 수교 이전에는 단발적이고 비밀리에 추진하여 왔으나, 정식 수교를 맺음으로서 해외 자료수집은 크게 활기를 띠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과 수교 이후 그곳의 '문서보관소'라고 할 수 있는 '당안관(檔案館)'에 소장되어 있던 독립운동의 새로운 사실을 밝혀주는 자료들이 수집될 수 있었고, 러시아지역의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었던 자료들도 입수되었다. 공산권지역에서 발굴·수집된 자료들 가운데는 그동안 우리 독립운동사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자료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소련 등 공산권이 붕괴되고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사회주의계열의



▶ 독일 훔볼트대학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이극로의 박사학위논문



▶ 한국독립운동 자료가 다수 소장된 일본 외무성외교사료관 입구



▶ 독립운동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정문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사조와 더불어 공산권 국가에 소장되어 있던 자료들이 물 밑듯이 소개되면서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의 전성시대를 맞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각급 기관에서는 이들 지역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달려들었으며, 언론에는 연일 새로운 독립운동 자료가 발굴되었다는 기사로 넘쳐났다.

아무튼 중국·구소련과의 수교는 독립운동 자료수집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공공기관에 소장된 독립운동 자료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지역에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도 수집되기 시작하였다.

중국과 수교 이후 독립기념관이 수집한 대표적인 자료는 용연(龍淵) 김정규(金鼎奎)의 일기가 있다. 이 자료는 김정규가 1907년부터 1921년까지 기록한 일기로, 함경북도 경성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북간도로 망명한 의병들과 북간도·연해주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게 한 귀중한 자료이다. 구소련과의 수교 이후 그곳으로부터도 독립운동 자료가 수집되었는데, 유명한 독립운동가이며 사학자인 북우(北愚) 계봉우(桂奉瑀) 자료가 1995년에 일괄 수집되었다. 카자흐스탄공화국에 살고있던 계봉우 선생의 후손이 소장하던 자료가 국내에 들어옴으로써 러시아지역 한인사회 및 독립운동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다.

### 해외 독립운동 자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

한국독립운동 자료는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정하여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이유는 한국독립운동은 전세계가 그 무대였으며 한국인들이 있었던 곳이면 어느 곳이라도 독립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지역에 집중되어 소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공식적이며 공개적으로 진행된 측면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밀리에 수행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 자료는 공식적인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세 번째 이유로는 해외 독립운동 자료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독립운동가들은 해외 각국을 주무대로 활동하면서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였고 국내의 가족들이 그곳으로 옮겨가기도 하였다. 광복된 이후에도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살면서 선조들의 독립운동 자료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이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독립운동 자료가 비교적 대규모로 집중되어 있는 곳은 그래도 역시 공식적인 '문서보관소'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각국의 문서보관소의 기능과 역할, 운영과 체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보석과 같은 독립운동의 기록을 찾기는 매우 난해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중국의 당안관과 러시아의 문서보관소에는 수많은 한인들의 독립운동 기록들이 소장되어 있지만, 그 양과 규모는 가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자료를 보기 전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중국에는 중앙단위, 성단위, 현단위, 시단위 등 각 급별로 당안관이 존재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각 기관별로 문서보관소가 있다. 이들 당안관과 문서보관소에는 술한 한국독립운동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지만 그 체계를 알지 못하면 자료를 확보하기가 힘들다.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미국과 일본의 문서보관소에 우리의 독립운동 기록물이 상당량 소장되어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각 기관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발굴·수집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해외 각국의 공적인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독립운동 자료의 수집은 국가기관의 공적 루트를 통해 요구할 수 있다. 현지 공관이나 공보관 등을 통해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자료수집을 대행시킬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지 문서보관소의 관리체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운동 자료를 찾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현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현지에서 한국독립운동사에 대한 지식을 갖춘 학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면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한국독립운동사에 식견이 있고 현지 문서보관소의 체제에 정통한 학자를 통해 수집하면 가장 이상적인 자료수집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현지 사정에 밝고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전문가를 파견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해외 각국의 공적 기관에 소장된 한국독립운동 자료는 비용과 시간을 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비공식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한 독립운동 자료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한 수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공식 기관 혹은 개인 소장 독립운동 자료의 수집은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실제로 개인이 소장한 독립운동 자료는 소장자와 수집자 간의 인간적 교감을 통해 수집이 된다. 따라서 개인 소장 자료의 확보는 매우 드물고 우연하게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확보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필자는 2008년에 북간도와 연해주지역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한 이인섭 선생의 아들 이 아나톨리(Lee Anatoliy)로부터 그의 선친이 기록한 독립운동 기록을 기증받았다. 이인섭 선생은 1937년 강제이주를 당해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면서 자신과 동지들이 겪은 독립운동을 일일이 기록으로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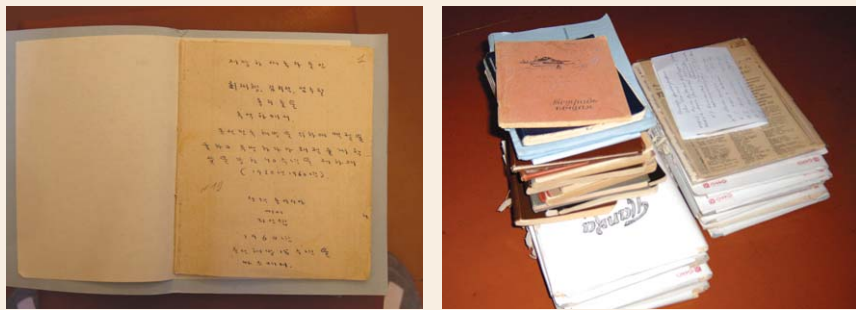
약 3천매에 달하는 이인섭 선생의 육필 자료가 독립기념관에 기증될 수 있기 되기까지 여러 관계자들의 정보제공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이 자료는 전 5권으로 올해까지 자료집으로 완간될 예정이다.



▶ 중국 용정에 있는 용정시당안국



▶ 중국 항주에 있는 절강성당안관



▶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집된 독립유공자 이인섭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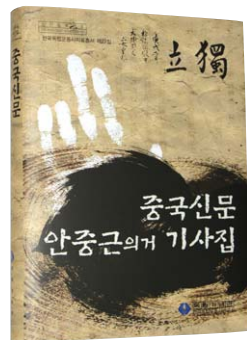
### 해외 독립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는 제2의 독립운동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 자료들은 독립기념관을 비롯하여, 국가기록원·국사편찬위원회·국가보훈처·국립중앙도서관 등 여러 국가기관에서 수년 동안 노력을 경주하였기에 많은 자료들이 수집되어 한국독립운동을 정리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국외에서 어렵게 수집된 독립운동 자료들이 정리되어 보관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독립운동에 피를 흘린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사장하는 일일 것이다.

해외에서 수집된 독립운동관련 자료는 그 대부분 알기 어렵게 손으로 쓰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전혀 해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소중한 독립운동의 기록들이 그냥 정리되어 수장고에만 보관되거나 혹은 전문가 몇 명만이 본다면, 수집에 들인 비용과 노력이 너무나 아까울 뿐 만 아니라, 그 보다는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알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해외에서의 독립운동 자료는 그 수집에 일차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전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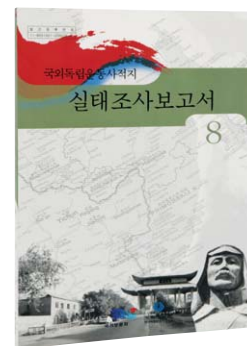
수집된 해외 독립운동 기록물들은 우선적으로 원본 자료에 대한 상세한 해제가 있어야만 하고, 이어서 자료에 대한 탈초·번역되어야만 한다.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방면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해 해제와 더불어 번역 작업을 실시하여 전문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독립운동 자료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여야만 한다. 물론 모든 자료가 그렇게 될 필요는 없지만 일반국민들에게 우리의 애국선열들이 어떻게 싸워서 나라를 되찾고자 노력하였는가에 대한 생생한 기록물은 꼭 이같은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독립운동 자료들이 왜 수집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앞에서 한국독립운동의 특징으로 '공간의 세계성'을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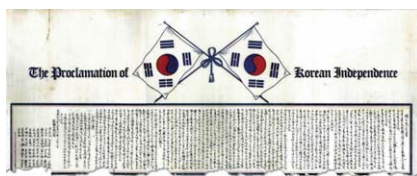
▶ 중국신문 안중근의거 기사집

중국의 18개 신문과 잡지에 실린 안 의사와 관련된 기사와 사진, 의거 소식, 의거에 대한 평가, 재판 및 형 집행, 각국 반응 등이 소개돼 있다



▶ 해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독립기념관은 한국독립운동의 세계성과 보편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0년부터 지속적인 해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 3·1 독립선언서

멕시코한인사회가 해마다 3·1절이 되면 사용했던 필사본의 3·1독립선언서

우리의 애국선열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마적들이 들끓는 광활한 만주별판이든, 북풍이 몰아치는 시베리아의 황량한 별판이든, 독사와 전갈이 우글대는 광활한 유카탄반도이든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돌아다녔다.

나라가 독립이 된 지 65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귀중한 독립운동 기록들은 아직까지 발굴되지 못한 채로 해외에 산재되어 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 자료들은 손쉽게 찾아질 수 없는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운동 자료가 세계 각국의 공적인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비밀한 곳에 소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독립운동 자료의 수집도 우리 애국선열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 몸을 바친 것과 같이 제2의 '독립운동'을 한다는 심정으로 노력과 정성을 다할 필요가 있다.

'독립운동가'들은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풍찬노숙하면서 한 몸을 소개와 같이 바쳐 나라를 되찾고자 하였던 분들이다.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나라 찾기의 흔적들'이 하루바삐 발굴·수집되어 역사적 사실들이 환하게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 필자 소개

국민대에서 국사학을 전공(박사)하였고 미국 하와이대학에서 객원학자로서 연구하였으며 현재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농업 100년」,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일제의 한국농업정책사 연구」 외 다수가 있다.

# 기록문화유산의 국외유출 현황과 과제

❖ 박대남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 I.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최근 해외에 흩어진 우리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광복이후 “1965년 한·일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협약제181호 1965.12.18)” 제 2조에 의거하여 일본측에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한 “대일청구 한국문화재 목록” 부터일 것이다.

그 후 1984년부터 문화재연구소에서는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현황파악을 위해 1984년, 1986년, 1991년, 1993년에 그동안 알려진 목록을 추가하여 4권의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목록(海外所在韓國文化財目錄)』을 발간한 바 있다.

1995년부터는 비록 제한적이긴 하여도 해외 현지에 나가 직접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부터는 중장기계획에 의해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격적인 현지 실태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지금까지 8개국 40개 박물관,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문화재 약 25,000점을 조사하였다.

현지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박물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문화재를 지원하고 해외현지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황파악을 실시하여 2011년 2월 현재 약 20개국 14만여점의 목록을 확보하였다. 그리하여 최근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목록(상·중·하)』을 발간하였다. 이 목록은 현지 소장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국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도서관에서 직접 한국문화재 목록을 제공받기도 하고 관련 학회나 유관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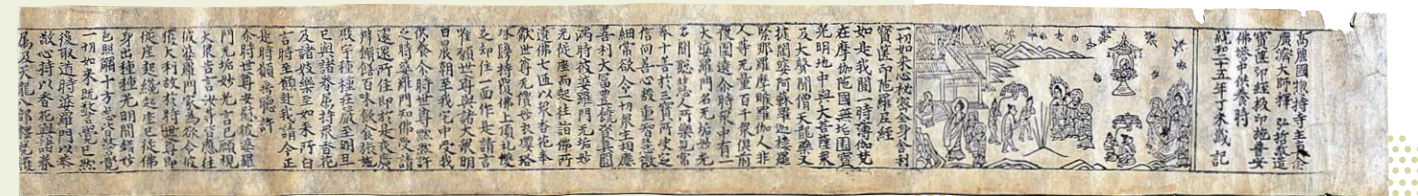


▶ 청자주전자, 고려 (미국 브루클린박물관소장)

## II.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현황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기록문화재(이하 전적으로 통칭함)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은 1991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수집한 목록과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파악한 목록을 중심으로 「일본소재 한국 전적 목록」(1993년)을 발간하면서 부터이다. 그 이후 지속적인 조사와 현황파악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기록문화재는 전체 국외소재 문화재 14만여점 중 76,785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파악된 전적은 1991년부터 해외전적문화재연구회가 12년동안 조사한 목록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직접 조사한 목록 및 각 학회 등 관련기관 및 개인이 조사한 내용, 해당 도서관에서 제공한 목록을 취합한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직접 조사한 기관은 일본의 덴리대학(天理大學) 덴리도서관(2003~2004), 손케이카쿠문고(尊經閣文庫, 2005),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2005), 미국 예일대학 도서관(2006), 일본 오타니대학(大谷大學) 도서관(2006~2007), 중국 윈난대학(雲南大學) 도서관(2010)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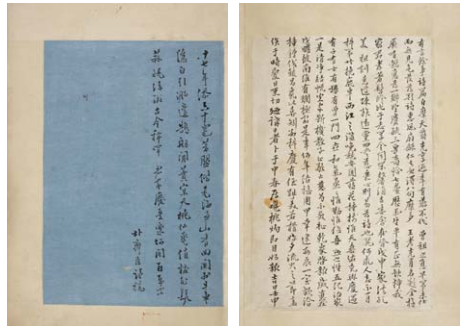


▶ 일체여래보협인다라니경

불공(당)역(不空(唐)譯), 목판(木版) 권자본(卷子本), 1권 1축(軸), 고려 목종(高麗 穆宗) 10년(1007) 간행(일본 동경국립박물관소장 오구라컬렉션)

### 1) 일본 덴리(天理)대학 도서관

이 대학의 도서관에는 일본 강점기 때 일본인 식민사학자 이마니시 류(今西龍 : 1875~1932)가 수집한 한국전적 1,530여종과 탁본 338종이 소장되어 있다. 이 중에는 13세기에 간행된 재조대장경판(再雕造大藏經版)을 비롯하여 고려간본으로 우왕 13년(1387) 간행된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비슷한 시기의 목판본 『청량답순종심요법문(淸涼答順宗心要法門)』, 그 밖에 임란이전 목판본 42종 205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세조연간의 대장경 번각본과 16세기 간본으로 『삼국유사(三國遺事)』 완질본, 을해자판(乙亥字版)을 번각한 『고려사(高麗史)』 139권 73책 완질본, 국내에서도 드문 『박물지(博物志)』, 『노자권재구의(老子勸齋口義)』, 원판(元版) 번각의 『두공부초당시전(杜工部草堂詩箋)』 40권 7책 완질본, 을해자판 발문이 추가된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등 귀중한 고간본들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고간본은 필사본(筆寫本) 246종, 목판본(木版本) 165종, 동활자본(銅活字本) 59종, 목활자본(木活字本) 31종



등을 비롯하여 철활자본(鐵活字本), 바가지 활자본(匏活字本), 신연활자본(新鉛活字本), 유인본(油印本), 탁본(拓本) 등 다양한 판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중중 연간에 인출(印出)한 갑진자판(甲辰字版) 『남당서(南唐書)』는 국내의 목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희귀본이며, 1387년에 간행한 천로(川老) 송(頌)의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은 추사 김정희(金正喜) 소장본이다. 또한 경진자판(庚辰字版)으로 찍은 『논어집주(論語集註)』 등 임란이전의 판본만도 60여종에 달한다. 이처럼 이 도서관에 소장된 다양한 인본은 한국 고활자 인쇄문화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개괄할 만한 자료의 보고라 할 수 있다.



### 2) 손케이카쿠문고(尊經閣文庫)

손케이카쿠문고는 카가번주(加賀藩主) 마에다가(前田家)가 소장했던 전적과 문서를 보관하는 도서관이다. 여기에 소장된 한국전적은 172종 1,369책으로 임란이전 간인본이 대다수이고, 대체로 완전한 전질본이다.

그 중에는 목판본이 108종 732책이고, 동활자본이 50종 529책으로, 이 두 판본이 전체수량의 90%를 넘는다. 그 다음 목활자본이 6종 19책, 사본이 6종 37책, 철활자본이 1종 1책, 신연활자본이 1종 51책 있다. 목판본은 임란이전본이 65종이나 되며, 대체로 16세기말~17세기에 간행한 완질본으로, 국내에는 없는 간인본

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동활자본에는 임란이전에 인출한 것이 45종이나 되며, 그 중에는 내사본이 14종이나 될 뿐만 아니라 거질의 완질본으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책들이다.

동활자본을 활자별로 보면, 초주갑인자판 12종 11책, 경진자판 2종 9책, 무신자판 1종 7책, 을해자판 20종 271책, 갑진자판 5종 71책, 병자자판 4종 38책, 경서자판 1종 1책, 한구자판 1종 3책, 전사자판 4종 18책이다. 이 문고의 전적들은 대체로 완질로,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이며, 국내 서지목록에서는 보이지 않는 유일본이 10여종이나 되어 조선조 인쇄문화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들이다.

### 3)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

우리에게 생소하고 한국 문화가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인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에 우리의 다양한 전적들이 소장되어 있는 것도 주목된다. 이 전적들은 원래 블라디보스토크의 원동(遠東) 조선사범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1937년 스탈린 정권에 의해서 조선인 강제 이주와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옮겨 왔던 것이라고 한다.

▶ 요화노인회근첩(梨花老人回舊帖, 2권 2책), 예일대학교 도서관 소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 제공)

요화초당주인 이학무가 훈인 60주년을 기념하여 두권의 화첩으로 만든 기념 시첩. 잔치하는 전경과 산문, 시로 구성되어 있다. 박제신, 이재학, 박규수 등 명사들의 축하시와 글이 첨부되어 있다.

이곳에 소장된 한국 전적은 목판본 125종, 금속활자본 52종, 신활자본 97종 등 모두 330종의 고서들이다. 이 중 16세기에 출간된 『자치통감절요속편(資治通鑑節要續編)』이 가장 오래된 판본에 속한다. 특히 의궤류 3종과 고종말에서 융희년간(1907~1910)에 간행된 교과서류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4) 미국 예일대학 바이네케도서관

미국 코네티컷 주 뉴 헤븐(New Haven, Connecticut)에 위치한 예일대학교는 1701년에 미국에 설립된 사립명문 아이비리그 중 하나이다. 19세기 중반경 부터 동아시아 도서를 수집하기 위해 1907년 동아시아 소장품 전문 사서를 임명하였고 1915년부터 도쿄제국대학교의 역사가로 잘 알려져 있는 쿠로이타 카즈미(Kuroita Katsumi)를 통해 한국서적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 대학 바이네케도서관(Beinecke Rare Book & Manuscript Library)에 소장된 한국 전적은 44종 102책으로, 대부분 18~19세기에 간행된 것이다. 그 중에는 왕실관련자료 8종, 불교경전 5종, 화첩류 4종, 한글소설 등 다양하다.

### 5) 일본 오타니(大谷)대학 도서관

이곳에는 고려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이 587상자에 4,995첩 보관되어 있다. 이 대장경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해인사 고려 대장경판을 찍어낸 것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판본(古版本)이라 할 수 있다. 이 대장경은 조선 초기 일본으로 전래되어 야마구치현(山口縣) 보광왕사(普光王寺)에 보관되어 오다가 1541년 아키 이쓰쿠시마신사(安藝嚴島神社), 1874년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를 거쳐, 1962년에 이 사찰이 설립한 오타니대학의 도서관에 보관된 것이다. 이 대장경에는 1381년에 인출한 이색(李穡)의 발문이 붙어 있어 겸흥방(廉興邦)과 이색의 발원으로 찍어 내어 여흥군(驪興郡) 신록사(神勒寺)에 봉안(奉安)했던 판본임을 알 수 있는 현존 최고의 대장경 판본이다. 경판을 새긴 각수(刻手, 나무 등을 조각하는 사람) 관련 자료가 많아 보고(寶庫)라고 할 만큼 다른 곳의 판본에 비해 각수의 이름이 많이 남아 있어 우리나라 고려대장경 연구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가운데 중방(中房) 영립(英立)과 동방(東房) 수충(守聰) 등 각수들의 소속 조직과 작업장소로 보이는 것이 음각되어 있어 대장경 판각 작업장이 동·서·남·북·중방 등 5방으로 나누어져 작업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 대학 고려대장경에서 주목되는 것은 국내에 없는 『내전수함음소(內典隨函音疎)』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대장경의 계보와 음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 대반야바라밀경, 일본 오타니대학 소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 제공)



▶ 고려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함, 일본 오타니대학소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 제공)

### 6) 중국 윈난대학(雲南大學) 도서관

중국 윈난대학은 1922년 사립 퉁루(東陸)대학으로 설립되어 1938년 국립 윈난대학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중국 서부 변경지역 최초로 설립된 종합대학의 하나이다. 윈난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전적은 『예기집설대전(禮記集設大全)』 등 총 124종 676책이다. 목판본이 전체 수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금속활자, 목활자 순이다. 대부분 18, 19세기에 간사된 것이나, 1600년대 간사된 전적도 4~5종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동국여람(東國要覽)』, 『논어정문(論語正文)』, 『황조유민강공사실(皇朝遺民康公事實)』, 『정헌대부통제사김공행적책(正憲大夫統制使金公行適冊)』, 『어제진팔유곤록(御製進八裕昆錄)』, 『가규류편(家規類編)』, 『문성제군개화대정(門聖帝君開化大程)』, 『읍취헌집(揖翠軒集)』, 『덕은문집(德隱文集)』, 『시집구초분운(詩集句鈔分韻)』, 『평론출상수호전(評論出像水滸傳)』 등 11종은 희귀본으로 확인되었다. 『동국여람(東國要覽)』은 필사본으로 조선후기에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의 제도, 관제, 지방, 삼십팔관, 팔도 등에 대한 기록으로 연구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 Ⅲ. 국외소재 문화재의 국내 환수 현황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고양되고 있다. 이러한 국외소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문화재 환수로 이어져 최근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에서는 국외소재 문화재 중 불법으로 유출된 문화재는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적법으로 유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한국을 홍보하는 콘텐츠로 적극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를 환수하는 대전제는 불법으로 반출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환수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소재현황이 파악되어야 하고, 현황이 파악된 문화재가 불법으로 반출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그 다음의 과제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지금까지 국외소재 문화재 중 환수된 문화재는 광복이후 2010년 12월말 현재까지 총 10개국 8,244점으로 그 중 전적류는 1,325점에 불과하다. 환수된 문화재는 정부간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민간에 의해 기증되거나 구입·대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최근 환수된 기록문화재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록문화재로서 처음 환수된 사례는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 이루어진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반환된 전적류 852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정부간 협상에 의해 환수된 문화재로, 현재 국



▶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국보 151호 (문화재청 사진 제공)

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 반환된 것으로 주목을 받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을 들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13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역사연구라는 미명하에 오대산 사고본 일체인 787책이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부속도서관으로 이관되었으나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대부분이 소실되고 74책이 남게 되었다. 이 중 27책이 1932년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으로 보관 전환되고 나머지 47책은 최근까지 도쿄대학교에 보관·관리되어 왔었다. 2003년 3월 불교계를 중심으로 조선왕조실록 환수운동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전 국민의 호응 속에 환수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6년 5월 소장자인 도쿄대학이 서울대 규장각으로 반환을 결정하게 되었고, 7월 14일 도쿄대와 서울대간에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47책의 인도인수식이 행해졌다. 조선왕조실록은 임금을 중심으로 한 조선왕조의 주요 국정 내용을 거의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한 방대한 사실기록으로, 반드시 재입했던 왕의 사후에야 편찬이 되었다. 이러한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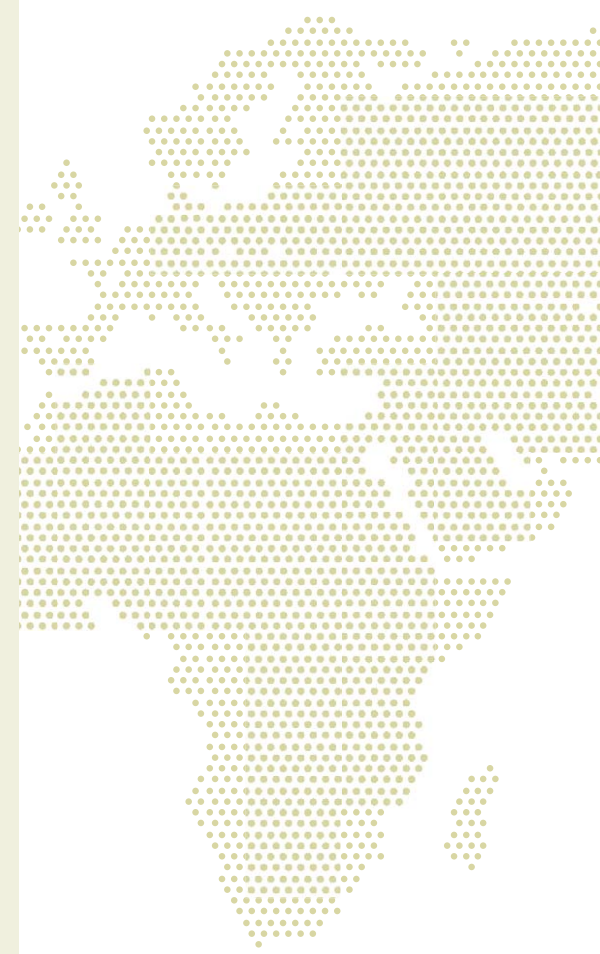
환수된 기록문화유산 중에는 시민운동을 통해 돌아온 것도 있다. 「김시민공신교서(金時敏功臣敎書)」가 그것이다. 김시민은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진주성대첩을 이끈 장군으로, 그의 공신교서는 1604년 선조가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18점의 선무공신교서 가운데 하나이다. 이 교서에는 김시민 장군을 잃어 슬퍼한다는 내용과 함께 김 장군을 선무 2등 공신에 추증하고 유족에게 노비와 토지를 하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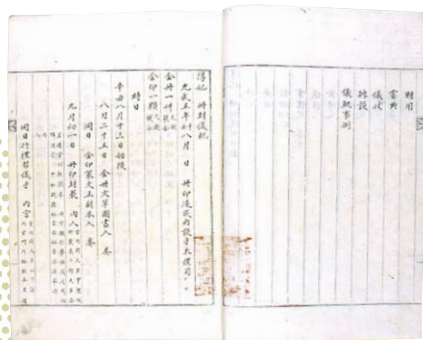


▶ 김시민장군 공신교서, 보물 1476호, 국립진주박물관 소장(문화재청 사진 제공)

2005년 11월에 도쿄의 간다(神田) 고서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경매에 출품돼 한 고서점 주인에게 낙찰됐다. 낙찰가는 1200만엔가량으로 알려졌다. 2006년 5월에 국내의 각 언론사들이 일제히 공신교서의 존재에 대해 보도하면서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그해 6월말 MBC <느낌표>와 시민단체인 문화연대, 진주지역 민간단체가 모금운동을 시작하여 7월 24일에 1억2천만원 모금에 성공하여 공신교서를 구입하여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이 공신교서는 국내로 귀환하여 현재 국립진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경남대학교의 데라우치문고(寺內文庫)도 환수의 좋은 사례이다.





▶ 순비책봉의궤, 일본 궁내청 서릉부 소장(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 제공)

1996년 1월 24일, 우리나라의 각 언론들은 일본 야마구치현립대학(山口縣立大學)에 소장되어 있던 데라우치문고 한국 관계 문화재 중 일부가 경남 마산시 소재 경남대학교로 반환된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하였다. 이들 문화재는 우리가 국권을 침탈당한 시기에 해외로 반출된 것들로, 실로 80년 만에 해외에서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경남대학교가 국회 한일의원연맹과 한일친선협회 등의 도움을 받아 데라우치문고 환수를 위해 전면에서 야마구치대학 측과 교섭을 진행해 나갔으며, 1995년 11월 11일 양측은 비로소 학술 교류 증진을 위해 데라우치 문고 중 일부(98종 135점)를 기증 형식을 통해 경남대학교에 양도한다는 기증 각서의 조인식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듬해인 1월 24일 97종 134점이 80년 만에 비로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나머지 1점은 훼손이 심하여 야마구치대학측에서 전문가를 동원하여 보수한 후 1996년 4월 27일 양교의 학술교류협정 및 「경남대학교 데라우치문고 특별전시실(慶南大學校寺內文庫特別展示室)」개관일에 맞추어 되돌아 왔다. 데라우치문고에는 한국 관계 자료가 모두 1,000여종 1,500여 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 귀환된 유물들은 모두 98종 135점이다.

그리고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도서를 들 수 있다. 파리 국립도서관에는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하여 1886년 병인양요시 불법으로 약탈해간 외규장각도서 297책이 반환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조선왕실의궤 『휘경원원소도감의궤』상권 1책이 1993년 9월 한·불정상회담 후 외규장각 조선왕실도서 반환의 일환으로 영구 대여형식으로 국내로 반환된 것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그 이후 외규장각도서의 반환협상은 상호대여와 등가교환이라는 논리 앞에 더 이상의 진척을 보지 못했다. 2010년 11월 12일 서울에서 한·불 정상회담이 열린 후 반환을 약속받았다. 비록 대여 형식의 조건이 붙어있는 것이긴 하여도 프랑스와는 17년간 끌어오던 외규장각도서의 반환이 확정된 것이다. 반환되는 외규장각도서는 총 297책으로 그 중에는 유일본이 30책, 제작당시의 장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12책이 포함되어 있어 그 역사적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또한, 일본 왕실담당 행정기관인 궁내청(宮内廳) 소속의 서릉부(書陵部)에도 우리 전적이 소장되어 있고, 그 중에는 조선왕실 소장 도서가 포함되어 있다. 2010년 8월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에 의한 전격적인 문화재 반환결정이 이루어져 조선왕실의궤를 포함하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반출된 도서들의 반환이 현재 일본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반환하기로 한 대상은 1909년 7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반출한 77종 1,028책 가운데 1965년 한일협정때 반환한 11종 90책을 제외한 나머지 66종 938책과 증보문헌비고 등 3종 100책, 조선왕실 의궤 81종 167책 등 1,205책이다.

#### IV. 과제와 전망

우리나라 전통과 학술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적문화재조사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더불어 우리 고서전문가에 의한 기초목록 작성이 시급하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전적문화재가 가장 많이 소장된 곳이 일본이고, 다음이 미국, 중국 등 순이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정밀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몇몇 다량 소장처에 국한되어 있다. 수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소장기관 중심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학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학을 세계화하는 데에도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최근 언론을 통해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해외에 있는 문화재는 무조건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유출된 문화재의 환수를 위해서는 해당문화재가 불법으로 반출된 경위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국외소재 문화재 조사사업은 점차 그 성과를 축적해 나가고 있지만, 미술품과 전적을 양분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보다 심도 있고 보다 많은 지역의 조사를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의 확대가 절실하다.

적법절차에 의해 유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 문화재의 가치를 바로 알려 국내·외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내에 없는 희귀본의 경우 영인을 하거나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디지털화 사업’은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 하겠다. 주어진 예산과 인력 투입의 문제가 있겠으나 보다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과제라 할 것이다.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네트워크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국내의 국외문화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즉,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교류재단 등 5개 기관이 “국외한국문화재 지원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조사와 지원사업은 우리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기관인 소장처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성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IN**

#### 필자 소개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에서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조사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미국 예일대학 도서관, 호놀룰루아카데미미술관,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박물관, 중국 원난대학 도서관 등 다수의 박물관 도서관 소장 한국문화재조사에 참여하였다.

# 한국이민사박물관 해외이민자료조사 현황과 과제

❖ 박은미 한국이민사박물관 박물관팀장



▶ 한국이민사박물관 전경

## 한국이민사박물관 소개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지난 2008년 6월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한인 이민역사를 체계적으로 다룬 박물관으로 인천 월미도에 위치해 있다. 1902년 12월 22일, 당시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 긴 가뭄까지 겹쳐 생활이 어려워지자 우리 선조 121명이 제물포항에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을 향해 이민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첫 해외이민이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해외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룩한 개척자적인 삶을 기리고 그 발자취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시민들과 해외동포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건립되었다.



▶ 전시실 관람



▶ 제1상설전시실 "미지의 세계로"



▶ 제2상설전시실 "극복과 정착"



▶ 제3상설전시실 "또 다른 삶과 구국 염원"

## 박물관 전시실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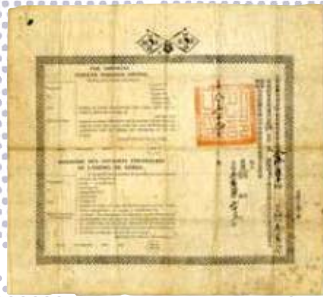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총 연면적 4,127㎡으로 지하1층, 지상 1,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4개의 상설전시실이 지상 1, 2층에 있다. 박물관 2층에 있는 제1상설전시실은 이민초기 인천 개항장의 모습과 하와이로의 첫 공식이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국내·외 배경과 대한제국에서 발행한 초기 집조(여권)가 전시되어 있다. 제2상설전시실에는 하와이 한인노동자들이 목에 걸고 다녔던 방고 등이 전시되어 있고, 하와이사탕수수 농장의 한인 노동자들의 삶을 느껴볼 수 있는 영상물과 숙소를 재현해 놓았다. 또한 하와이 한인학교를 재현해 놓은 교실은 관람객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으로 꾸며 놓았다.

박물관 1층에 위치한 제3상설전시실에는 멕시코 에네켄 농장에서 사용했던 수레 및 작업용 공구 등이 전시되어 있고, 쿠바, 파라과이 등 기타 남미국가로 이주한 우리 한인들의 삶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 마지막 제4상설전시실은 15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동포현황이 전시되어 있다.

현재는 하와이 이민을 위주로 한 북·남미 한인이민사가 전시되어 있는데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전까지 우리나라 전 이민의 역사를 아우르는 아시아관(일본, 중국, 중앙아시아 등)과 유럽관(프랑스, 독일, 영국 등)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관련 지역 해외자료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제4상설전시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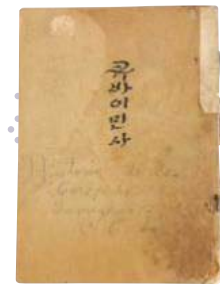
▶ 1904년 전라도 출신 김만수가 하와이로 가기위해 발급받은 집조(여권)



▶ 지영희 집조. 황해도 웅진군 출신의 지영희가 1912년 하와이에 먼저간 남편을 만나러 가기 위해 발급받은 여권이다. 여권에 표기된 미령 포와(米領布哇)는 미국 하와이를 말한다.



▶ 인천 우각동 출신 고영휴가 1903년 하와이로 가기 위해 발급받은 여권



▶ 쿠바이민사(1954) 1921년 쿠바로 이민을 떠난 임천택이 쿠바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한인이민자들의 생활상을 저술한 책이다.



▶ 자신보(自新報) 창간호 1907년 하와이주에서 창설된 교민단체 자강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 박물관 소장유물

박물관 개관을 위한 전시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한 해외이민사 자료조사와 해외동포분들을 대상으로 한 끊임없는 유물기증 홍보를 통해 현재 우리박물관은 총 32,000여점의 소장유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집조(여권)이다. 집조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그 나라에서 신분보장과 여행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일종의 통행 허가증으로 오늘날의 여권과 같은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박물관에는 하와이 한인 노동자들이 사용했던 번호표인 방고, 도시락, 각종 신분증 및 한인학교에서 사용했던 교과서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우리선조들을 처음으로 하와이로 실어 나른 이민선인 깰릭호 모형과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의 한인 노동자 숙소를 재현해 놓았으며 하루 10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자의 하루일과를 담은 영상을 통해 관람객들은 이민자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

### 해외이민사 자료수집 현황

우리박물관은 박물관 전시주제가 해외한인 이민역사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관련 자료 수집은 필연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다. 즉 이민관련 자료수집은 각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박물관의 설립 목적, 자료수집방향, 수집자료 대상을 꾸준히 홍보함으로써 수집이 가능한데 이 또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유물수집계획을 수립한 후에야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박물관은 우선 우리이민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나 한인거주자 수가 많은 국가를 선택해서 해외이민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물수집계획을 수립한다.



▶ 파독 광부들(1960년대)



▶ 파독 간호사(1970년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총 8개 국가에 대하여 해외자료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우리 박물관의 인력 여건상 학예연구사가 직접 현지조사를 할 수 없어서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연구자를 공모하여 위탁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박물관은 도서관이나 기록물 관리기관과는 다르게 관람객들은 실유



▶ 광부복 일괄(1970년대)

물을 매개로 과거와 대화를 나눈다. 따라서 우리박물관에서 조사자들에게 요구하는 조사내용은 각 개별국가들의 이민역사위주의 문헌조사보다는 한인회 등 해외한인기관 및 개인들의 이민사자료 소장 현황 파악 후 기증유도, 구입, 대여, 복제 등 그

자료의 확보방법 제시 등이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이민사박물관의 홍보 및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향후 박물관과 해외 한인들과의 긴밀한 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기반까지 형성 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우리박물관의 해외자료조사 목적, 추진방향에 의해 실시된 조사 중 성공적인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2008년에 실시한 독일해외자료조사의 경우 현지조사자에 의해 재독 한인사회의 생성과정과 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 조사되었으며 특히 독일 한인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파독 광부, 간호사에 중점을 두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1963년 한국과 독일과의 협정에 의해 한국인 광부를 독일에 파견하게 되었으며 1971년에는 공식적인 한국인 간호사가 파견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파견된 파독 광부·간호사의 규모는 광부의 경우 1963년부터 1977년까지 8,000여명, 간호사의 경우 1960년부터 1976년까지 총 11,000여명이었다. 이들 중 반수는 계약이 종료된 후 돌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독일에 장기체류를 하게 되면서 이후 독일 한인사회 제1 주류가 된다.

독일 조사를 통해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50여명의 광부, 간호사들의 독일이주 및 정착 과정들의 생생한 개인 역사 기록 및 개인소장자료 목록 등이 작성되었다.



▶ 서독취업지를 위한 송금예금설명서(1971)



▶ 광부증 표지(좌)와 내지 (1967)





▶ 간호사복과 모자(1970년대)

또한 재독한인회, 재독한인간호협회, 재독한인교회협회 등의 중요 기관의 현황도 파악 되었다. 독일 자료조사가 완료된 후 우리 박물관은 독일이민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출장을 실시하였다. 독일 베를린, 뒤스부르크,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등 현지에 거주하는 독일교포들을 만나 유물기증협의, 유물구입심의 등을 통해 관련 자료 약 150여점을 수집하였는데 수집된 유물 중에는 광부복 및 장비 일괄, 광부증, 간호사복, 간호사 모자 등 그들의 삶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공식적인 독일 해외자료조사는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독일교포분들께서 우리박물관에 소중한 간직해 오신 개인 생활사 자료들을 꾸준히 기증해 주고 있고 이러한 기증자들은 한국을 방문할 경우 꼭 우리박물관을 방문하여 한국에 이민사박물관이 있다는 사실과 고국에서 자신들을 잊지 않고 자신들의 이민역사를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감격해 하며 돌아간다. 향후 유럽관 건립시 독일 이민관련 문헌자료 및 생활사의 추가 수집을 추진할 경우에도 이분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우리박물관에서는 독일 조사자를 비롯하여 한인회, 유물 기증자들과 계속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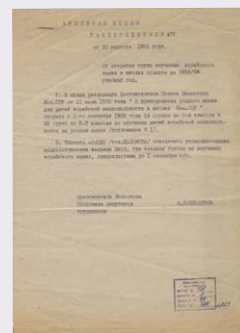
두 번째로 소개할 해외자료조사는 카자흐스탄 지역의 고려인 관련 조사이다. 구한말 한인들은 극심한 가난과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를 피해서 러시아 극동에 피난처를 찾게 되었다. 1860년대에 한인들은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 지역에 정착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농사활동, 생활관습, 언어, 문화를 보존하면서 한인공동체를 구성하였다. 그 후 스탈린 정권의 정치적인 이유로 당시 연해지방의 한인들은 유대인·체첸인 등 소수민족들과 함께 가혹한

분리·차별정책에 휘말려 1937년 9월 9일부터 10월 말까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에 1937년 9월 말 최초의 한인 이주민을 태운 수송열차가 카자흐스탄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해서 카자흐스탄 한인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 카자흐스탄인들은 열린 마음으로 한인들을 맞아 주었고, 당국의 한인 환대에 대한 공식적 금지와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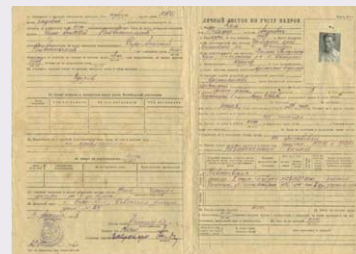
우리박물관에서는 카자흐스탄 지역 조사자를 통해 고려인 이주 및 정착과정, 초기 고려인 사진 및 생활사 자료 소장기관 및 개인소장자 파악 및 향후 박물관에서 자료 수집 시 기증유도, 구입, 대여, 복제 등 그 자료의 확보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약 15여명의 중요 유물소장자와 10개의 한인관련 단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의 사진들은 카자흐스탄 자료조사를 통해 수증 받거나 구입한 대표유물사진들이다.



▶ 카자흐스탄의 초기 고려인들



▶ 카자흐스탄 SSR학교의 한국어반 개설 명령서 (1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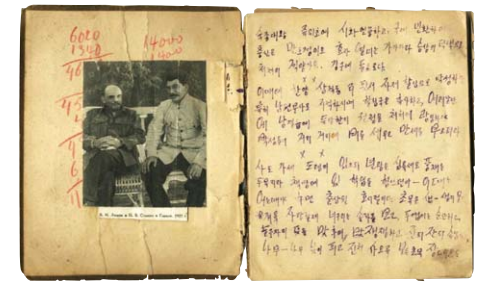


▶ 김 니키포르의 개인 인적사항카드 (1946)

현재 150여 개국에 700만 명이 넘는 재외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낮은 환경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여 한인이민의 역사를 이루어 냈다. 1903년 하와이로의 공식이민으로부터는 약 110여년, 구한말 1860년대 만주, 연해주로의 유민으로부터 시작하면 우리 한인이민의 역사는 약 150여 년이나 된다. 이는 한국근대역사에 있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결코 도외시킬 수 없는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국내에 한국이민사박물관이 건립되어 비로소 150여년의 우리 이민역사를 체계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우리박물관은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의 이민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실생활 자료 수집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자료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국·공립도서관, 국립문서보관소 등이 아닌 개인 소장자들이 의외로 이민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들이 매우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자료들이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더 많이 공유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하와이 공식이민 1, 2세대 중 대부분이 이미 유명을 달리 하였고 그분들이 소중하게 간직해 왔던 사진을 포함한 많은 귀중한 자료들이 자식세대, 손자세대를 거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박물관은 오늘이 바로 내일이면 역사가 된다는 점과 우리세대는 다음세대들에게 전달해 줄 유물을 잠시 보관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각오로 향후 아시아, 유럽이민 전시관 확충 이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현대이민 관련 자료도 수집할 계획이다. IN



▶ 고려극단에서 공연한 춘향전 자필원고(1958)



▶ 고려극단 포스터(1988)

필자 소개

인하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영국 UCL에서 박물관학을 전공(석사)하였다. 현재 한국이민사 박물관 박물관팀장을 맡고 있다.



❖ 왕성상 아시아경제신문 취재본부장

## 군가는 軍생활 애환 달래고 용기·사명감 주는 멜로디언어

순수군가, 진중가요, 군민합창곡...군 사기, 국민들 국방사상 높여  
1946년 국방경비대 창설 후 지금까지 270곡 만들어지고 불러

우리들 삶과 만남엔 노래가 있다. 일을 하면서도 방아노래, 베틀노래, 물레노래, 뱃노래 등 노동요(작업요)를 불렀다. 일상생활 속엔 판소리, 민요, 동요, 가곡, 가요도 있다. 나라엔 국가, 학교엔 교가, 회사엔 사가가 있다. 교회와 성당에선 찬송가, 절에선 찬불가를 부른다. 특히 군엔 군가(軍歌)가 있다. 군가는 병영생활의 애환을 달래주고 즐거움과 단합을 꾀하게 하는 멜로디언어이다. 지난해 3월 26일 밤 해군 '천안함 침몰사건'에 이어 그해 11월 23일 오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한반도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올 들어선 1월 21일 새벽 해군 청해부대가 '아덴만 여명작전'을 펼쳐 소말리아해적들에게 납치된 삼호 주얼리호 선원들을 구출, 군에 눈길이 쏠렸다. 강군을 만들어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전투장비 보강, 대적(對敵) 정신교육 및 정훈활동, 훈련강도를 높이고 있다. 군가도 그런 흐름 속에서 '총성 없는 무기'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사기, 충성심, 애국심을 다지기 위한 군가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선 군 사기를 높이기 위한 노래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기록을 통한 군가의 어제와 오늘을 들여다본다.



▶ 공군 군악대

지난해 4월 29일 평택 2함대 안보공원에서 있는 천안함 46용사 영결식장. 눈물 속에 군가가 울려 퍼졌다. 고인들이 즐겨 불렀던 '바다로 가자'와 부대 가인 '천안함가' 2곡이다. 엄숙하고 슬퍼해야 할 장례식에 씩씩하고 경쾌한 군가가 등장한 건 이례적이다. 두 곡의 군가를 불러주는 전우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으며 46용사는 어머니 품과도 같은 모항(母港)을 떠나 영원한 잠자리에 들었다. 이에 앞서 천안함 실종 장병들을 구하다 숨진 해군특수전여단 한주호 준위 장례식 때도 군가가 불렸다. 고인은 지난해 4월 3일 오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생전에 불렀던 '사나이 UDT가'와 함께 모두의 가슴에서 영웅으로 되살아났다.

이처럼 군가는 '대포에 결코 지지 않는 또 다른 무기'요 '소리 없는 총'이다. 특히 전쟁 때가 그렇다. 장병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 승리한 기록들이 많다. 6.25전쟁 때 중공군들이 팽과리를 치고 피리를 불며 밀고 왔을 때 국군은 공포를 느끼고 전투의욕을 잃어 악전고투했던 적이 있다. 인해전술로 쳐들어온 중공군들이 군가를 적절히 이용한 것이다. 국군도 군가를 부르며 목숨을 걸고 맞섰다. 요즘도 입영 때 군악대가 환영 연주를 하고 훈련 때 군가를 힘차게 부르게 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훈련소, 병영생활에선 말할 것 없다.

외국의 경우 곡은 틀리지만 큰소리로 군가를 불렀던 나폴레옹은 군가를 적재적소에 이용했다. 군악대가 다친 장병들을 위로했고 제대 병사들에겐 군가로 영광스러운 그 옛날을 떠올리게 하면서 격려했다. '불가능은 없다'며 싸움의욕과 애국심을 북돋운 것이다. 군가는 대체로 씩씩한 행진곡풍이다. 2/4, 4/4박자가 많다. 노랫말도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게 많다. 전황, 전적, 무공을 주제로 삼은 것도 있다. 용감한 내용의 노랫말에 힘찬 곡을 붙인 게 주류를 이룬다.

육군은 병영생활지침에 따라 멋진 사나이, 열공의 햇불, 아리랑 겨레, 용사의 다짐, 전선을 간다, 전우, 진군가, 진짜 사나이, 최후의 5분, 팔도 사나이 등을 부르게 돼있다.

공군은 공군가, 보라매의 꿈, 성난 독수리, 빨간 마후라, 푸른 소나무 등을 많이 부른다. 해군과 해병대는 해군의 다짐, 수병의 노래, 우리는 해병대, 영원한 해병대 등을 애창한다.

### 군가의 종류와 특징

군가는 '영원한 전우'로 통한다. 현역, 예비역을 가리지 않는다. 부대행사, 작전, 신병훈련, 예비군 동원훈련, 향방훈련 때 불린다. 부대가, 출정가, 승전가들이 합창된다. 경기대회, 단합대회, 수련회, 입학식, 졸업식, 회식 때도 군가가 등장한다. 일반가요와 달리 독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60여년의 창군역사와 궤를 같이 해온 군가는 ▲군인들이 진중에서 부르는 순수군가 ▲일반인과 군인들에 의해 가창되는 진중가요 ▲국민과 군인들의 화합·단결·국방사상을 높이기 위한 군민(軍民)합창곡으로 나뉜다.

국방부 군가총록집(2008년 12월 5일, 국방교육정책관실 제작)에 실린 군가는 모두 270곡이다. 순수군가는 국방부와 각 군에서 군가를 만들어야 할 때 공모나 작사가·작곡가 위촉을 통해 선별된 노래다. 군 사기와 정서순화를 위해 활용된다. '휘날리는 태극기', '행군의 아침', '전우', '대한의 사나이', '바다로 가자', '은빛 나래', '앵카 송', '창공에 산다' '공군찬가', '하늘의 사나이', '대한의 공군', '하늘에 산다', '진짜 사나이' 등을 꼽을 수 있다.

진중가요는 군에서 애창되는 노래다. 군가는 아니지만 군인정서 함양과 병영생활에 활력을 준다. 대부분 건전한 내용으로 시대의 애환과 민족정서를 대변한다. '전우야 잘 자라', '전선야곡',

'삼팔선의 봄', '빨간 마후라', '육군 김 일병', '여군 미스 리', '월남에서 돌아온 김 상사' 등이 해당된다. 6·25전쟁 땀 설움과 한을 달래주며 전장의 청량제와 살풀이 같은 역할을 했다.

국민합창곡은 맑고 밝은 노랫말에 경쾌한 멜로디로 만들어진 노래다. 일반인들도 널리 부르는 건전곡이다. '조국찬가', '아 대한민국' 등이 속한다.

정식분류엔 들지 않으나 사제군가(줄여서 '사가' 또는 '싸가')도 있다. '바람결에 들려오는 정다운 목소리 깃가에 와서 닿는다 빠밤 빠바바바밤~'으로 나가는 '고향의 향수'가 있다. 송창식이 부른 '병사의 향수'(1978년)가 원곡이다. 가사를 일부 바꿔 군가조로 불린다. 육군에선 이를 정식군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병사들에겐 인기다. 이런 비공식군가를 사제군가라 부른다. 부대별로 약간 달리 부르기도 한다. 앞머리 몇 소절의 가사는 공군교육사령부, 육군 17사단 등지에서 부르는 버전이다. '빠따도 아구창도 악으로 씹어 삼키고 시궁창과 화장터를 누비고 다녀도~'로 나가는 '빠따가'도 사제군가다. '홀러가는 물결 그늘아래 편지를 쓰고요~'로 나가는 해병대 곤조가도 있다. 백령도에서 근무한 해병대 출신들은 술자리에서 가끔 '백령엘레지'란 사제군가를 부르며 군 시절 추억 속으로 빠져들기도 한다. 군과 부대에 따라 물새가, 구보가, 진달래꽃, 전장에 핀 꽃, 독사가 등의 제목을 가진 사제가들도 있다.

### 우리나라 군가의 태동과 연대별 발자취

#### ● 일제강점기(1910~1945년) 군가

우리나라의 근대적 군가는 1945년 광복 전부터 비롯됐다. 만주벌판과 전국에서 독립군가를 부르며 항일운동을 한 것이다. '압록강 행진곡', '항일 전선가' 등 수십 곡이 전해져온다.

1985~1910년 의병항쟁 땀 의병들이 농민이어서 노래 또한 민요의 가사만 바꿔 부르는 게 많았다. '의병 황우가'가 '새야 새야 파랑새야' 곡을 딴 게 그 사례다. 1911~1937년엔 기독교 영향을 받아 찬송가 곡에 가사를 붙인 노래가 줄을 이었다. 심지어는 일본군가를 손질해 부른 것도 있었다. '조국을 잃어버린 유랑족으로', '독립지사의 노래'가 그런 군가다.

1910년대에 용진가, 독립군가, 봉기가, 소년군가, 혈성대가 등이 있었다. 1920년대엔 임시정부 수립을 계기로 독립을 이뤄내기 위한 독립군의 사기진작과 감투정신을 높이는 군가들이 주로 불렸다.

독립운동가, 독립군행진곡, 작대가, 전진가, 항일전선가, 기전사가, 혈전의 때 등이 그런 노래다. 이때가 독립군가의 전성시대였다. 1930년대에 일제의 만주침략으로 우리 독립군에 큰 타격을 줬다. 따라서 독립군들도 힘겨운 항쟁으로 고난의 시절을 보냈다.

'고난의 노래'는 그 무렵의 처절한 상황을 잘 나타낸 대표적 군가다. 역경 속에서도 중국과 공동전선을 편 임시정부는 1940년 중경에서 광복군을 창설했다. 1941년 말 일제가 세계를 상대로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광복군진영에선 일제의 패망을 확신, 연합군과의 합동작전으로 군가를 힘차게 부르며 필승을 다짐했다.

군가주제는 주로 광복의 희망을 다뤘다. 대부분 광복군 각 지대에서 작사·작곡한 것으로 중국군이 우리의 군가를 듣고 자기들의 가사를 붙여 부를 만큼 애창됐다. 전 장병이 매일 아침 모여 태극기를 올리며 멀리 조국을 향해 우렁차게 부르던 '국기가'와 '광복군 항일전투가', '광복군 제1, 제2, 제3지대가', '광복군 행진곡', '광복군 돌진가', '압록강 행진곡', '조국 행진곡', '앞으로 행진곡', '광복군 아리랑', '세기 행진곡' 등이 있었다. 이어 1938~1945년엔 독립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면서 군가도 틀을 갖췄다. 광복군, 애국지사들이 작사·작곡했다. 장호강 광복군 제3지대 장교가 '지하공략대가', '제3지대가'를 작곡한 것도 그 때다. 미주지역에선 도산 안창호의 '홍사단가'가 애창됐다. 미국의 '딕시랜드'란 곡에 가사를 붙인 '모란봉가'도 있다.

이와 관련해 1890년대 구한말 을미의병 군가집이 발견돼 화제다. 의병들이 갖고 다니며 외워 부를 수 있게 수진본(袖珍本·포켓용)으로 만들어진 게 특징이다. 박정규 전 청주대 교수는 2009년 6월 9일 제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여 년 전부터 보관해온 의병가사집(가로 9cm×세로 14cm)을 공개했다.

가사집엔 1900여 글자로 된 4·4조 장편가사형식의 군가 '제천의진격가(堤川義陳檄歌)'가 53쪽에 걸쳐 실렸다. 박 교수는 의병장 유인석 등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미뤄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1895년) 직후 만들어진 군가로 보고 있다. 국난현실을 알리면서 나라를 바로잡자고 권하는 내용이다. 이 필사본의 제작연대는 1915년으로 돼있으나 작가가 누군지는 알 수 없다.

#### ● 창군기 및 6·25전쟁 시 군가

해방 뒤엔 1946년 1월 국방경비대가 창설되면서 군은 제법 모양새를 갖추긴 했으나 군가는 그렇지 않았다. 그 이전 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이었다. 외국행진곡들이 연주됐고 애국가도 많이 불렸다.



▶ 고 손원일 제독 제5대 국방부장관 재임시절

정부가 세워지자 국방부가 창설되고 경비대는 육군으로 개편돼 많은 부대가 줄을 이었다. 그 무렵 부대는 군가를 만들어 불렀다. 독립군군가에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용진가, 충성가를 꼽을 수 있다.

그 때 만들어진 최초의 군가는 1946년 해군 군가 '바다로 가자'다. 작사가는 '해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손원일 초대 해군참모총장(1909~1980년). 작곡은 그의 부인 홍은혜 여사(1917년 8남매 중 5번째로 마산 출생)가 했다.

(1절) 우리들은 이 바다 위에 이 몸과 맘을 바쳤나니  
바다의 용사들이 뚫달고 나가자 오대양 저 끝까지  
(2절) 나가자 푸른 바다로 우리의 사명은 여길세  
지키자 이 바다 생명을 다하여

이 노래는 손 제독 부부의 애국심과 해군사랑에서 태어났다. 흥 여사가 어느 날 새벽 군인들이 행진하면서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었다. 일본군가에 우리말 가사를 붙여 부르고 있었다. 일본군가에 조선해안경비대가로 가사만 바꾼 노래였다. 이를 계기로 손 제독 부부는 우리 해군가를 만들기 시작해 3절까지로 된 '바다로 가자'를 탄생시켰다. 부부는 '해상 행진곡'도 만들었다.

1949년엔 지금의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자리에 육군군악학교가 세워져 교장이었던 김판기 대령 지시로 5곡의 군가가 만들어졌다. 김희조씨의 '대한의 방패', 황임춘씨의 '진군가'를 제외한 다른 3곡은 소실됐다. 공군에선 중국 장군출신의 최용덕씨가 공군 초창기멤버로 '공군가' '비행 행진곡' 등을 만들었다.

이후 1950년대엔 6.25전쟁과 관련된 군가들이 줄을 이었다. 정훈공작의 하나이기도 했다. 주둔지를 옮길 때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군가보급은 정훈국의 주 임무였다. '개선행진곡', '보병의 노래', '꽃 중의 꽃', '행군의 아침' 등이 그 때 나왔다. 군인들은 전장에서 '전우가', '전선의 밤', '전우야 잘 자라' 등을 부르며 싸웠다.



▶ 창경원(現 창경궁)에서 공연된 육군 군악 연주 광경(1970)

이들 노래 중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로 나가는 '전우야 잘 자라'는 전쟁으로 숨진 전우를 떠올리는 슬픈 노래다. 현인이 불러 히트한 이 곡은 국방부 연예중대에서 근무하던 유호씨가 작사하고 같은 중대의 박시춘씨가 작곡했다.

4분의 4박자 행진곡 풍으로 전쟁의 아픔을 달래주기위해 만들어졌다. 1951년 국군과 유엔군이 9·28서울수복 뒤 38선을 넘어 북진할 때 나온 대표적 진중가요다. 이 노래는 4절까지로 돼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전쟁 때 '전선야곡'과 더불어 장병들 사기를 북돋아준 이 곡은 일명 '북진의 노래'로 인기였다. 노래는 완성되자마자 삼시간 전국으로 퍼져나가 군인, 학생, 일반 남녀노소들의 애창곡이 됐다. 노래의 히트이면엔 에피소드가 많다. 먼저 가사 중 잘못 전해진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1절의 3번째 소절의 '적군' (敵軍)이 그 대목이다. 이 단어는 원래 '적구' (赤狗)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군'으로 바뀌었다. 초기 '적구'와 '적군' 발음이 비슷하고 일반적으로 '적군'이란 용어에 익숙해 당연히 '적군'일거라고 생각해 부른 게 굳어져버렸다.

이 노래는 중대 이하 단위부대별로 장교가 선창, 병사들이 따라 불렀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따라 부르다 '적군'으로 바뀐 것이다. 이 노래는 또 한때 금지곡이기도 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란 가사가 전쟁 중이던 군인들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노래는 1963년 만들어진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의 주제가로도 유명하다. 원곡은 현인 선생이 불렀지만 영화주제가는 남성노래그룹 '별 넷'이 합창했다.

추억의 히트곡 '군세어라 금순야'는 실향민의 향수, 북에 두고 온 누이동생을 걱정하는 노래다. 전쟁과 추위, 외로움과 그리움이 떠오른다. 군가는 아니지만 6·25전쟁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가슴 찡한 전 시가요다.

노래의 탄생은 5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어느 날 작사가 강사랑, 작곡가 박시춘, 가수 현인이 대구 교동시장의 한 냉면집에서 식사를 했다. 이들은 북풍한설의 1·4후퇴 얘기, 피난민 얘기를 나누며 악상을 떠올렸다. 북한서 피난 온 사람들이 많았던 터라 그들을



▶ 청량리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백마부대 환송식 때 연주하고 있는 군악대(1965)

소재로 한 노래를 만들어보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정든 고향과 집 떠난 서러움, 부모형제들과의 아픈 이별을 잘 아는 그들이었다. 바로 작업에 들어가 하루 만에 노랫말, 악보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취입할 곳이 마땅찮아 오리엔트레코드사 2층 오리엔트다방에서 녹음해 탄생된 노래가 '군세어라 금순야'다.

● 경제부흥기(1960~1970년대) 군가

1960년대 들어선 베트남참전을 주제로 한 군가들이 쏟아졌다. '십자성 부대가' (1965년), '맹호들은 간다' (1966년) 등이다. 공군을 소재로 한 군가 '빨간 마후라'는 1964년 개봉된 같은 제목의 영화주제가이다. 한운사 작사, 황문평 작곡, 자니브라더스 노래로 경쾌하다. 영화는 1956년 공군의 초창기 모습을 다양한 연출과 스토리로 담아낸 역사기록에 가깝다. '공군→빨간 마후라→헌신과 희생'의 공군이미지를 만드는 데 한 몫 했다.

사나이 목숨을 하늘에 건다는 남자의 씩씩함을 담은 영화 삽입곡으로 은막을 장식했다. 하늘에 보람을 걸고 사는 공군조종사들의 사랑, 전우애, 조국애가 진하게 느껴진다. F-86제트기의 공중전, 미니어처를 활용한 다리 폭파 장면들은 신 감독의 천재적 재능이 보여준 결실이다. 적진에 비상낙하한 최무룡을 수송기로 구하는 장면은 압권이다.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후라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구름 따라 흐른다 나도 흐른다  
아가씨야 내 마음 믿지 말아라  
번개처럼 지나갈 청춘이란다

'빨간 마후라'는 4분의 4박자 마치풍(F장조)이라 부드럽고 멜로디도 따라 부르기 쉬워 많은 이들이 애창하고 있다. 노래발표 때 동남아에서도 '홍두건(紅頭巾)'이란 제목으로 히트한 적 있다. 이 노래는 1960~70년대 경기응원가와 군가로 쓰일 만큼 상종가를 쳤다. 지금의 '오~필승 코리아' 같은 응원곡이 없었던 때라 서울운동장에서 '빨간 마후라'가 울려 퍼졌다.

올림픽, 월드컵 지역예선처럼 큰 경기에서 공군이 나오는 영화주제가가 응원곡으로 불린 점은 딱 이색적이었다. 그 전엔 공군에서 먼저 군가로 선정, 교육훈련이나 행사 때 불렀다.

정민섭 작사·작곡, 봉봉사중창단 노래의 '육군 김일병'은 1969년에 만들어졌다. '신병 훈련 육 개월에 작대기 두 개~'로 나가는 이 노래는 그 해 같은 제목의 영화(감독 신상옥)가 만들어지면서 주제가로 태어났다. 영화음악을 맡았던 황문평 선생이 '육군 김일병'을 주제가로 쓴 것이다. 이 가요는 특히 늘 전투적 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인의 모습만 그리는 구호적 군가와 달리 신나고 즐겁게 군대 일상을 꾸러가는 젊은 군인의 씩씩함을 노래했다. 1963년 7월에 결성된 봉봉사중창단은 '부라보 해병대' 등 히트곡들을 불렀다.

1970년대엔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주제로 삼은 군가들이 만들어지고 불렀다. 최근 병무청이 발굴한 '병무행정창가'도 그 무렵 만들어졌다. 손으로 쓴 악보와 가사가 역사적 기록성을 갖고 있어 국가기록원에서 보존·관리되고 있다.

1970년엔 한운사 작사, 이봉조 작곡의 '부라보 해군' 이 만들어졌다. 이어 1970년 중반에 '전우가 남긴 한 마디'가 선보였다. 제목과 노랫말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이 노래는 뒷얘기가 많다.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야  
정말 그림구나 그리워  
총알이 빗발치던 전쟁터  
정말 용감했던 전우다...

전오승 작사·작곡, 허성희 노래의 이 곡이 첫 선을 보인 건 1976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 씨는 1975년 월남이 패전하면서 그 여파가 우리 쪽에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예비군 중장,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의 정보도 얻었다. 그는 그런 흐름을 타고 군인들의 애국심을 담은 가요를 만들어야겠다고 신인 여가수 허성희에게 곡을 쥐 연습시킨 뒤 잘 아는 음반제작자 박모씨를 찾아갔다.

전씨는 허성희가 부른 노래연습테이프를 들려줬다. 반응은 'OK'였다. 바로 음반제작에 들어갔다. 노랫말이 군 시절 추억을 되새길 수 있게 하고 멜로디가 군인들이 좋아하는 탱고풍이라 성공을 점친 것이다. 노래 히트 꿈에 부풀은 박씨는 음반이 나오자 방송사를 돌며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아니었다. 방송을 타지 못하자 히트는커녕 레코드 재고만 쌓여갔다.

그러나 박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군가는 많으나 군 계통의 가요가 없다는 걸 알고 꾸준히 노래를 알렸다. 결과 노래가 군에서 인기를 얻자 청와대에까지 보고됐다. 박 대통령은 노래를 들어본 뒤 문공부 장관을 불러 방송에 나가도록 했다.

때마침 6월이 돌아와 방송사 사장들은 TV쇼 담당부장에게 '전우가 남긴 한 마디'를 내보내고 가수를 출연시키도록 했다. 허성희는 남대문시장에서 산 예비군복에 명찰을 붙이고 군화 신은 모습으로 방송에 나섰다. 인기는 대단했다.

다음날 음반회사 앞엔 현금을 갖고 몰려든 트럭들이 줄을 섰다. 제작자 박씨는 공급이 달려 도망을 다니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노래를 작사·작곡한 전오승씨는 군사독재가 싫어 미국으로 이민 갔다.



▶ 해군 군악대 시가행진 모습과 KBS의 취재차량(1961)

● 민주화 시대(1980~1990년) 군가

1980년대는 광주민주화운동, 5공화국 출범, 6·29선언 등 민주화흐름을 탄 군가(10여곡)들이 나왔다. 국방부 정훈국이 1980년 10월 25일~1981년 6월 3일 공모해 '조국이 있다'(윤수천 작사, 전석환 작곡), '전선을 간다'(우용상 작사, 최창권 작곡) 등 군가와 진중가요 '멋진 사나이'(이진호 작사, 장익환 작곡)가 만들어졌다.

이어 ▲1983년 영광의 조국, 선진조국, 힘찬 선진, 우리는 육군, 사랑하는 전우야, 전선의 초병 ▲1986년 환영의 노래, 환송의 노래 ▲1989년 용사의 노래, 승리의 화신이 제작·보급됐다.

1980년엔 86아시아게임, 88올림픽을 치르면서 군가제정위원회가 구성돼 황문평 선생을 비롯한 음악인과 유경환씨 등 문인들이 참가해 구전돼오던 군가들이 제대로 만들어졌다.

1990년대에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군가들 흐름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쪽으로 작곡됐다. 전국 곳곳에 노래방이 생기면서 군부대에도 영상반주기가 연대단위까지 보급돼 군가와 건전가요들이 많이 불렸다. 1990년대 군가의 가장 큰 특징은 영상군가의 보급이다. 육군은 10대 군가(최후의 5분, 용사의 다짐, 팔도 사나이, 아리랑 겨레, 전선을 간다, 진군가, 전우, 진짜 사나이, 멸공의 횃불, 행군의 아침) 및 진중가요를 선정해 1991년 영상군가 1·2집을, 1993년에 3집을, 1996년엔 5집을 만들어 보급해 군가교육에 획기적 발전을 가져왔다.




▶ 육군37사단 제식·군가 가창 경연대회 (2011년 2월 11일)



▶ 고된 훈련이 끝난 후 부르는 군가 한 소절은 전우 간의 정을 돈독히 한다. 훈련병들이 교육후 함께 군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 국방일보 DB)

● 2000년대 군가

1990년대와 달리 군가제작이 활발했다. 2000년 살신성인의 군인정신을 담은 '위험하니 내가 간다'가 선보였다. 2002년엔 국방부가 5가지 가치관(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을 바탕으로 한 군가 21곡을 실은 군가수첩을 만들어 전 장병들에게 보급했다. 1950~2000년에 만들어진 군가로 신곡들이 많이 불리도록 유도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2008년 12월엔 DVD음반을 부록으로 한 '대한민국 국군 군가총록집'이 만들어졌다.

2009년 5월에 리메이크한 '향토예비군가'가 나왔다. 1968년 4월 만들어진 '향토예비군가'를 가수 토니 안이 신세대 예비군에 맞게 랩을 넣어 빠른 템포로 다시 부른 것이다. 

필자 소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대학원(언론학 석사)을 나와 1979년부터 언론계 생활을 하고 있다. '남인수 가요제'에서 우수상을 받아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86회)에 등록, 글을 쓰며 가끔 무대에 선다. '이별 없는 마산항' 등 여러 곡을 취입했다.

Issue & Spot

# 전라감영 복원사업과 국가기록원 소장문서

❖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 · 어진박물관 관장

조선시대의 전주는 전라도의 수부(首府)로, 지금의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까지 포함하는 전라도 일도를 총괄하는 전라감영이 설치되었던 곳이다.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지역의 이러한 역사성을 회복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라감영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화당은 감사의 집무처로 감영 복원의 중심이 되는 건물이다. 그간 선화당의 정확한 위치 규명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가기록원에서 선화당이 표기된 전라북도 구도청 도면을 찾게 되어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 ❖ 전라감영의 역사와 규모

전주부성의 남문인 풍남문 편액을 보면, 성밖 쪽으로는 풍남문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고, 성안쪽으로는 호남제일성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풍남문은 건국자의 분향을 뜻하는 풍패에서 풍자를 따온 것으로 전주가 조선왕조의 발상지라는 데서 연유한 것이며, 호남제일성은 전주가 전라감영이 설치된 전라도의 수부(首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편액이다.

조선은 각 도에 지금의 도청과 같은 성격의 감영을 두고, 여기에 종2품의 관찰사(감사)를 임용하여 일도의 통치행정을 총괄하게 하였다. 전라감영은 조선시대의 전라도, 즉 지금의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제주도를 총괄하는 관아로 감영제가 설치되던 때부터 헐릴 때까지 조선왕조 내내 전주에 위치했다.

전라감영은 구 전라북도청 자리에 있었다. 전주부성의 정문인 풍남문에서 북으로 뻗은 주작대로 서편에 전라감영이 있었고, 동편에 전주동헌이 자리하였다. 전라감영의 전체 면적은 1만 2천평 정도 되었다. 여기에 전라감사의 집무처 선화당을 비롯하여 감사 가족들이 거주하는 내아, 아전들의 근무처인 작청 등 수많은 관아건물들이 배치되었다. 행정, 군사, 사법 등 일도를 통치하기 위한 제반 관아건물들이 감영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라감영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통치행정적 관서 외에 문화와 관련된 관아건물들의 설치이다. 전주부채는 단오날 왕에게 올리는 진상품이었

는데, 이 부채를 만들고 관장하는 선자청이 전라감영 안에 매우 크게 자리하였다. 이런 대규모의 선자청은 타 감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건물이다. 또한 종이를 만드는 지소 건물이 있었으며, 책을 출판하는 인출방이 감영 안에 있었다. 감사의 심부름을 담당하는 통인청은 또 판소리 경연대회라 할 수 있는 대시습놀이와 관련된 곳이기도 하다.

현재, 감영 건물로 남아 있는 것은 없다.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이 광복이후까지 남아 있었으나 1951년 탄약고가 폭발하여 전소되었다. 그렇지만 조선말의 전주모습을 담은 대형의 병풍모양 고지도 2점이 남아 있어서 전라감영의 구조를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다. 이 병풍지도에 전주부성의 다른 건물들과 함께 전라감영의 각 건물들이 하나하나 모두 그려져 있다.

## ❖ 전라감영 복원 사업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제기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이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전라감영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이런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전라감영터에 있던 전라북도청이 신도심으로 이전하게 되면서이다. 2005년 도청이 이전되었는데, 이 때를 전후하여 전라감영복원 논의가 심도있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 원광대에서 전라감영 복원 기본계획 연구사업을 진행하였고, 2008년에는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복원사업의 방향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감영복원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진척을 보지 못한

것은 복원규모에 대한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감영 전체를 복원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건물만 부분 복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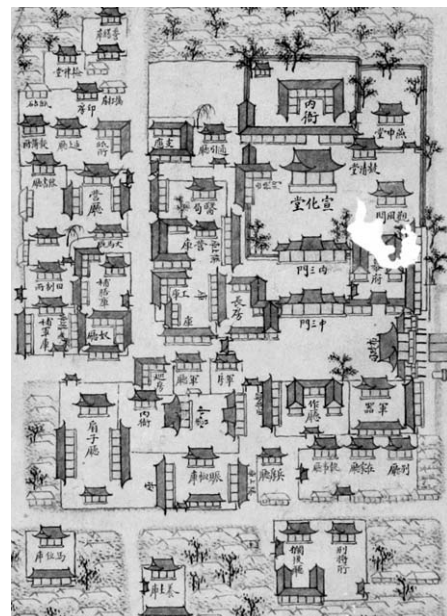
복원범위를 놓고 의견이 크게 대립되었던 것은 우선 복원사업의 목적과 관련해서이다. 전라감영 복원은 호남의 수부로서 전주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도청 이전으로 인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이었다. 전주의 역사성회복과 구도심의 활성화,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려는 것이 복원 범위에 관한 의견을 쉽게 좁히지 못하는 큰 요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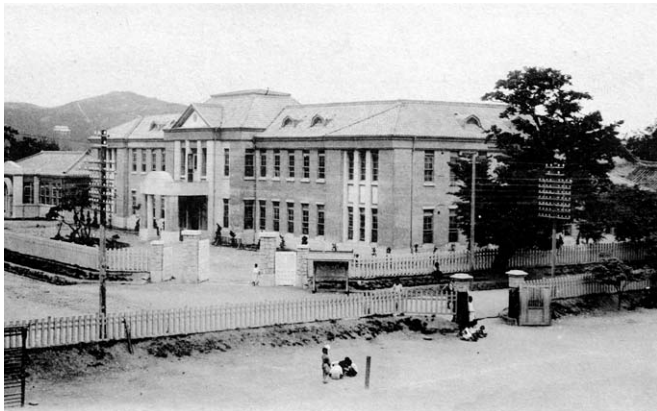
역사성을 강조하는 측은 전체 복원에 무게를 두었다. 선화당을 비롯해 상징적 건물 일부만 복원해서는 역사성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원을 통해 구도심의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반면에 주민들을 비롯해 또 다른 쪽에 있는 전문가들은 상징적 건물만 일부 복원하고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또다른 공간으로 재창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타지역의 사례에서 보면 감영건물 복원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여기에 전체 복원시 필요한 막대한 예산의 문제가 크게 작용하였다.

2009년 9월 전라감영 통합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전북도에서 추천한 인사와 전주시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통합추진위를 구성하여 복원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도 복원의 범위를 놓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진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그러면서 우선 선화당 건립부터 추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복원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논의만 무성한 채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완전복원이든

▶ 완산십곡 병풍도-19세기





▶ 1928년 전라북도청



▶ 선화당

부분복원이든 감영의 중심인 선화당은 복원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선화당 복원을 추진하면서 복원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이었다. 선화당 위치 조사 사업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 ❁ 선화당터 발굴과 구술채록

전라감영의 중심 건물인 선화당은 전라감사의 집무처로, 전주객사 다음으로 커서 5칸 집에 건평이 78평이었다. 선화당을 비롯한 관아건물은 조선멸망후 도청건물로 활용되었다. 1921년 도청 본관이 선화당 앞에 건립된 후에도 선화당은 도청의 한 사무실로 쓰였다.

선화당은 1951년 탄약고가 폭발하면서 도청본관 건물과 함께 전소되었다. 전쟁 중 도청 문서고에 탄약을 보관하였고, 이것이 터져 그 부근에 위치해 있던 도청본관과 선화당이 소실되었던 것이다. 현재 선화당은 사진으로만 남아 있다.

2006년 선화당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선화당 부지

로 추정되는 구도청 주차장 일원을 발굴하였다. 그러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술자들의 증언에 의해 상공장려관(도의회) 건물 옆 부근에 선화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일원에 대한 발굴을 시도하였는데 유구를 찾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선화당 건물이 석축을 쌓고 그 위에 건립한 것이므로 땅 속에서 유구가 찾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전주역사박물관에서 구술과 자료를 조사해 선화당 위치를 찾는 연구사업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다.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발굴에서도 나오지 않은 것을 자료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화당 위치에 관한 논의를 다시한번 재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이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복원이든 재현이든 방향을 정하기로 하였다.

당시 도청에 근무하던 분들을 대상으로 구술을 채록하여 갔고, 문헌자료들도 다각도로 조사해 보았다. 일본에도 연구원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가운데 전주수비대 사진도 2장 확인할 수 있었고, 전라감영 선화당은 아니지만 경상감영 선화당 사진도 찾을 수 있었다.

정작 선화당 위치에 관해서는 이전에 조사된 결과를 넘어서는 소득이 없었다. 구술하신 분들이 상공장려관 옆으로 기억하고는 계시지만 정확한 위치는 집어내지 못하였다. 60년전의 기억이니 그럴 수 밖에 없었다. 더욱 그럴 것이, 후에 도면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지만 현재 도청사 건물은 안쪽으로 당겨 지어진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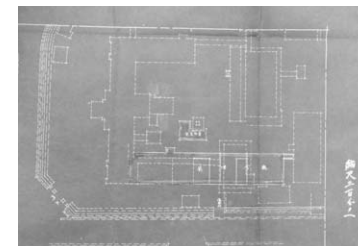
그런데 구술자 중에 이원갑씨가 당시 구도청 도면까지 그려와서 그 위치가 상공장려관과 도청본관 사이라는 증언을 하였다. 이런 사실은 전주부사의 기록과 맞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이를 정확히 받쳐줄 근거자료가 미약했다. 정황상으로는 이원갑씨의 증언이 맞는 것 같은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 ❁ 선화당이 표기된 구도청 도면

구도청 도면이라든가 관련 자료들이 찾아보기 힘든 것은 1951년 화재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때 문서고가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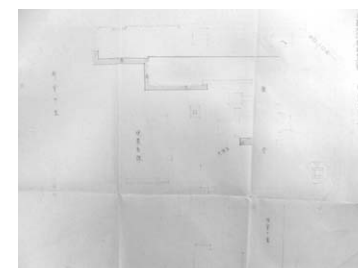
발하면서 이전의 자료들이 거의 소실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근래에 도청 이전이 있었는데, 이때 혹여라도 구석에 남아 있을지도 모를 자료들이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60여년전의 일이지만 그간의 이런 도청 사정으로 당시 관련문서들이 남아있기 힘든 상황이었다.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전라북도 구도청 도면 2장은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소하고, 정확한 선화당의 위치를 찾게 해주었다. 그 하나는 1928년에 작성된 도면이었다. 이 도면은 도청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문건이었다. 그 안에 도면이 있었고, 여기에 선화당이 그려져 있었다. 건물 명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기록, 건물 도면들로 볼 때 구도청본관 바로 뒤에 위치했던 선화당이었다. 순간 전율을 느낄 정도의 감동이 스쳐갔다.



▶ 전라북도 구도청 도면(1928)

그런데 이 도면이 갖는 한계는 기준점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선화당이 그려져 있고, 또 1/300 축척 도면이었지만, 당시 구도청건물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거리를 환산해야 하는지 모호했다. 도면에 나타난 도청본관도 예전 본관의 위치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51년 신축하면서 위치를 어느 정도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어 선화당 위치가 그려진 결정적인 도면이 나왔다. 1937년 5월에 작성한 문건인데, 구도청건물과 상공장려관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를 건립하기 위한 문서였다. 1937년 3월에 상공장려관을 건립하였고, 이 건물의 3층을 회의실로 쓰게 됨으로서 도청본관과 회의실이 있는 상공장려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건립하기 위해 그 해 5월에 작성한 문서였다.



▶ 전라북도 구도청 도면(1937)

이 도면이 선화당 위치를 찾는 데 결정적이었는데, 1928년 도면의

한계점이었던 기준점을 1937년 도면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37년 도면에는 상공장려관이 신회의실로 표기되어 그려져 있고, 현재 이 건물은 그 형태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1/300 도면을 현재의 구도청과 대비시키면 선화당의 정확한 도면이 나오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확인한 결과 상공장려관과 도청본관 사이에 선화당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더불어 선화당 동편에 있었던 관풍각으로 추정되는 관아건물도 찾을 수 있었다. 선화당이 현재의 구도청 본관건물과 가깝게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51년 선화당과 도청본관이 소실되어 도청본관건물을 신축할 때 안쪽으로 당겨 지었고, 건물의 폭도 대략 2배정도 키웠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선화당이 현재의 구도청본관 건물과 가깝게 나타나고, 구술자들이 선화당 위치를 본래보다 뒤쪽으로 기억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하여 전라감영복원사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화당의 정확한 위치를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감영복원사업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전라감영터에 대한 고증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사적 지정이라든지, 향후 이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선화당 위치를 찾는데 도움을 준 국가기록원에 감사한다. **IN**



### 필자 소개

진북대에서 역사학을 전공(박사)하였고, 전라감영복원 추진위원 및 전라북도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전주역사박물관·어진박물관 관장으로 재직 중이다.

Issue & Spot

# 제3호 기록사랑마을 지정과 의의

❖ 한상호 국가기록원 공업연구소

올해로 기록사랑마을 지정 사업이 3년차를 맞이하였다. 200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 제2호 기록사랑마을이 지정되어 이제는 제법 알려진 사업이 되었지만, 솔직히 담당자 입장에서 기록사랑마을을 발굴하는 것은 부담이었다. 왜냐하면 국가기록원이 주관하는 사업이긴 하나,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치단체와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였다. 제1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8리'와 제2호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기록사랑마을은 이러한 문제를 자치단체와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극복한 좋은 사례였지만, 2010년도 그런 마을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다행히도 나의 걱정은 기우였다. 나는 이 글에서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마을이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의의를 소개하고 부족한 소견으로 향후 기록사랑마을의 발전 과제에 대하여 고민해보았다. 기록사랑마을의 발전과 민간기록문화의 확산에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을 여러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기대하며 제3호 기록사랑마을을 소개하고자 한다.

## ❖ 제3호 기록사랑마을의 지정

'10년 장마가 잠시 쉬어가는 7월초, 제3호 기록사랑마을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는 전국 244개 광역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달간 진행되었다. 제1~2호 지정 사업을 통해 얻은 사업의 성공요건 2가지가 선정기준으로 제시되었는데, 하나는 '마을 기록물의 보존·전시공간의 확보 및 운영인력 보유 여부' 이고, 다른 하나는 '자치단체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 였다. 수요조사 결과 최종 후보지 2곳이 선정되었다.

8월 중순에는 후보지에 대한 현장실사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 보유기록물의 특성, 보존 및 전시공간의 확보 및 주민의 참여의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가 2010년도 기록사랑마을의 최적지로 평가되어 '제3호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되게 되었다.

기록사랑마을 지정 통보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록사랑마을 조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주민은 '기록사랑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기록사랑마을 조성'에

착수하였다. 10월 7~8일에는 제주도청 담당자와 마을주민 7명이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전시물 복제를 협의하고, 제1호, 제2호 기록사랑마을 전시관을 직접 답사하는 등 기록사랑마을 조성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였다.

또한, 안성리 마을 운영위원회에서는 마을회관 2층 회의실(72㎡)을 흔쾌히 '마을기록 전시관'으로 제공함을 결의했고,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전시관 콘텐츠 구성 및 전시패널 제작을 분담하였다. 이로서 제3호 기록사랑마을의 상징이자 홍보기능을 담당하게 될 '기록사랑마을 전시관' 조성의 틀이 마련되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마을 중요기록물의 보존 및 전시기능을 수행할 전시케이스를 제작하고, 전시기록물의 복제 및 복원, 소독처리 및 중성 보존상자 제작 등을 지원하였다. 9~10월 2달간의 작업으로 기록사랑마을 전시관이 구축되었다.

이를 기념하고 제주지역 민간기록분야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및 다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기록사랑마을 지정 기념 행사'가 11월 5일 개최되었다. 안성리 마을회관 앞 광장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국가기록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의회의장 및 마을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기록사랑마을 현판 제막식, 전시관 테이프 커팅식 및 전시관 참관 등의 일정으로 마무리되었다.

## ❖ 제3호 기록사랑마을의 의의

안성리 마을은 제주도 서귀포시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의 유래는 태종16년(1416년) 대정현 설치와 함께한다. 대정현 설치 이전에는 동헌터를 중심으로 풍천 임씨, 나주 정씨,



▶ 안성리 마을주민 면담    ▶ 호적중초(1780~1922)    ▶ 마을회관 전경(2층 전시관 예정)    ▶ 마을회관 회의실(전시공간 예정)



▶ 기록사랑마을 지정 기념 행사



▶ 현판 제막식



▶ 테이프 컷팅식



▶ 전시관 관람

여산 송씨 등이 거주했으며 북문 수월이 못 근처에 군위 오씨, 원주 원씨 등 삼백여호가 취락을 이루어 거주하였다고 한다. 대정현이 설치되면서 마을 명칭을 성안(城內)이라 불리다가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조 연간(1567~1608년)에 성안마을은 동성리와 서성리 두 마을로 나뉘어졌으며, 1879년에 동성리는 안성리로 개명되었다. 그 후 씨족사회의 주도권 싸움으로 1891년에는 안성리에서 인성리가 분리되었고, 1915년에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취락구조와 옹기공예를 주업으로 하는 구역리가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남쪽에 단산과 송악산, 우측에 모슬봉, 좌측에 삼방산, 북쪽으로 한라산을 등지고 넓은 평원을 이루고 있으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제3호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안성리' 마을의 대표적인 기록물은 '호적중초(戶籍中草)'이다. 이는 과거 향촌사회의 신분구조와 호구의 구성, 신분계층의 변동, 가족구성, 혼인관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호적대장보다 더 정확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호적중초는 1780년부터 1922년까지 140여년간 단절 없이 보존되고 있어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의 기록에는 제주목사가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등 3읍에 내린 마을 운영 규칙인 '절목(節目)'과 다수의 전통 생활용품 등이 있다.

기록사랑마을 지정을 계기로 이러한 우수한 마을 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가 재조사되었고 보존상태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국가기록원에서는 생물학적 오염이 심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소독처리 실시하여 응급조치하였고, 맞춤형 중성상자를 제작하여 보관 환경을 개선하였다. 특히 '기록사랑마을 전시관' 조성은 마을 중요기록물을 한곳에 모아 전시·보존

함으로써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후대에 전승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깊다. 또한, 안성리 기록사랑마을은 추사 김정희 유배지 및 기념관, 대정성지, 대정향교 등 우수한 문화·교육자원 및 수려한 관광자원과 인접하여 관광객에게 기록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홍보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 ✿ 향후과제

기록사랑마을 조성 및 지원 사업이 3년차가 지났지만 사업의 안정적 확산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많다. 강원, 경기, 제주특별자치도에 각각 지정된 제1~3호 기록사랑마을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방법, 또 다른 기록사랑마을을 발굴·지정하여 민간기록문화를 확산하는 방안 등은 모든 담당자들의 고민거리였지만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예산만 넉넉하면 다 해결되는거 아냐!' 라고 나 자신을 위로해 보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이러한 허전함은 제1호 기록사랑마을 간담회를 통해 달랠 수 있었다. 당시 진용선소장님은 "국가기록원 측이 지원하는 예산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정작 마을 기록을 소중히 다루고 보존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결여된 지정 사업은 1회성 홍보사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셨다. 소장님의 진심어린 염려와 충고는 나에게 긴 여운을 남겼다. 국가기록원측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기록사랑마을의 성패요인을 내부에서 찾으려는 소장님의 말씀은 참된 자아성찰이기에 나에게 감동이었다.

물론, 아직은 마을주민의 노력만으로 민간기록문화를 확산하기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국가적으로 봐도 공공기록물에 대한 체계가 정비된지는 불과 10여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민간기록물에 대한 주변의 관심은 너무나도 빈약하다. 따라서, 국가기록원과 자치단체의 관심과 보살핌이 절실하다.

우선, 기록사랑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서는 기록원-자치단체-마을주민간의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일 수 있다. 만남의 기회를 늘리고 소통을 원활히 한다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전문 기록관리 기술을 민간에 효율적으로 전수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의 기록물 보존인프라는 너무나도 빈약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중요한 민간기록물이 멸실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보존을 위한 응급조치 건설팅은 절실하다.

이러한 국가기록원과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된다면 언젠가 민간기록관리문화는 자생력을 얻을 것이다. 1세기동안 사막에 뿌려진 씨앗들이 단 한번의 단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신비로운 현상처럼 기록사랑마을도 전국을 수놓을 날을 기대해본다. **IN**

### 필자 소개

국가기록원 보존관리과에 근무하면서 제3호 기록사랑마을 지정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사회 기록관리과에서 전자기록물 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Issue & Spot

# 행정박물로 다시 보는 서울 G20 정상회의

❖ 김성민 국가기록원 사서주사

## ❖ Rule taker에서 Rule maker로

2010년 11월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세계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전세계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등 33명이 참석한 서울 G20 정상회의는 비(非) G7국가로는 처음이자, 아시아국가 중 최초로 열린 회의였다.



▶ 서울 G20 정상회의 모습 - 전경에 보이는 원형 회의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뒤에 보이는 의장기는 행사가 끝난 직후인 11월 15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

최초라는 외형적 타이틀보다 더욱 가치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경제 규칙을 제정하는 위치가 되었다는 점 일 것이다. 나라를 잃은 설움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장에서 쫓겨난지 10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2008년 10월 리먼브라더스사 파산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는 그해 겨울, 전세계인들을 혹독한 추위로 내몰게 한 주범이었다. 혹자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유럽을 휩쓸었던 1920~30년대 대공황을 연상하였다.

경제 위기에 대한 전조와 경고는 있었지만 풍부한 자본 유동성이 가져다 주는 활기에 묻혀버렸고, 파수꾼들은 제 역할을 못했다.

경제문제에 관한 한 그간 G7이 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70년대 석유파동으로 시작된 G7은 21세기 변화된 세계 경제의 지형을 반영할 수 없었다. 새로운 경제협력체는 BRIC'S로 대표되는 경제신흥국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G20에 자연스럽게 포함될 것은 아니었다.

우리 정부는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발판으로, 전쟁의 폐허속에서 단시간내에 경제발전을 이루고 후진국과 선진국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세계에 설득함으로써 가능했다.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작지만 탄탄한 나라이다.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과 저개발국의 개발 문제를 주도적으로 의제화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냈다. G7에 대한 기대권을 버리지 못한 국가들을 설득하여 임시적 성격의 G20을 제도화하는데 기여한 것도 대한민국이다.

## ❖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프로세스의 정점

G20 정상회의(Group 20 Summit)는 G20 회원국 정상을 비롯해서 초청국과 국제기구 대표 등이 모여서 회의를 연다. 2010년까지는 1년에 두 차례 그리고 2011년부터는 1년에 한차례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G20은 APEC이나 ASEM과는 달리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회의이다. 따라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의 하루는 분단위의 일정계획을 세워야 할 만큼 분주하게 돌아간다. 본회의 전날 열리는 환영 리셉션 및 만찬을 시작으로 국가별 양자회담, 본회의 오전 세션, 업무오찬, 오후 세션, 폐막식 그리고 기자회견으로 이어지는 쉴 새 없는 일정을 위해서 정상회의장은 화려한 장식을 피하고 회의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하고 실무적인 분위기 연출이 필요하였다.

1) 서울정상회의는 주최국인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프랑스, 아르헨티나, 러시아, 미국, 남아공, 터키, 인도,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EU 등 G20회원국과 말라위, 에티오피아, 스페인, 싱가포르, 베트남 등 초청국, UN, ILO, WB, IMF, OECD, WTO, FSB 등 국제기구가 참가하였다. EU는 EU의장과 EU집행위원장이 참석하여 총 33명의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였다.

2) 2008년 미국, 2009년 영국과 미국, 2010년 캐나다와 대한민국이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2011년에는 프랑스, 2012년은 멕시코가 개최할 예정이다



▶ **정상테이블** (2010년 11월 15일 대통령기록관 이관) - 정상테이블에는 명패와 펜, 메모지 그리고 음료수와 컵만이 놓여있다. 명패는 서울 G20정상회의의 참가규모를 알려준다.

정상회의와 별도로 영부인이 주관하는 배우자 행사가 리움, 창덕궁 그리고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열렸다. 한국의 미와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배우자 행사는 격식과 풍류가 함께하는 자리였다.



▶ **배우자 오찬(좌)과 오찬메뉴판** (2010년 11월 29일 대통령기록관 이관) - 한정식으로 차려진 한국가구박물관에서의 배우자 오찬은 한식의 깊은 맛과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 오찬메뉴판은 육류·생선·채식 3종류로 만들어졌다.

손님맞이에 선물이 빠질 수 없다. 선물은 각국의 선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실용적이고 품격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선물은 우리 대통령이 정상에게 주는 정상선물, 영부인이 정상 배우자에게 주는 배우자선물, 그리고 재무장관에게 주는 재무장관선물과 각국 대표단에게 주는 기념품으로 나누어 전달되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국민들의 염원과 동참도 뜨거웠다. 자발적인 승용차 2부제 동참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7,5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진행요원은 회의장 안팎에서 손님맞이에 분주했다. 'G20 정상에게 말하세요' 캠페인을 통해 지구촌 6살 미만의



▶ **정상회의 선물** (2010년 11월 29일 대통령기록관 이관) - 정상에게는 한국의 풍경이 담겨져 있는 디지털액자와 기념주화·접시가 선물로 전달되었다. 배우자에게는 한식 영문 요리책과 화장품, 재무장관에게는 풍속화 시계와 기념주화, 대표단에게는 가방, 필함, 연필, USB, T머니카드, 홍삼차가 제공되었다.

영유아를 살리기 위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각국 정상들에게 전달했으며, 600여명의 핸드프린팅에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미래세대의 기대가 반영되었다.



▶ **정상에게 보내는 엽서와 핸드프린팅** (2010년 11월 29일 대통령기록관 이관) -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염원을 담은 국민의 목소리는 정상에게 보내는 엽서와 핸드프린팅에도 담겨져 있다.

###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

대통령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제5차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대한민국이 결정됨에 따라 행사준비를 위한 정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2009년 11월 4일 대통령훈령 제 262호에 따라 설치되었다.

준비위의 모태는 2009년 2월에 설치된 G20기획조정위원회이며, 실무는 기획재정부가 재무장·차관회의 추진과 소관 의제를, 외교통상부가 셰르파(Sherpa)회의와 소관의제를 담당해왔다. 준비위는 이 두 기구를 합쳐 의제를 담당하는 기획조정단과 행사장 조성을 담당하는 행사기획단, 대내외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기획단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위원장 직속으로 기록물관리와 백서 편찬을 담당한 기록담당관실이 있다.

3) 셰르파(sherpa) : 티베트 고원지대에 살며 등정을 돕는 이들을 일컫는 단어에서 유래된 용어로, 정부 고위 관료 중 국가 정상을 보좌하여 G20에 참가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셰르파(sherpa) 회의'란 본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셰르파가 만나 상정될 회의 의제 등을 미리 조율하는 회의를 말한다.



▶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현판** (2011년 2월 28일 대통령기록관 이관) - 현판에는 초창기 용어 사용의 난맥상이 보인다. G20과 G-20이 혼용된 용어는 정상회의일 경우 G20, 재무장차관회의일 경우 G-20으로 통일되었다.

실질적인 논의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에 걸친 정상회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수차례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와 세르파회의를 개최하여 의제 협의 및 조율을 거친다. 실무 차원에서는 의제별로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수시로 컨퍼런스 콜과 대면회의를 통해 세부 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을 논의한다.

### ❁ 돌이킬 수 없는 회복불능으로부터...

공공기록물법 제24조는 행정적,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형상기록물을 행정박물로 하고 그에 대한 수집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판인과 현판을 제외하면 위원회에서 수집한 행정박물은 영구보존 가치가 있는 기념류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Historical)인 것은 사후 평가의 영역이며, 그마저도 가치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일반 법칙에 비추어 보면 행사 직후에 영구보존에 필요한 논리를 확보해야 하는 정상회의장 집기류 및 선물류 등의 이관이 쉬운 판단은 아니었다.

첫째, 서울 G20 정상회의가 가지는 역사성에 대한 판단문제였다. 우리는 이미 ASEM(99), APEC(2005)를 개최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더 많은 국제회의가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하더라도, 최초로 의미있는 국제회의는 단연코 '서울 G20 정상회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계 경제 규칙을 제정하는 위치가 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반영한 회의가 서울 G20 정상회의다.

둘째, 정상용 테이블과 의자 등 집기류의 부피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부피는 외형적 특징에 불과하다. 우리는 내용에 따라 보존하지 외형에 따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정상용 테이블과 의자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행정박물이다. 그 곳에서 세계의 정상들은 IMF사태와 같은 단기 외화유동성 부족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융안정망을 강화하였고, 저개발국가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자금 마련을 결정하였다.



▶ **정상용 의자** (2010년 11월 15일 대통령기록관 이관) - G20 정상들이 사용할 테이블과 의자는 몇 차례의 재검토 끝에 결정되었다. 사진은 2010년 10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공일 위원장이 최종 선정된 의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셋째, 명패나 정상용 펜·메모지같은 일견 사소해 보이는 소품류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명패는 참가국 규모와 참석자를 설명해 준다. 펜이나 메모지는 정상회의장의 재구성에 있어서 현장감을 부여해준다. 펜과 메모지가 놓여있는 테이블과 그렇지 않은 테이블을 상상해보면 이처럼 사소한 것들도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박해보이는 선물들은 어떤가? 이 회의가 외양만 그럴듯한 사고모임이 아니라 지극히 실무적인 회의임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 친환경성(서류가방이나 재활용 백), 한국의 IT기술과 G20에 대한 기억(디지털액자), 한국의 문화(한식 요리책)를 소개하려는 의도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필자는 모든 기록물에 대한 가치평가는 충분히 보수적이어야 하며, 가치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미래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가급적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보존장소와 인력, 예산의 한계에 따라 보존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선의 행정 행위는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이어야 하듯, 영구보존의 논리도 절대적 보존가치로 판단해야지 상대적 가치로 재단해서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폐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지침과 매뉴얼이 필요하다. 보존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성격을 밝히고 유형별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조사·분석해야 한다. 그런 바탕에서 영구기록물 보존기관의 폐기평가 또는 수집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회복불능의 상태' 직전에서 최후의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IN**

### 필자 소개

한국외대 경영정보대학원을 졸업하고 2005년 국가기록원에 입사. 기록관리혁신단 표준설계팀과 기록관리아카데미에서 근무하였으며, 대통령기록관 기획수집과, 대통령특별전시회 T/F, 국제기록문화전시회 T/F,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파견근무를 거쳐, 현재 대통령기록관 연구서비스과에 근무하고 있다.



# 스마트폰에서의 문화정보의 활용과 가능성

❖ **엄원석** (주)하우스컨설팅 부사장

## 1. 스마트 라이프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이 한국에 보급되기 시작한 지 불과 일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라이프의 변화는 극적이라 할 만큼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스마트폰에 대한 정의는 여러가지 방향으로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어디에 있든(Anywhere), 언제라도(Anytime),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Always On), 어떤 정보라도(Anything) 찾을 수 있게 한 최초의 단말기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정보의 활용측면에서 정확한 정의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위에서 구동이 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은 그 자체로써 상대방과 연결된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며 체험적 요소를 부여할 수 있다(전자신문 2010년 6월 21일자).



[그림 1] 스마트폰 활용 범위 (인터넷 진흥원 2010. 07)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은 자료 및 정보습득의 범위를 넘어서 여가활동, 경제활동,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 등 새로운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고 있다. 언제 버스가 오는 지 정류장에서 마냥 기다릴 필요가 없고, 지하철에서 환승하기 제일 편한 전철칸을 추천하기도 하고, 커피숍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의 제목을 찾아주고, 현재 있는 위치의 맛집을 검색해줄 수도 한다.

본 기사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처에 산재해있는 문화정보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국내외에 출시되어 있는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의 특징 및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모색해 보도록 한다.

## 2. 스마트폰의 기능

그렇다면 문화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단순히 온라인에 있는 정보검색과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용도로만 활용하는 것은 스마트폰이 가진 장점의

일부분만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하드웨어적으로 스마트폰이 기존의 핸드폰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핸드폰은 단순히 (가상) 키보드를 통한 텍스트와 마이크를 통한 음성, 그리고, 카메라를 통한 영상등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스마트폰은 다양한 입력센서들을 통하여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다. 텍스트, 음성, 영상은 물론 위치정보(GPS센서), 동작정보(Gyro센서), 방향정보(Compas센서)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활용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근거리통신(NFC)센서를 탑재한 스마트폰들이 출시되고 있는 데, 스마트폰간 혹은 스마트폰과 근거리센서와의 통신을 통하여 현재 교통카드나 신용카드의 역할까지도 일정정도 대체하리라 예상된다.

실상 문화정보는 도서관, 박물관, 전시관, 심지어 야외 거리등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텍스트, 영상, 음성 뿐만 아니라 위치, 동작, 방향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정보에 스마트폰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국내외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 3. 스마트폰에서의 문화 정보의 활용

국내 전시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전시관 소장 전시물의 모바일전시 컨셉의 어플리케이션과 전시관 관람을 위한 정보단말기 컨셉의 어플리케이션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모바일전시인 경우에는 주로 미술관등과 같이 미술작품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작품의 일부를 모바일로 서비스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국내의 경우 삼성리움박물관의 안드로이드 앱이 대표적인데 기획전시, 상설특별전시등의 메뉴를 통해 전시가 바뀔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전시 작품의 해상도는 화면해상도의 2배 이상의 고화질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2] 삼성 리움 미술관 안드로이드 앱

두 번째로, 전시관 관람 정보 단말기 컨셉으로는 2010년도에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출시한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문화재보기, 전시실 안내, 문화재 인식, 참여광장등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특히, 문화재 인식의 경우 아이폰의 뒷면 카메라 영상을 통하여 입력되는 영상정보를 분석하여 현재 촬영되고 있는 사물의 특징을 분석하여 관련된 정보를 찾아 주는 서비스로 아이폰의 영상정보를 활용한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그림 3] 국립고궁박물관 아이폰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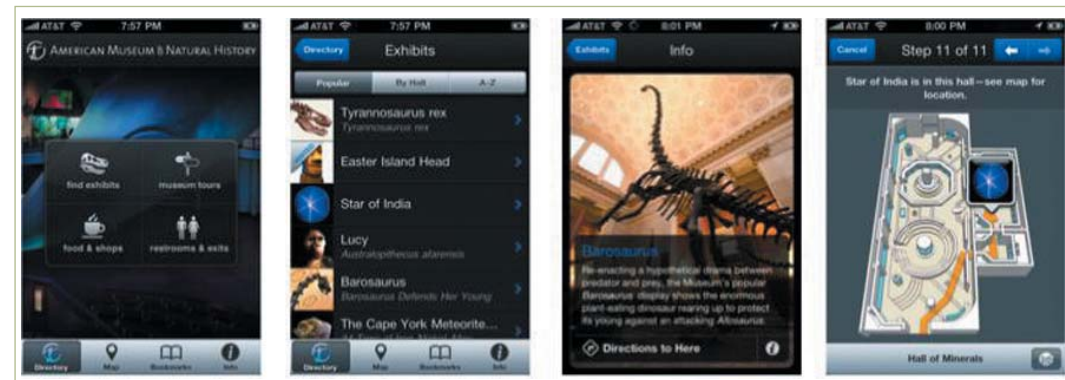
비슷한 컨셉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안드로이드용 앱도 출시하였고, 여기에는 QR코드를 정보를 인식하여 관련된 유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전시된 유물의 정보를 음성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을 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출시한 Cosmic Discovery와 Dinosaur Discovery 앱은 미국 나사(NASA)와 자연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우주와 공룡에 대한 희귀한 사진들을 상세한 정보와 함께 사진 모자이크형식의 게임적인 요소를 통해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림 4]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Dinosaurs와 Cosmic discovery 시리즈 아이폰 앱

그림 4는 Dianosaurs와 Cosmic discovery 아이폰 앱을 구동하였을 때 처음으로 접하는 모습이 다. 공룡과 우주의 사진이 보이는 데 이 화면은 몇천 장 이상의 작은 사진들의 모자이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화면은 모자이크 사진들이 보일 때까지 확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국 자연사박물관은 관람 정보 제공 단말기 개념의 스마트폰 앱인 Explorer:The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을 지난해 출시했다.



[그림 5] 미국 자연사 박물관 아이폰 앱 (Explorer : The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이 앱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내 위치정보 서비스(Indoor location based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위치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GPS위성으로부터 보낸 신호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하는데, 건물내에서는 이를 이용할 수 없어 통신 기지국 혹은 무선 인터넷(Wi-Fi) 정보를 통해 위치정보를 추정하는 A-GPS(Assisted GPS)기술을 사용하는데,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는 300여개의 무선 인터넷 액세스 포인트를 박물관 안에 설치하여 이들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박물관 내의 현재 위치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예컨대, 박물관 내에서 지금 현재 위치로부터 특정 전시물이 있는 위치로 이동하는 최적의 경로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그림 5의 네번째 그림). 스마트폰이 없는 관람객들은 박물관 입구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아이팟 터치를 임대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영국의 런던 박물관(Museum of London)에서는 과거의 디지털 사진 기록을 현재 위치에서 보여주게 하는 Street Museum 앱을 위하여 최근 유행하고 있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이용하였다.

현재 카메라를 통해서 입력된 현재의 거리풍경에 과거의 사진을 겹쳐서 보여줌으로써 과거의 거리 풍경의 사진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박물관이나 전시관처럼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런던이라는 대도시 자체를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국내의 경우, 종로 청계천의 복원되지 않은 예전 모습을 현재 복원된 청계천에서 스마트폰에 투영해서 본다는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사진들을 전남도청 주위를 여행하면서 체험하는 등의 생동감 있는 역사체험을 할 수 있다.



[그림 6] 런던 박물관의 스트리트 뮤지움(Street Museum) 아이폰 앱

### 3. 맺음말

지금까지 디지털 문화정보의 소통 도구로서의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의 소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소개된 어플리케이션은 주로 정보 입력 방식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소개가 된 것이며, 현재 출시되어 있는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입력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문화정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접목하면 여기서 소개한 내용들 이상의 활용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

#### 필자 소개

포스텍(옛 포항공대)에서 복잡계 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소셜 미디어 전문회사인 하우스컨설팅 부사장으로 재직중이며, 한겨레신문 미디어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 광디스크의 상태측정·분석 고찰



❖ 김상국 국가기록원 보존복원연구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방법 등으로 이중보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1999년부터 원본과 함께 복제본을 광디스크에 수록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에 이르러 대용량 저장장치인 스토리지(Storage)에 원본을 수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본 보고서는 1999년부터 국가기록원에서 보존 중인 광디스크의 전반적 상태를 측정, 분석 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자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 서론

일반적으로 광디스크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수록된 전자기록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종이매체와 마찬가지로 온도, 습도, 물리적 손상 및 기타 여러 요인에 의하여 광디스크는 물론 디스크에 수록된 전자기록의 정보까지도 훼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금번 측정을 통하여 밝혀졌다.

본 보고서에서는 약 2천장에 이르는 국가기록원의 보존매체인 광디스크의 상태를 정밀 측정,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자기록물의 이중보존을 위한 보존매체의 선정, 기록, 보존 및 복원 등 전자기록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본론

### 1. 측정대상

측정대상인 광디스크는 국가기록원이 중요기록물의 이중보존을 위하여 선정된 보존매체로, 사용 규격은 [표 1]과 같다. 약 7개월 간 2,121장을 측정하였으나, [표 1]의 규격을 벗어난 비표준 규격 및 인수 목록과의 불일치로 의심되는 디스크 수량을 제외한 1,993장에 대한 측정결과를 정리, 분석하였다. 비표준 규격이란 ISO/IEC<sup>1)</sup>에서 광디스크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정하기 이전에 생산된 디스크로 3.95GB 용량의 단일 단층 구조(Single-sided disc)로 되어있다. 측정 시 사용된 측정장비는 비표준규격 광디스크에 대해서도 측정은 가능하나 측정값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의 정확성을 위하여 제외하였다.

[표 1] 사용규격<sup>2)</sup>

항 목	규 격
직 경	120 mm
구 조	단일 단층 구조(Single-sided disc)
용 량	4.70 GB
형 식	DVD-R(Recordable disc)

분석대상인 1,993장을 보관 장소별로 분류하면 [표 2]와 같으며, 자료 수집 시 보관 장소의 온·습도 통계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분석 항목 중의 하나인 온·습도가 광디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온·습도가 광디스크의 물리적 특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표 2] 보관 장소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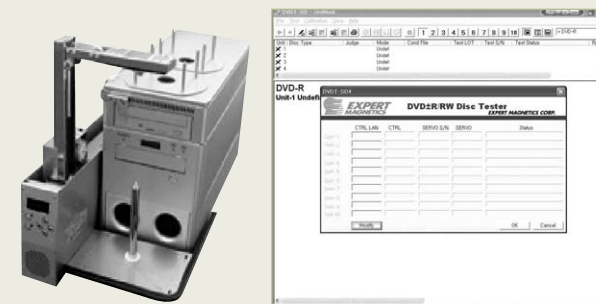
보관장소		수량	수록년도
대전서고	대전정부청사	1,133장	2000년~2007년
역사기록관서고	부산역사기록관	860장	2003년~2004년

### 2. 측정 환경

#### 가. 측정 장비

측정장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모델명 : DVDT-SD4
- 제조사 : Expert Magnetics Corp. (Japan)
- 측정 전용 DVD 드라이브 사용
- DVD-R/RW, DVD-R Dual, DVD+R/RW, DVD+R Dual에 대한 기록 전·후 측정 가능
- 디스크 전역 검사(Defect Inspection), 부분 검사(Random Measurement) 지원
- 디스크 물리적 특성 및 데이터 품질 검사 항목 지원
- Auto Loader : 1회 최대 40장 연속 측정



[그림 1] 광디스크 측정장비(DVDT-SD4) 및 응용 소프트웨어

#### 나. 측정 방법

측정방법은 Auto-Loader를 이용하여 1회에 최대 40장을

연속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모드를 선택하였으며, 매회 측정 후에는 약 1시간의 안정기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연속동작으로 인한 주요 부품의 과부하 및 열화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 다. 측정 파라미터

측정에 적용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Mode : Defect Inspection (전역검사)
- Type : AFT (기록 후 측정모드)
- 측정범위 : 24.5mm ~ 57.5mm (PSN<sup>3)</sup> : 0034DF0 ~ 0254960)
- 측정속도 : 1X (1배속)
- Defect Base Voltage(V) : Auto
- 측정항목 : PIEsum8, PIE, PIF, POF, DC Jitter, TEa, FEa, TVa, FVa

#### 라. 측정항목별 판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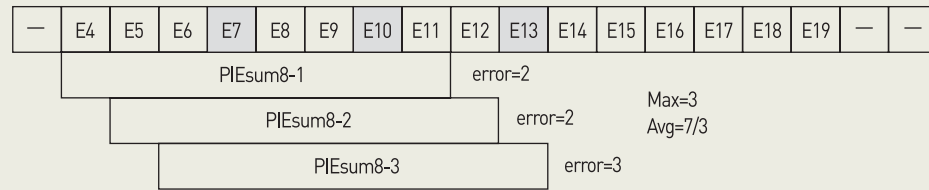
측정결과 항목별 판단기준은 ISO/IEC 권고안<sup>4)</sup>에 정의된 값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정의가 없는 항목은 결과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값으로만 활용하였다.

##### 1) PIEsum8

PIEsum8은 8개의 연속된 ECC Block에서 발생된 PIE의 합을 의미한다. 그러나 8 block 씩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2]와 같이 1 ECC block씩 이동하면서 계산하기 때문에 PIEsum8에서는 평균값보다는 최대값이 의미를 지닌다. 측정장비(DVDT-SD4)에서는 PIEsum8 측정 시, 1,000 ECC block 기준으로 측정한 후 가장 높은 값을 Max로

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2) ISO/IEC 23912, Information technology – 80mm(1.46GB per side and 120mm(4.7 GB per side) DVD Recordable Disk(DVD-R)  
 3) PSN : Physical Sector Number의 약자로, 16진수로 표현한다.  
 4) ISO/IEC 23912, Information technology – 80mm(1.46Gbytes per side and 120mm(4.70Gbytes per side) DVD Recordable Disk(DVD-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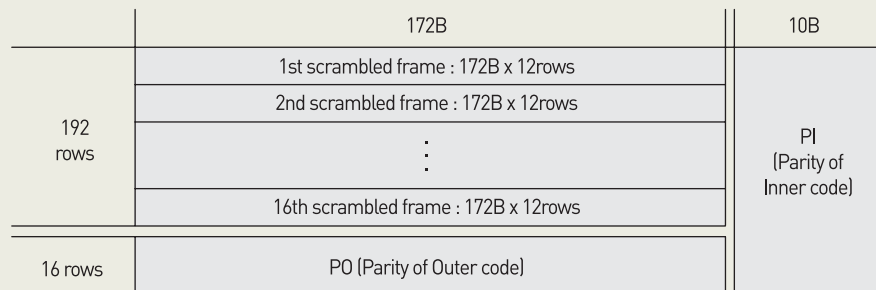
계산한다. 만약 이웃하는 1,000 ECC block에서의 값이 더 높다면 최종결과에서는 가장 높은 값을 Max로 나타낸다.



[그림 2] PIEsum8 계산예

- Error 규격(ISO/IEC 23912) : PIEsum8 ≤ 280 (DVD±R 모두에 해당)

참고로 ECC Block이란 데이터를 DVD에 수록하기 위한 기본 단위로 [그림 3]과 같이 에러정정을 위한 여분의 비트(Redundant bits)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3] ECC Block 구조

2) PIE(PI Error)

1줄의 PI Line에서 1bit 이상의 error가 발생하면 그 것을 1PIE라고 한다. 즉 2bit 이상 또는 1Byte 이상의 error 가 있다 하더라도 1 PI Line에서는 1PIE로 간주한다. 따라서 1ECC Block에서 최대 PIE는 208이다.

- Error 규격 : 정의되지 않음

3) PIF(PI Uncorrectable)

PI Line에서 RS(Reed-Solomon) code를 이용하여 정정을 하고도 정정이 되지 않고 남는 row(즉 PI Line)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PI line에서는 10byte의 PI code가 정정할 수 있는 최대 크기가 5Byte이기 때문에 실제로 1PI Line에서 5Byte 이상의 error가 있는 경우 해당 row를 1 PIF로 간주한다. 따라서 1ECC Block에서 최대 PIF는

208이다.

- Error 규격(ISO/IEC 17344<sup>5)</sup>) : PIF ≤ 4 (DVD+R 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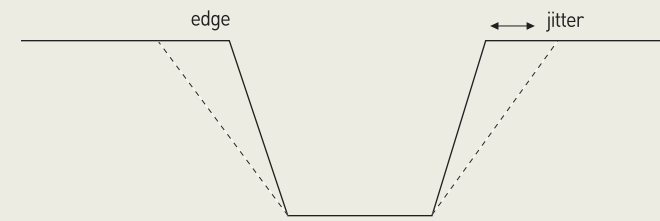
4) POF(PO Uncorrectable)

PI로 정정하고 난 후 PO Line에서 PO 정정을 하고도 Error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Line을 1POF로 간주한다. 이 error는 마지막까지 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Data loss에 해당한다.

- Error 규격(ISO/IEC 17344) : POF = 0 (DVD+R 에 해당)

5) DC Jitter

기록품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로 그림과 같이 정해진 값을 벗어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값의 오차범위가 클수록 지터가 크다는 것이며 이는 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4] Jitter의 정의

6) TEa, FEa

Tracking error 신호 및 focusing error 신호의 세기를 측정 한 값으로 TE, FE신호를 100% 기준으로 해서 normalize한 값이다. 이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7) TVa, FVa

Tracking 및 Focusing을 위한 PUH(Pick-Up Head)의 구동전압으로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측정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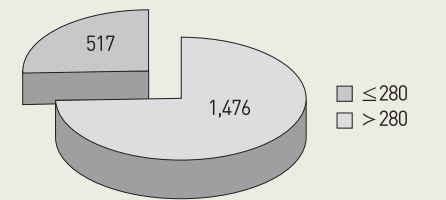
가. 전체 상태

측정대상인 1,993장에 대한 전체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측정항목으로 PIEsum8을 들 수 있다. PIEsum8은 DVD에 기록된 데이터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값으로 이 값이 권고 기준치인 280 보다 큰 경우, 원인에 관계없이 해당 DVD에 수록된 데이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표 3] PIEsum8 측정 결과

측정기준	결과	비율
PIEsum8 ≤ 280	1,476 장	74 %
PIEsum8 > 280	517 장	26 %
계	1,993 장	

측정 결과, 전체의 약 1/4 정도가 권고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광디스크의 수명을 최소 수십 년에서 가장 100 년임을 감안할 때, 수록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매체 중에서 약 26%에 해당하는 광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터의 상태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중요한 국가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원인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각각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원인 도출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려할 수 있는 가정으로는 ;

-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매체(광디스크)의 물리적 · 화학적

5) ISO/IEC 17344 2006(E), Information technology – Data Interchange on 120mm and 80mm Optical Disk using +R Format – Capacity:4.7 and 1.46Gbytes per Side(Recording speed up to 16X)

상태가 열화된다면 수록시점이(point in time for writing) 오래될수록 데이터의 상태는 나쁠 것이다.

- 광디스크 기판(Substrate)에 스크래치(scratch)가 있다면 읽기 오류가 발생함으로 인해 최초 수록된 데이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광디스크 제조사 및 모델별로 데이터의 품질에 차이가 발생 하는가?
- 광디스크의 변형(튀틀림 또는 휘어짐)현상이 데이터의 품질에 영향은?
- 최초 광디스크에 데이터 수록(writing) 시 문제로 인한 데이터 품질 저하

나. 수록연도별 상태

측정대상인 1,993장에 대한 수록연도별 분포 및 이에 대한 측정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수록연도별 PIEsum8 측정결과

수록연도	수량(장)	분포	PIEsum8≤280		PIEsum8>280	
2002년 이전	28	1%	27	96%	1	4%
2003년	114	6%	98	86%	16	14%
2004년	963	48%	677	70%	286	30%
2005년	238	12%	222	93%	16	7%
2006년	376	19%	261	69%	115	31%
2007년	274	14%	191	70%	83	30%
계	1,993	100%	1,476	-	5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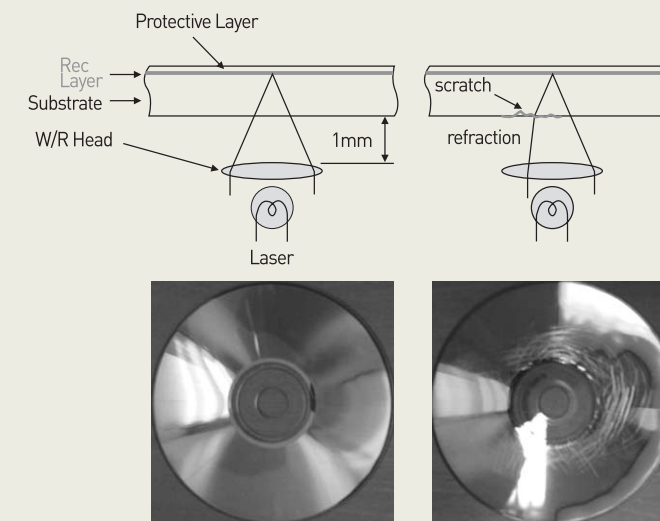
광디스크에 수록된 데이터의 상태가 매체의 물리적 · 화학적 특성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최근에 수록된 데이터일수록 상태가 좋아야 하나, 위의 [표 4]를 보면 수록연도에 관계없이 불규칙한 결과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05년에 수록된 광디스크의 경우 해당 년도에 수록된 238장중 약 7%인 16장만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반면, 가장 최근인 2007년도에 수록된 경우 무려 30%인 83장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측정결과가 제시하는 수록연도별 결과만을 볼 때, 수록 후 경과한 시간과 데이터의 보존상태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록기간이 10년 이상, 20년, 30년 이라면 위의 측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정보기술(IT)의 발달은 새로운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할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보존매체는 새로운 매체로의 이전이 불가피 할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매체를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보다 비용 측면과 데이터의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 기판의 스크래치가 데이터 품질에 미치는 영향

광드라이브(Optical drive)가 광디스크에 수록된 데이터를 읽는 원리는 특정 파장을 갖는 레이저빔(Laser beam)을 고속으로 회전하는 광디스크를 향해 쏘는데, 이때 레이저빔은 기판(substrate)을 지나 반사층(Protective layer)에서 반사되어 나오게 된다. 반사되어 나오는 레이저 빔은 디지털 정보가 수록된 기록층(Recording layer)을 통과하면서 파장이 변하게 되는데, 드라이브의 광검출기(Photo detector)에서는 파장의 변화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인식하게 된다.

[그림 5]의 왼쪽과 같이 기판(substrate)이 깨끗한 경우 레이저 빔은 왜곡 없이 입사 및 반사를 하게 되나, 오른쪽과 같이 스크래치가 있을 때에는 입사 또는 반사시에 스크래치에 의해 빔이 회절, 굴절 그리고 빛의 세기가 감쇄됨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게 되며, 이는 데이터의 오류로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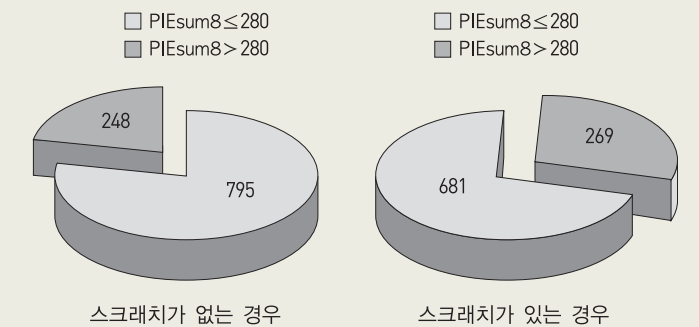
[그림 5] 스크래치 유 · 무에 따른 레이저빔의 모양

이와 같은 원리라면 스크래치는 데이터의 쓰기 및 읽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5]는 측정대상 전체에 대하여 스크래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데이터 품질(PIEsum8)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5] 스크래치 유 · 무에 따른 PIEsum8

스크래치	수량(장)	분포	PIEsum8≤280		PIEsum8>280	
무(無)	1,043	52%	795	76%	248	24%
유(有)	950	48%	681	72%	269	28%
계	1,993	100%	1,476	74%	517	26%

예상대로라면 스크래치의 유 · 무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양 쪽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임의로 광디스크의 기판에 스크래치를 심하게 만들어 시험을 해 보면 분명히 데이터 오류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드라이브가 광디스크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6] 스크래치 유 · 무에 따른 분포

위의 측정 결과만을 놓고 볼 때, 데이터 품질이 나쁘다는 이유를 스크래치 때문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크래치가 없음에도 PIEsum8의 값이 280을 초과하는 경우가 약 248장이나 발생하였으며 이 수치는 스크래치가 있을 경우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크래치가 없을 때의 PIEsum8 발생에 대한 원인은 스크래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측정결과는 스크래치의 유 · 무에 관계없이 PIEsum8이 기준값을 초과한 경우가 약 26%인 517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517장에 수록된 데이터는 전혀 읽을 수가 없거나 또

는 부분적으로 오류로 인식되어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광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터를 읽기 시 오류정정기법(Error correction technique)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오류정정기란 데이터를 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기능으로 [그림 3]에서 PI(Parity of Inner code)와 PO(parity of Outer code)가 이에 해당한다. DVD에서는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에 앞서 모든 오류 데이터의 개수를 PIEsum8이란 값으로 표시하며, 이후 PI를 이용하여 일차 오류 정정 기능을 하게 된다. 이때 수정 후에도 오류가 발생한 값을 PIF로 나타내며, 2차로 PO를 이용하여 오류정정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수정되지 않고 오류가 되는 부분을 POF 값, 즉 데이터 손실로 표시한다.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상태가 나쁜 원인 중의 하나가 스크래치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 다소 무리라는 것을 위의 측정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라. 광디스크 제조사 모델에 따른 데이터 품질 비교

측정대상인 1,993장의 광디스크에는 4개 회사의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특정 연도에 특정 모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도별 소요수량을 일괄 구매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추측된다.

[표 6] 제조회사 모델별 측정결과

주1) 보호층이 열전사용지로 코팅된 제품으로, 모델명을 확인할 수 없음

제조회사(모델명)	수록연도	수량(장)	분포	PIEsum8≤280	PIEsum8>280
Pioneer(DVS-R4700-T19)	'00~'03년	116	6%	109	94%
Imation(Version 2.0)	'02~'04년	979	49%	684	70%
Taiyo Yuden(1-4x speed)	'04~'05년	211	11%	203	96%
Taiyo Yuden(불명, 주1)	'05~'07년	687	34%	480	70%
계		1,993	100%	1,476	74%

Pioneer사의 DVS-R4700-T19와 Taiyo Yuden사의 1-4x speed 모델은 전반적으로 수록연도에 관계없이 수록된 데이터의 품질이 양호한 반면, Imation사의 Version2.0 모델 및 '05년~'07년에 사용된 Taiyo Yuden사의 모델은 모두 약 30%에 해당하는 수량에서 데이터의 품질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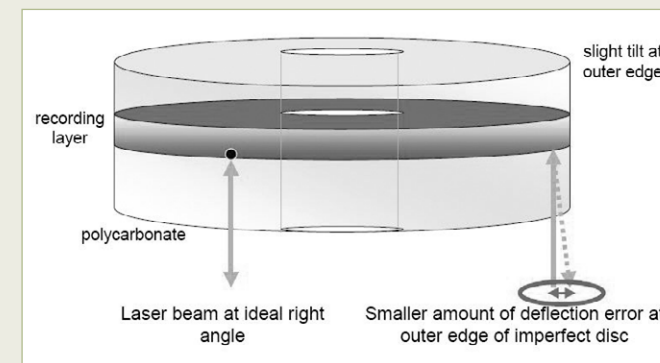
디스크의 모델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기록 후의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한 것 보다는 기록 전 공디스크(Empty disc)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는 기록 후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측정 결과를 통하여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을 위한 광디스크의 선정은 사전 품질 시험을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디스크 변형이 데이터 품질에 미치는 영향

드라이브에서 레이저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반면 디스크는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그림 7]과 같이 디스크의 안쪽보다는 가장자리로 갈수록 디스크가 약간은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때 휘어진 부분에서는 빔의 편향(deflection)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7] 레이저 빔의 편향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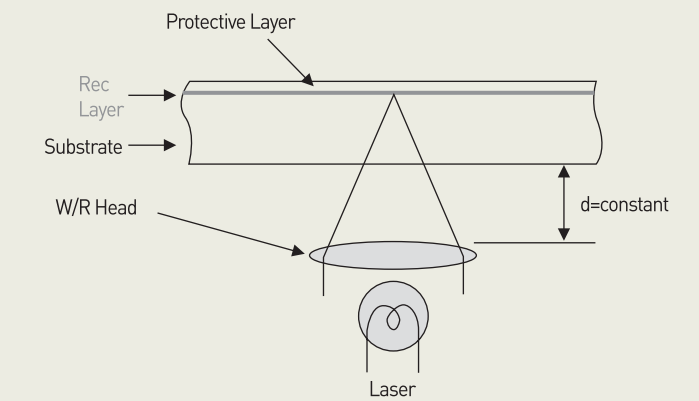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규정된 편차를 허용하도록 드라이브 및 디스크 설계 시 반영하고 있으나, 다른 이유로 인해 육안으로 관찰하기는 어려운 디스크의 변형(뒤틀림, 휘어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 8]은 변형현상이 거의 없는 디스크의 상태와 변형이 심한 디스크의 상태를 측정한 결과이다. 디스크의 모양에서 색깔이 짙을수록 휘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왼쪽 디스크는 우측 상단에서 약간의 변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며, 오른쪽 디스크는 안쪽 일부분을 제외한 가장자리로 갈수록 디스크의 변형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변형현상에 따른 측정결과

이상적인 경우는 [그림 9]와 같이 디스크의 반사층과 레이저 빔 사이가 일정한 간격(d)이 되어 데이터의 쓰기 및 읽기 시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나, 디스크의 변형에 따라 d의 값이 변하게 되며 따라서 인위적으로 d의 값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디스크와 레이저 빔 사이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시켜 주기위한 구동신호를 포커싱 전압(FV, Focusing voltage)이라고 하는데 FV를 측정해 보면 디스크의 변형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FV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간격(d)을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상적인 경우에 비해 데이터의 품질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음을 측정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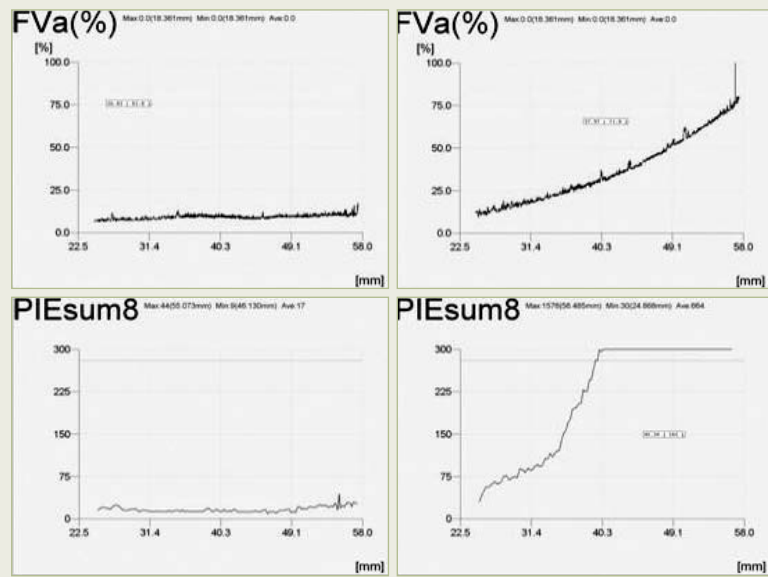


[그림 9] 디스크와 레이저 빔의 간격

6) 그림출처. Reference guide for optical media published by Memorex

[그림 10]은 [그림 8]의 a,b에 대한 FV값과 PIEsum8을 측정 비교한 결과이다.

변형상태에 따른 구동전압(FV)의 변화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데이터 품질(PIEsum8) 역시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디스크의 변형은 데이터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금번 측정 및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a. 변형이 없는 경우의 FV, PIEsum8    b. 변형이 심한 경우의 FV, PIEsum8

[그림 10] 변형상태에 따른 FV, PIEsum8 결과 비교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디스크 변형이라면 당연히 데이터 품질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측정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디스크 변형으로 인해 데이터 품질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금번 측정 및 분석에서는 디스크 변형이 일어난 구체적 원인 파악 및 검증에 위한 모의실험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다음의 2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예상하고 있다.

- 온 · 습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변형
- 디스크를 케이스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의 잘못으로 인한 변형

온 · 습도의 급격한 변화가 매체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추후 모의 실험 등을 통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분리 방법의 잘못은 디스크를 보존 케이스로부터 꺼낼 때 케이스의 가운데 부분을 누르게 되면, 반사작용에 의해 디스크가 약간 튀어 오르게 되는데 이때 디스크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을 가볍게 집고 들어올리는 것이 디스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상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중지로 가운데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엄지로 한쪽 가장자리 부분을 강제로 들어올리는데, 이러한 방법은 디스크를 위쪽 방향으로 휘어지게 만들어 보이지 않는 디스크 변형의 원인이 되며, 이는 위의 측정 및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데이터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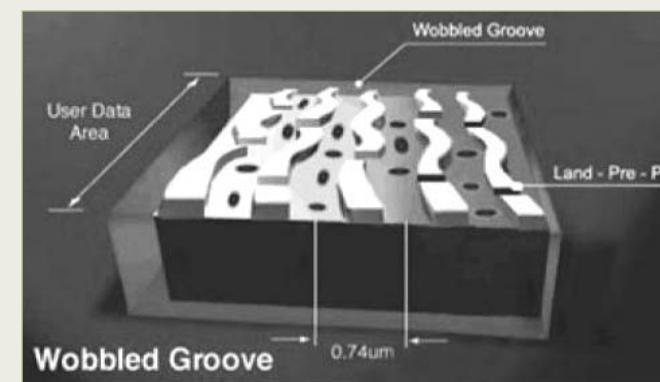
따라서 사소한 일이지만 사용 시 잘못된 습관만이라도 고친다면 매체에 수록된 데이터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보존 및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최초 광디스크에 데이터 수록 시 문제로 인한 데이터 품질 저하

디스크에 수록된 데이터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터(Jitter)를 측정하는 것이다. 지터를 다르게 표현하면 「부정확(Imprecis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측정된 신호가 기대했던 신호(또는 기준이 되는 신호)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항목이다.

지터를 나타내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금번 광디스크 측정 및 분석에서 고려한 것은 데이터-클럭 지터(Data-to-clock Jitter)로서,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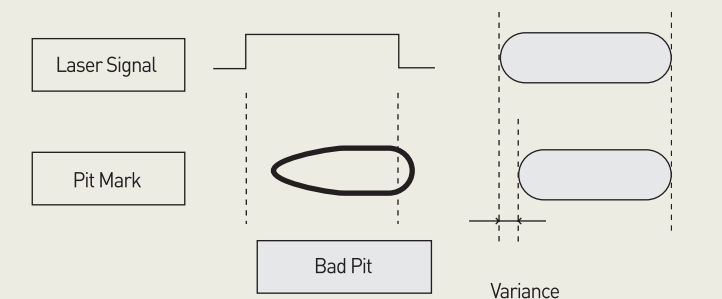
디스크의 데이터는 [그림 11]<sup>7)</sup>와 같이 기록층(Recording layer)중의 Wobbled Groove에 피트(Pit)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림 11] 광디스크 트랙의 이미지

드라이브에서는 기록층에 레이저 빔을 쏘아 피트로부터 반사되어 나오는 레이저 파형(HF, High Frequency signal)을 수신하여 이 파형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 하게 된다.

그러나 데이터 수록 시 디스크는 약 5,000rpm의 속도로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레이저 빔이 클럭주기에 동기(Synchronization)되어 정확한 위치에 피트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림 12]과 같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약간은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12] 피트의 위치 변이

이때 피트가 정상적인 위치를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양(Variance)의 정도를 지터(Jitter)로 표현하며, 특히 클럭 신호를 기준으로 측정된 지터를 데이터-클럭 지터(Data-to-clock Jitter)라고 한다. 금번 측정에서는 데이터-클럭 지터의 값을 백분율(%)로 표현하였으며, 측정값인 데이터-클럭 지터의 값이 크면 클수록 정상위치로부터의 이탈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에 사용된 측정장비의 규격은 DVD-R 계열인 경우 8%, DVD+R 계열인 경우 9%까지를 상한 임계치로 설정하고 있다.

데이터-클럭 지터값이 증가하는 원인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디스크에 데이터를 수록하는 순간부터 정확한 위치에 피트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반대로 데이터를 디스크로부터 읽기를 할 때 오류로 인식되어 데이터 품질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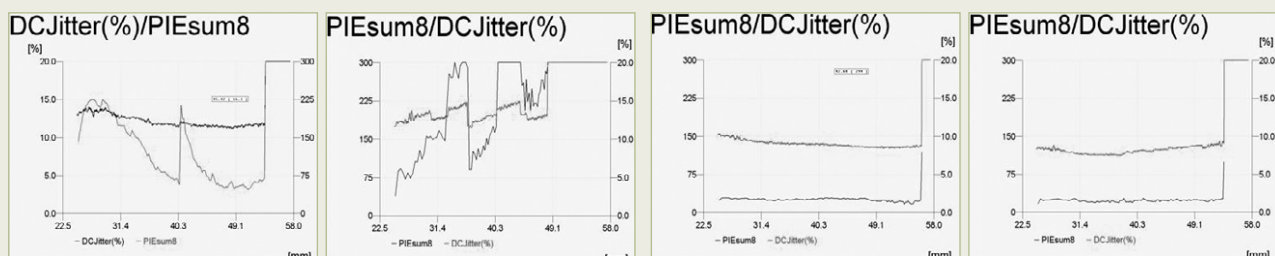
7) 그림출처 : Worthington 2005a, slide6

정상적인 피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록하는 드라이브와 디스크간의 정합을 고려하여 한다. 이를 쓰기전략(Write Strategy)이라고 한다.

쓰기전략(Write Strategy)의 핵심은 디스크 제조사 제조사의 생산라인에서 기록된 정보 (이를 LPP Information이라 한다)를 인식할 수 있는 펌웨어를 가진 드라이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디스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드라이브의 펌웨어가 해당 디스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드라이브의 펌웨어가 디스크의 정보를 인식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드라이브는 기준값을 적용하여 디스크에 데이터를 수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새로운 디스크의 제조사ID가 NAK0001이고, 쓰기 위한 레이저 빔의 세기(Recording power)가 10.5mW라고 가정할 때, 펌웨어에 들어있는 ID정보 중에서 NAK0001이 없다고 하면 펌웨어는 해당 디스크에 대한 정확한 빔의 세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펌웨어가 갖고 있는 기준값(예를 들어 9.5mW)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록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이럴 경우 피트가 정상적인 깊이 보다 약하게 형성되는 관계로 위에서 언급한 데이터-클럭 지터 편차로 인한 데이터 품질이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론적으로 데이터-클럭 지터값을 측정하여 분석하면 최초 디스크 수록을 위한 환경이 최적이었는지 아니면 드라이브와 광디스크간의 정합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데이터-클럭 지터값을 측정한 결과 전체 측정대상에서 약 18%정도가 한계값인 8%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데이터 수록 시 쓰기전략(Write strategy)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 및 디스크 선정을 위한 사전품질 검사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14]는 측정결과 중 데이터-클럭 지터값과 데이터 품질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13] 데이터-클럭 지터값이 나쁠 때의 데이터 품질(PIESum8) [그림 14] 데이터-클럭 지터값이 좋을 때의 데이터 품질(PIESum8)

### III. 결론

#### 1. 측정 · 분석결과 종합

금번 측정에서는 총 1,993장의 DVD-R 디스크를 대상으로 5가지의 항목을 가정하고 각각에 대한 결과 및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 시간에 따른 매체의 상태변화가 데이터 품질에 미치는 영향
- 디스크의 스크래치(scratch)가 데이터 품질에 미치는 영향
- 디스크 모델별 데이터 품질 비교
- 광디스크의 변형 현상이 데이터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 쓰기전략(Write Strategt)과 데이터 품질의 관계

보존기간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데이터의 품질은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는 없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열화된 매체의 상태와 스크래치 등으로 인한 디스크 상태가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러한 성질들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디스크 모델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디스크 선정을 위한 사전 품질검사 활동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전체 측정대상에서 광범위하게 발생된 품질 열화는 광디스크의 변형과 최초 디스크 수록 시 쓰기전략(Write Strategy)의 결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소한 부주의가 디스크의 변형을 불러 일으키고, 이는 데이터 품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단순히 드라이브에 디스크를 넣고 데이터를 수록하는 방법보다는 드라이브와 디스크의 정합을 고려한 환경 하에서 데이터를 수록할 때 데이터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2. 향후 추진사항

금번 측정을 통하여 보존용 매체인 광디스크의 데이터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각도로 관찰, 측정 및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존환경 측면에서의 온 · 습도의 변화로 인한 영향

과 실내 인공조명이 데이터 품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향후 2차 분석에서는 국가의 중요기록물이 안정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위에서 언급한 항목 외에 보다 많은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금번 측정대상인 1,993장의 보존매체에 대해서는 비록 2008년말 수록된 모든 기록물들이 보존 스토리지로 이전이 되었지만, 측정결과 품질에 문제가 있는 디스크를 중심으로 복원을 시도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서라도 당분간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참고문헌**

1. ISO/IEC 10149, Information technology – Data Interchange in read only 120mm optical data disk(CD-ROM), 1995.
2. ISO/IEC 16448, Information technology – 120mm DVD Read only disk, 2002.
3. ISO/IEC 17344, Information technology – Data Interchange on 120mm and 80mm Optical Disk using +R Format, 2006.
4. ISO/IEC 23912, Information technology – 80mm(1.46Gbytes per side and 120mm(4.70Gbytes per side) DVD Recordable Disk(DVD-R)
5. Joel Sylvester, "Reed Solomon Codes", January 2001.
6. Memorex, "Reference guide for optical media"
7. Daniel P. Wells, "Predicting the longevity of DVD-R media by periodic analysis of parity, jitter, and ECC performance parameters", August 2008.

**필자 소개**  
경북대에서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고, 현재 국가기록원 보존복원연구과에서 전자매체 및 시청각 보존 · 복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영화필름과 디지털 매체의 보존기술 현황과 논쟁

장광현 한국영상자료원 보존기술센터장



미몽('36, 양주남 감독) - 문화재 지정 제342호

영화필름이 탄생한 지도 110여 년 이상이 되었다. 활동사진으로부터 시작한 영화필름은 태생적으로 부(富)를 누리던 사람들의 호기심 속의 여가용(?)으로 탄생한 사치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소위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던 영화가 서서히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수백년, 수천년동안 고대문양과 문자 등으로만 표현되던 역사를 보다 사실적인 움직이는 영상과 음향으로 기록하여 후세에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정말 짧은 순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 영상자료 보존의 필요성

영화, 영상자료는 종합예술의 집적체라 불리는 동시에 각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역사적인 기록 가치와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기록사료이다. 이러한 영화, 영상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예술 및 표현수단을 보존하는 일인 동시에 사회의 집단적 기억을 구축하는 일인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영화필름이 근현대사 유산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미몽>('36, 양주남 감독) 등 7편의 영화필름이 근대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재평가받기도 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자료의 실제 면면을 살펴보면 전시, 재난 등과 같은 사건과 사고를 겪고 '50~'70년대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을 지나오면서 영화필름과 같은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에 더욱 더 무관심해져 갈 수 밖에 없었던 듯 하다. 이러한 기록보존에 대한 낮은 대중적 인식으로 인해 오늘날 해외 선진 아카이브에 비해 자국영화 보유율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보존되고 있는 자료도 평균적으로 훼손상태가 좀 더 심해 복원 및 보존관리 운영에 더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영상자료 매체의 다양한 변화

초기 영화필름은 질산염 필름 등 불안정한 재질로 인해 보존과 활용면에 있어 불안정한 상태였으나 점차 안전재질로 단계별 발전하여 최근 보존과 활용의 품질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에스터베이스 재질의 필름이 보급화 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영화필름은 현존 최고의 화질을 가지고 있는 재질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비성 재질로 영상물 제작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70~'80년대 홈비디오 보급으로 시작된 전자매체 영상물이 디지털 영상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고품질화 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 급속한 변화를 맞게 된다. 사실 당시의 전자매체 영상물은 저장매체로 볼 때 장기 보존매체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영상매체의 다양화는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아날로그 통신방식에서 디지털 통신방식으로, 유선사업에서 무선사업 등으로 기술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질적 개선과 편리함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더욱 더 많은 변화와 고민거리를 안겨주게 되었다.

오늘날 영화제작 매체는 영화필름에서 Digital Cinema, HD 등 다양한 매체로 제작되어 대중들에게 급속히 보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영화필름에 근접하는 디지털 고화질 기술과 보급매체 제작의 편이성 등으로 인해 제작비가 절감되는 디지털 매체의 선호도가 급속히 증가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상기와 같이 디지털 매체 제작 증가추이는 전통적으로 영화필름을 고수해 온 유럽에서조차도 그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급속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디지털 매체가 증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지만 국내의 경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영상산업 환경과 제작 방식에 있어 몇 가지 또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

국내 영상물 법적 제출자료의 디지털 매체 증가추이<sup>1)</sup>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제출대상(편)	90	125	125	127	129	160
디지털매체 제출본(편)	9	15	28	41	61	92
비율(%)	10	12	22.4	32.3	47.3	57.5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영화필름 등의 제출) 2010년 12월말 현황(한국영상자료원)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기 Post Production에 디지털 색보정(DI : Digital Intermediate) 기술이 보급되면서 영화필름의 최종 원본의 개념이 기존의 오리지널 촬영 편집본 Negative 필름에서 DI 작업결과물 Negative 필름으로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제작되는 영화의 약 80% 이상이 현재 DI작업을 거치고 있고 이로 인해 필름과 디지털 결과물(D-cinema, Full HD 등)이 병행 생성되어 공급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후반작업 방식은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재 체제에도 상당부분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작업비중이 대단히 높은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제작시스템 변화는 열악한 국내 영화 제작여건 및 부가시장 환경에서 직·간접적으로 민감한 요소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영화필름과 전자매체 영상물의 훼손유형 및 보존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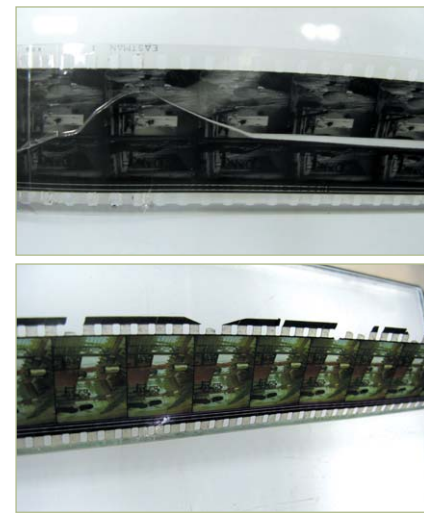
영화필름은 현존하는 최고의 화질을 가지고 있으나 아날로그 매체로 활용도에 따라 마멸되어 가며 공기중의 미생물에 의해서도 자연 마멸 훼손이 진행된다. 엄밀히 따지면 영화 촬영 이후 후반작업 과정에서부터 취급 부주의와 오염 물질 노출 등으로 인해 눈에 안보이는 훼손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영화필름의 훼손은 퍼포레이션 또는 Frame 등의 찢김 등과 같은 물리적 훼손과 곰팡이 등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훼손, 먼지, 녹물 등 이물질 오염, 스크래치, 탈색 등 Frame 손상 등 아주 다양한 훼손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필름의 수축 및 초산화 현상(Vinegar Syndrome)은 발생하게 되면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며, 현재 약품 및 최소한의 환경변화 등의 방법으로 훼손 속도를 지연시키는 방법이 권고되고 있을 뿐이다.

전자매체 영상물의 경우 마그네틱 테이프 등으로 된 것이 많은데 이들 또한 영화필름과 동일하게 물리적, 생물학적 훼손이 일어나지만 그 환경조건은 조금 차이가 있다.

전기적 장치로 구성, 구동되는 저장장치의 경우 저온 보존에 적합치 않거나 자기열화를 일으키는 매체의 경우 자기차단 등의 조치를 해야하거나 전하 손실방지를 위해 일정기간내 전기적 신호를 공급해 데이터의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전자매체 저장장치의 경우 검증된 정확한 보존기준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 달리 말하면 매체도 다양할 뿐 더러 사실 영구보존매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업체조차도 그러한 기준 제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자매체의 훼손은 매체 생산 또는 복제시 구동장치에 의한 원형 훼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매체 열화, 구동 운영체제 Error에 의한 데이터 소실, 데이터 전송과정의 noise, Frame 손실 등의 훼손이 발생한다.

영화필름은 적절한 온·습도의 유지와 관리가 된다면 100년이상 보존할 수 있다고 검증된 바 있다. 이론적으로는 0℃이하 저온 보존을 통해 약 700년까지 보존할



▶ Frame 찢김 및 Perforation 손상 등 물리적 훼손



▶ 곰팡이,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훼손 / 이물질 오염에 의한 막면 훼손



▶ 초산화 현상 말기 필름 - 백화현상



▶ Color Fading, Emulsion Lift 등 화학적 훼손



▶ 녹물 침전 등 화면 Frame내에 나타난 훼손

수 있다고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 반면 전자매체의 경우 저장매체가 다양하긴 하나 아직 평균 수명 8~10년 정도를 제시하는 경우가 다수다. 하지만 우리 자료원의 경우 디지털매체인 영상 테이프를 상온(20~23℃) 유지 보존과 3~4년 주기 condition check를 하는 등 유지관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도 못미치게 5~6년이내에 데이터가 소실되는 사례가 발생된 바 있다.

### 영화필름 및 전자매체의 보존 관련 논쟁 또는 오해?

몇 해전 우리나라 영화업계 프로듀서 세미나에서 영화필름과 디지털 제작매체의 효율성에 대한 열띤 논쟁이 있었다. 요점은 열악한 영화업계가 향후 경제적으로나 예술적, 기록적 등의 관점에서 영화필름과 디지털 제작매체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효율적인지 대한 방향성을 논의 하는 자리였다. 필름업계에서는 필름의 소모량을 줄여 제작비를 절감할 방안을 제시하였고 디지털 업계에서는 필름에 준하는 고품질 영상제작 가능성과 대



▶ 곰팡이 등 미생물에 의한 훼손



▶ 자기 열화 또는 전송 등에 따른 Frame data 손실

용량 테이퍼 처리방안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였다. 최근 전세계 디지털 스크린 전환율은 2010년말 143,000여개중 약 22,500여개로 약16%이상의 전환율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2,003개의 스크린중 약 56.6%<sup>2)</sup>가 디지털 스크린으로 전환되고 있어 타국가에 비해 상당히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은 디지털의 경제성과 편의성을 강조하며 디지털로의 전환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나 실상 이는 영상물의 제작에서 배급, 개봉까지만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영상물이 만들어 짐과 동시에 보존관리와 재활용에 대한 또 하나의 걱정거리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디지털 저장장치의 불안정성 때문에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는 이중 매체로의 이중, 삼중 backup이 필요하며,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가의 장비를 구비하는 등 지속적인 경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2) 출처 : 2010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둘째, 향후 재활용시 디지털 구동시스템이 변화하면 그에 따른 업그레이드 또는 재가공 등의 절차나 비용이 필름에 비해 복잡하고 상당하다. 심할 경우 그 창작원본을 재제작해야하는 불상사를 맞을 수도 있다. 최근 디지털 아카이빙은 어쩔수 없는(?) 대세라고 하지만 선도적 아카이빙 작업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는 타국가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빙이 기존의 아카이빙 보다 8~10배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도 얘기하고 있다. 상기의 경우만 보아도 사실 영화, 영상자료를 보존하는 아키비스트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은 아직까지 편한 게 아니라 골칫거리 일 수밖에 없다.



▶ 고밀도 디지털 영상테이프 Cleaning 및 Condition check

영화필름과 전자매체의 보존 관련 장단점

구분	영화필름	전자매체
유리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매체의 수명이 길어 최적의 보존환경 조건을 갖추면 100년 이상 보존이 가능</li> <li>- 아날로그 매체이므로 훼손 이외 부분은 정상보존됨</li> <li>- 자료훼손 및 보존에 대한 전통적인 보존방안이 지속 연구되고 있음</li> <li>- 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매체에 비해 보존관리 비용이 절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름에 비해 복사,재편집 등 활용의 편의성 및 재가공 용이성</li> <li>- 필름에 비해 보존공간 확보 등 부담절감</li> <li>- 보존시스템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현 영사규격이 바뀌지 않는 한 품질 영구보존</li> </ul>
불리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훼손된 자료의 복원 및 보존 비용이 상당함</li> <li>- 한번 훼손된 자료를 복구하는 경우 고난이도 작업이 필요하며 세부 품질 조정 불가</li> <li>- 전문 아카이브 장비 및 관련 인력 수급이 점차 어려워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매체 및 구동시스템의 수명이 짧아 자료보존의 연속성을 위해 최신 매체로의 전환 등 수시 대응이 요구됨</li> <li>- 적정 환경보존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수명보다 일찍 불규칙적인 열화현상이 실제 발생하고 있음</li> <li>- 최적 보존환경에 대한 연구 데이터 축적 미흡</li> <li>-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상 훼손이 발생할 경우 자료 전체가 불용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음</li> </ul>

영화필름 및 전자매체의 효율적인 보존방안

영화필름과 아직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전자매체는 각기 상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직 누구 하나 버릴 수 없는 중요한 문화자원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금의 영화필름 및 전자매체의 효율적인 보존방안으로써는 첫째, 최적의 보존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자료 매체별, 재질별 특성에 따른 최적 온·습도 환경분석 연구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영화필름은 가능한 저온 유지가 필요하나 활용빈도에 따라 자료를 구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전자매체의 경우 다양한 재질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저온보다는 20~23℃



▶ 영화필름의 상태점검 및 보존처리



▶ Digital Cinema 등 Data 보존처리 및 관리



▶ 영화필름 디지털복원 Before & After

를 유지하는 것이 걱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능한 급격한 온·습도 변화가 없도록 시설을 조성하고, 재해, 재난을 대비한 자료의 이원화 보존환경을 조성, 운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둘째, 초기 수집자료의 상태파악에 따른 세척·보수·복제 등의 조치와 초산화현상 등이 발생한 훼손자료에 산화지연 약품투약 및 타 자료와의 격리조치, 오염된 전자매체는 가능한 빠르게 타매체로 변환하는 등 초기에 적절한 보존처리가 필요하다.

셋째, 자료는 항상 관심받길 원한다. 적절한 보존처리를 하여 보존고에 적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료의 훼손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다. 보존용, 활용용 및 자료별 특성에 따라 정기적인 보존상태 점검이 필수이며 수축상태, 오염상태, 색조변화 및 화질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자료상태 변화에 따라 필요시 즉시적 보존조치 및 복원, 매체변환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매체 및 영상기술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인프라 조성 또한 필요한 요소중 하나다.

특히 영상물의 복원은 최근 세계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기술 연구 개발에 노력하여 고화질 New Media가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부가산업의 효자 노릇에 보탬이 되고 있는 추세다. 국내의 경우 급속한 디지털 영상산업기반이 활성화 되고는 있

지만 영상물의 고화질 디지털복원 등에 대해 그 기술수준이 타 국가에 처지지 않고 있음에도 산업과의 접목을 하기에 아쉽게도 아직 풀어야 할 고리가 너무 많은 실정이다.

넷째, 훼손된 자료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은 훼손되기 전 원 자료를 관리하는 비용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료관리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 및 기록보존가로서의 마인드 제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또한 문화선진 국가로의 인식을 정착화 하는데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자료의 보존관리 방안은 나라별,기관별 여건에 따라 시간적·재정적으로 많은 투자와 어려움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준을 각 아카이브의 여건에 맞추어 융통성있고 최대한 효율적·실용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IN**

필자 소개

한국영상자료원 보존기술센터 센터장으로 영상자료의 보존관리 및 기술 연구조사와 복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문화재청,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도서관,국가기록원 등의 시청각자료 보존 관련 프로젝트에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 녹색 생명산업의 과거 · 현재 · 미래가 만나는 곳 농림수산식품부 기록관 들어다보기

❖ 하승이 농림수산식품부 기록연구소

지난 2008년 전 국민을 서울광장으로 모으려 했던 한미 FTA 쇠고기 협상에서부터 배추값 폭등과 최근 구제역 확산까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이 있고, 주요 정책결정의 과정들이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업무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민감한 기록이 많으며 정책결정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비공식적으로 생산되는 기록물 또한 적지 않다. 다양한 생산배경을 지닌 기록물을 기록관리 제도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마찰이 생기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록의 가치와 중요성, 기록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직원들의 시각이 조금씩 변화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고된 성장통을 겪으며 차곡차곡 역사가 쌓여가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기록관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농림수산식품부와 기록관이 걸어온 길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땅과 바다에서 나고 자란 농수산물을 안전하게 생산·유통하고, 생활터전의 뿌리인 농어촌을 보다 가치있는 자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농산·수산·축산업 및 식량, 농지, 수리, 식품산업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1실 6국 24과의 농림부 신설이 시초가 되어 1973년 농수산부, 1986년 농림수산부, 1996년 농림부를 거쳐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을 기점으로 지금의 농림수산식품부가 되었다. 기존의 농림부 업무에 해양수산부의 수산어업정책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 정책 업무가 통합되면서 현재는 본부 3실 3국, 12관, 51처리과에 11개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약 4,900여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록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처리과는 총 420개로 조직의 규모가 커진만큼 기록물 생산량 또한 많아져 2·3차 소속기관까지 세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의 기록관이 있기 전에는 문서고를 중심으로 오래된 기록물철을 쌓아두거나 「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문서를 등록·수발신하는 정도가 기록관리의 전부였다. 2000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의 관리 체제에서 큰 변화는 없었으며, 직원들의 인식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자료관시스템이 도입되고, 2005년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면서 본격적인 기록관리가 시작되었다.

당시 참고역할을 병행하던 문서고를 일제히 정리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오래된 철제앵글을 기록물 보관용 서가로 교체 설치하였으며, 장기간 방치된 종이기록물을 보존기간에 따라 선별·정리하고 DB구축하여 온라인 검색·열람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어 2006년에는 처리과 사무실에 자의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기록물을 문서고로 이관받기 위하여 과천청사관리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제2서고(163.2m<sup>2</sup>)를 추가 확보하였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관되는 기록물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고, 자구책을 찾은 결과 문서고로 이어지는 복도공간을 문서고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감행한 끝에 처리과의 기록물을 온전히 이관받을 수 있었다. 이관된 중요 기록물을 보다 과학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소화기, 제습기, 항균기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이중잠금장치를 마련,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개선을 통하여 기본기능에 충실한 문서고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7년부터는 기록관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생산의무 부과기록물인 회의록의 생산관리 지침 마련, 장기보존 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처리과 지도·점검 및 기록관리책임자들의 고충상담을 위한 워크숍 개최, 전자 기록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기록관리 제도의 조기정착을 이끌었다.

## 기록관리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록관리 실무에 내실을 다지면서 조금씩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을 때쯤 기록관은 한단계 발전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목표를 재설정하고 기록관리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추진한 것은 비전자기록물 등록체계 개선 운동이었다. 장·차관 대면결재 보고서를 비롯하여 농협·마사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우편·팩스로 접수되는 기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전자기록물을 스캔하거나 생산 당시 파일을 전자형태로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등록체계를 변경한 것이다.

이것은 전 직원이 기록물 생산·등록 단계에서부터 기록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중요성을 체감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최초의 목적이었으며, 더불어 비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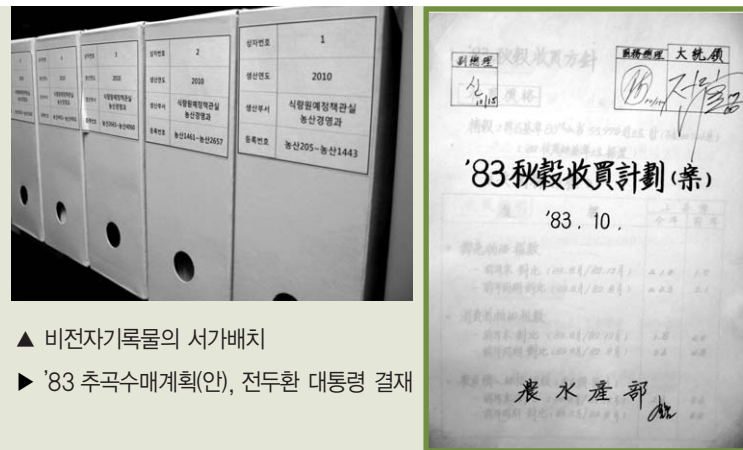
▶ 문서고 내부(제1서고)



▶ 기록물 열람실



▶ 문서고 내부(제2서고)



▲ 비전자기록물의 서가배치  
▶ '83 추곡수매계획(안), 전두환 대통령 결재

기록물을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필요시 신속하게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기록관리 측면에서 비전자기록물 원본은 별도 편철·관리하고 기록관으로의 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단지 번거롭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으며, 잦은 출장·회의 등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직원이 많아 결국에는 처리과 기록관리책임자의 몫으로 치부되는 등 출발이 순조롭지 않았다. 그러나 기록관에서는 등록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등록 목록을 공개하는 등 다소 강제적인 방법으로 전직원의 참여를 유도한 끝에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성에 공감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서기관부터 주무관까지 비전자기록물 생산자가 직접 전자파일을 등록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비전자기록물 등록체계 변경 운동을 실시한 첫 해 시범운영 결과는 직원들이 비전자기록물 원본을 개인 캐비닛에 두고자하는 집착을 버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기록물 원본은 다음해 즉시 기록관으로 이관될 수

있었다. 기록물의 소재도 파악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이관연기를 신청하던 직원들의 기록관리 습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록관은 연초부터 기록물 인수일정 수립에, 쏟아지는 기록물 검수·인수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한 기록관은 지난 2008년부터 사진영상기록 생산 부서인 홍보담당관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시청각기록물의 장기보존 계획을 마련하고, 역대 장관 사진기록물 수집 및 DB구축 추진, '03년 이후 디지털 영상기록의 백업강화 및 이중보존 처리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70년대 이전의 사진기록은 대부분이 생산맥락정보가 누락되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향후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우리 부 역사를 영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록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이상적인 기록관리를 위해서는 처리과 중심의 자발적인 기록관리가 선행될 때 기록관리의 체계가 더욱 견고해 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록관은 처리과의 기록관리 수준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연간 기록관리 실적 평가를 제도화하여 미흡한 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평가지표는 기록관리 의식개혁을 위한 직원들의 교육참석률을 비롯하여 기록물 이관·폐기 등 법정 기준 준수여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평가결과, 처리과별 등급을 공개하고 우수부서는 시상하여 그 간의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조치함으로써 기록관리 업무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기록관의 최근 이슈

기록관은 최근 기록관리 제도 망을 벗어나기 쉬운 직원 PC에 저장된 업무관련 파일들을 기록정보화하여 공유·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획조정실장님을 팀장으로 T/F팀을 구성하고, 기록관과 정보화담당관이 주축이 되어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기존 미등록 자료 DB 구축 등의 실무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기록관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기록화되는 모든

데이터를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직원들이 PC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기록관리의 영역이 기존의 공문 중심에서 업무전반을 아우르는 공공기록물로 확대되는 전환점이 되고, 이를 계기로 기록관의 역량이 한층 커지게 될 것이다.

### 성공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키워드 “사람”

공공기록물법이 시행된 지 11년째를 맞이하는 지금, 그간의 기록관리를 스스로 평가한다면 ‘가까스로 기본틀을 잡은 상태’쯤으로 진단 할 수 있겠다. 앞으로는 기록관리 제도이행 차원을 넘어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기록관리 추진을 위하여 기록관의 역할 변화가 절실한 때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직원들의 기록관리 마인드 함양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전달식 교육을 지양하고 기록관리의 주체인 직원들과 소통함으로써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록관리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부 기록관의 최우선 과제이다.

기록관리에는 대박이 없다. 오로지 작은 변화들의 축적이 있을 뿐이다. 하루 사이에 직원들의 인식이 전환되길 기대하기 이전에 직원들의 입장에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쌓아가다 보면 5년 후 10년 후에는 보다 성숙한 기록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부는 최근 우리조상의 웰빙 먹거리인 비빔밥과 막걸리 열풍으로 한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식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양한 재료가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내는 비빔밥과 같이 기록관리도 다양한 기록정보가 기록관에 모여 유용한 정보가 되고 국민들에게 가치있게 쓰여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농림수산식품부 기록관 소개를 마무리 한다. **AN**

#### 필자 소개

명지대 기록관리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 기록관 관장과 직원들 (가운데 최이규 기록관장)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관리

❖ 부용식 제주특별자치도 학예연구사

인간은 다양한 기록을 생산해 내기도 하고 또 스스로가 많은 기록을 접하기도 한다. 이러한 수많은 정보는 우리 인류의 보편타당한 세계적 질서를 알려주기도 하고 당면한 현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마리와 미래적 가치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선결조건은 이 수많은 기록을 어떻게 가공처리하고, 어떻게 정리하며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생산한 기록이 정보적 가치로서 의미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그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지역별로, 개인별로 산재해 있는 수많은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정리하고, 보존하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것인가가 바로 그 기록물의 가치, 생명력을 넣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기록을 어떻게 보존·활용할 것인가는 지금 당면한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하게 생산된 기록이고 모든 분야의 정보를 집대성한 기록이라 하더라도 보존관리가 허술하여 소실된다면 그 노력은 물거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으로 민간분야의 기록물 발굴 조사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물론 2008년부터 기초적인 조사사업은 이루어진 적이 있었으나 조직과 예산을 갖추고 구체적으로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 도내 민간기록물의 다양한 수집 주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우선시되는 것이 현재 수집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의 점검과 기록물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는 기관은 다양하다. 박물관 운영부의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감귤박물관 및 국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 등의 박물관계(系), 4·3사업소, 탐라기록관리소, 제주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등의 자료관계(系), 한라도서관, 탐라도서관, 우당도서관 등의 도서관계(系) 및 제주문화원 등의 문화원계(系)와 사설 박물관과 개인 향토사학자 등이다.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탐라기록관리소는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 보존기구이면서 제주관련 향토자료의 수집업무도 관장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중요 기록정보자원인 도내 민간기록물을 꾸준히 수집 보존관리 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 수집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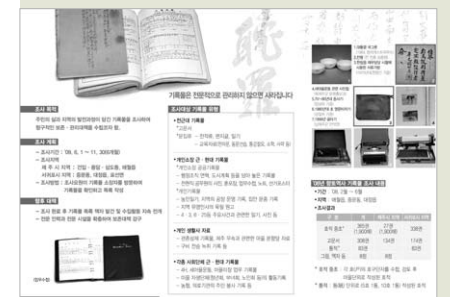
기록물을 수집할 때에는 수집의 범위선정과 주제 선별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것은 곧 수집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며 수집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규정은 수집활동의 지침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탐라기록관리소가 추진하고 있는 수집대상 기록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탐라기록관리소의 주요 수집대상 기록물

공공분야	민간분야
공공기관의 생산기록물 (문서, 대장, 카드, 도면, 행정박물 등)	문집류, 개인소장 공공기록물, 개인기록물, 각종 사실단체 기록물, 고문서 등

## 제주특별자치도 탐라기록관리소의 민간기록물 세부 수집대상을 보면

- ① 제주특별자치도 역사에 관한 기록물로서 지명 유래, 행정조직 연혁, 도시계획 기록물
- ② 주요 인사 소장 기록물로 역대 단체장의 개인사가 등에 보유하고 있는 앨범, 훈·포장, 서신, 일기, 업무수첩 및 행사기록물, 주요사업에 참여한 퇴직공무원, 민간참여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공보관실 사진담당 퇴직 공무원 소장 기록물, 지방에서 존경받는 유명인사 등의 육필원고 등 개인기록물, 근대이후 제주 지방관(도사, 도지사) 관련 기록물, 집안 문중기록, 4·3, 6·25 등 주요사건, 행사의 기록
- ③ 도내 역대선거, 각종 축제에 관한 기록물로 선거 포스터, 홍보물 및 시청각, 마을축제에서 생산된 사진, 동영상, 박물, 일반기록물
- ④ 역사적, 문화적 지역 전통행사와 관련한 기록물로 제주 영등굿, 마을별 본향당, 구비 녹취 기록물, 제주지역의



▶ 민간기록물 수집 홍보물



▶ 제주신성여학교 1회 졸업사진(1914)



▶ “무상”(이은상 수필집, 1936년)

관혼상제에 관한 기록물, 제주 신앙과 관련한 마을 본향당 자료 ⑤ 근대화 산업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기록물인 4H, 새마을운동, 마을이장 기록, 농민일기, 지역의 공장 운영 기록물, 마을 자생단체(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의 활동기록, 농협, 의료기관의 주민봉사 기록물 ⑥ 전근대 기록물인 토지매매문서, 절목, 등장, 호적중초 등의 기록물, 제주 삼읍(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지방관 관련 기록물, 교육자료 등이다.

여기서 고문서는 실제로 조선후기의 기록물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의 향촌사회의 기록물이 보존되거나 전승되는 과정은 대개 기록물을 작성한 주체(개인이나 집단·조직·기구)에 의해 보존된 것과 기록물이 주로 활용되던 관련기구와 이들 기록물과 관련하여 참여한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개인)에 의해 보존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고문서의 종류는 지방에 소재한 향교, 서원, 사우, 재실, 루정, 동각, 정려, 사찰, 종가나 개인이 소장한 기록물에 따라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문서는 도내 각종 수집기관들 중 특히 박물관계의 수집기관들이 주로 수집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근·현대 기록물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록물은 시기상 최근의 것이라 어떠한 기록물 수집기관에서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어서 최근 수집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근·현대 기록물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문서, 카드, 도면, 대장 및 특수기록물과 민간분야에서 생산된 문집류, 개인소장 공공 기록물, 개인기록물 및 각종 사설단체의 기록물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탐라기록관리소가 수집대상의 범위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범위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중 민간보유 기록물과 민간 생산 각종 문집류, 개인기록물, 각종 사설단체 기록물 등 근·현대 기록물을 주 대상으로 삼았다.

### 민간기록물의 수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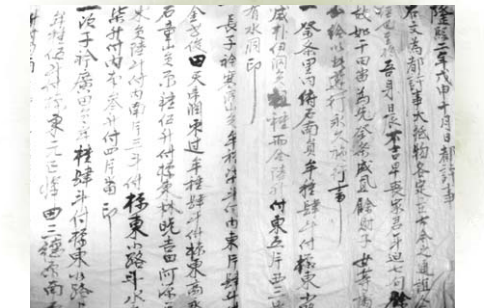
우선, 2008년도에 행해진 기초 조사사업을 토대로 기록물의 관리실태와 그 지역 주민들의 기록물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 보았다. 기록물의 보관상태는 매우 열악하였다. 마을회관 구석에 거의 아무렇게나 방치하다시피 관리되고 있으며 그 기록물에 대한 활용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더우기 기증과 관련해서는 마을 주민 대다수가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꺼려하였으며 그 기록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특정 기록물이 어느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온다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기록관찰과 함께 수집이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그 기록물을 토대로 마을의 역사적 의의도 함께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탐라기록관리소는 그간 진행해온 지역별 소장 기록물 분포 상황을 토대로 2009년도 부터 희망근로 사업과 연계하여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수집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수집의 특성상 당초 기증자의 의사가 여러번 반복되는 경우가 있었다, 기증 의사가 있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이 변해 수집 작업이 번번히 허탕을 쳐 적잖이 당혹케 하곤 했었다.

### 마을 민간기록물의 수집 현황(2009~2010)

구분	주요 대표 기록물	수량	비고
<b>합 계</b>		<b>664(권,건)</b>	
전적류	가례증해(목판본), 표해록, 사서삼경 등	124(권)	
문서류	토지매매문서, 상공인연합 문서(일제)	113(매)	
개인기록	원주무역(원주원에)일본 판촉물 등	178(건)	
	장례택일문		
개인소장 공공기록	정부수립30주년 기념 우편엽서	212(건)	
	병역수첩		
단체기록	새마을지도일지, 지번별조사, 민방위관련문서	14(건)	
	제주의 유학관련 자료와 시문선, 유도제주		
비문헌기록	근정포장('60), 국민훈장목련장('74), 국민훈장동백장('88)	12(건)	
	정의좌면 하천리 제8통1호		
기 타	1.우남 리승만 2.최후의 백범 3.조국의 근대화 4.제주도 5.역경과 보람의 긴여정	11(건)	

그 간 민간분야의 기록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민간기록물의 수집활동은 민간기록의 현실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기록물의 보존환경은 열악하다. 보존문제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활동은 제주지역 향촌사회의 실상을 생생하게 복원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즉 제주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 특성이 내륙지역과 다른 요소가 무엇이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 및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IN**



▶ 중문리 재산분재기 (1908년)

**필자 소개**  
 제주대 대학원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록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일상의 기록, 시간을 넘어 역사가 되다

신창균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 그림일기(1960)

## 1967년, 경남 사천에서 송아지 1마리 가격은?

1967년 10월 당시 송아지 1마리 가격은 얼마일까? 경남 사천에 사는 박연묵(77)씨가 쓴 가계부에 의하면 이 시기 경남 사천지방에서 송아지 1마리 가격은 21,700원이었다. 박연묵씨는 1967년 10월 30일 사천 시장에서 수송아지 1마리를 21,700원에 구입해서, 1970년 4월 19일 98,000원에 팔았다. 이 내용은 박연묵씨가 1967년부터 1971년까지 4년간 기록한 「가계부」(1967~1971)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계부에는 이 때 구입한 송아지 사육일수와 사육비도 기록되어 있는데 송아지 사육일수는 총 2년 5개월 19일간(899일)이며, 사육비는 총 1,000원이 들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1968년 11월에는 새끼를 뺀 암소를 60,500원에 구입해서 2년 6개월(910일) 기르다가 1970년 10월 2일, 82,000원에 판매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1970년 당시 준교사 월급이 22,010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시 암소 한 마리 가격은 준교사 월급의 4배에 해당한다.

## 기록을 남긴 사람들을 만나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이 기록된 「가계부」를 국가기록원 기획전시실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박연묵씨의 가계부와 같은 생활 속의 기록들을 모아 「기록사랑 이야기展 - 기록이 전하는 추억, 추억이 전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지난 1월부터 전시회를 열고 있다.

전시회는 '역사 속 기록사랑 이야기', '생활 속 기록사랑 이야기', '기록을 남긴 사람들'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영역에는 주로 전통시대 기록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부부간에 애절한 사랑을 전하는 편지, 며느리에게 전했던 한글유서, 궁궐을 떠난 황후(皇后)의 피난생활을 담은 일기 등을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영역에는 우리들의 유년 시절을 그린 그림일기, 교과서, 학급일지 등 학교생활 속에서 남겨진 기록들을 소개한다. 마지막 영역에는 수 십 년간 기록을 남긴 '기록의 달인' 과 그들의 '기록벽' 이 묻어있는 기록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박연묵씨의 「가계부」가 전시되어 있다.



박연묵씨는 1934년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에서 태어났다. 1968년 4월 통영 노대초등학교 순회강사를 시작으로 교직에 몸담았으며, 1999년 8월 정년퇴임하였다. 퇴직 후 고향인 사천에서 '박연묵 교육박물관' 을 운영하며, 교사 연수장과 학생 체험학습장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48년부터 쓴 일기, 가계부, 영농일지 등 일상생활을 기록으로 남겨 학생들의 소중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1977년 벼 추곡 수매 가격은?

박연묵씨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틈틈이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지으며 그때그때 일들을 일자별로 일지에 기록하였다. 「영농일지」에는 농사에 투입된 인부와 인건비, 농약살포 일자, 파종일과 수확일, 수확량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일례로 전답(田畓)별 곡식 수확량을 살펴보면, 1977년 '간동앞' 논에 '밀양 22호' 종자 40되를 파종하여 그해 10월 32석을 수확하였다. '서마지기' 논에는 '밀양 22호' 14되를 파종하여 15석을 수확하였고, 이듬해에는 '노풍' 21되를 파종하여 10석을 수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해 추곡 수매에서 1등(54kg, 13,250원) 30가마니, 2등(54kg, 12,650원) 56가마니, 3등(54kg, 12,100원) 1가마니의 등급을 받아 벼농사로 총 1,118,000원의 수입을 올렸다. 한편, 1977년 한해 영농비는 총 206,200원이 지출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인건비 50,500원, 농약비 35,700원, 비료 70,000원, 기타 50,000원이 들었다.

이와 같이 전답별로 파종한 종자, 파종량, 파종일자, 수확일자, 수확량, 추곡 수매가격 등을 기록한 이유는 "그해 농사일을 기록해 둬으로써 이듬해 농사에 참고할 수 있고, 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영농일지(1977~2001)

### 30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담임한 제자의 수는?

이 외에도 박연목씨는 30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이와 관련된 기록도 다수 남겼다. 근무한 학교와 학교별 근무 기간, 동료 교사 명단 등을 기록한 「근무학교 현황」, 「담임한 학생명부」, 그리고 교사생활 시작부터 오늘까지 봉급내역을 월별로 정리한 「비망록」 등이다.

「근무학교 현황」(1960~1990년대)에는 30년 교사 재임 기간 동안 근무한 학교와 학교전경 사진, 학교별 근무 기간, 동료 교사 명단 등이 기록되어 있다. 자료에 의하면 박연목 씨는 통영 노대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총 11개 학교에서 근무하였으며, 동료 교사는 총 315명이다. 「담임한 학생명부」(1968~1999)는 30년 동안 11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담임한 제자들의 이름을 연도별, 학교별로 기록한 명부이다. 1968년 4월 처음 담임한 학생 31명을 시작으로, 1999년 정년퇴임하기까지 총 1,295명의 학생을 가르쳤다.



▶ 근무학교 현황(1960~1990년대) ▶ 담임한 학생명부(1968~1999) ▶ 비망록(1968~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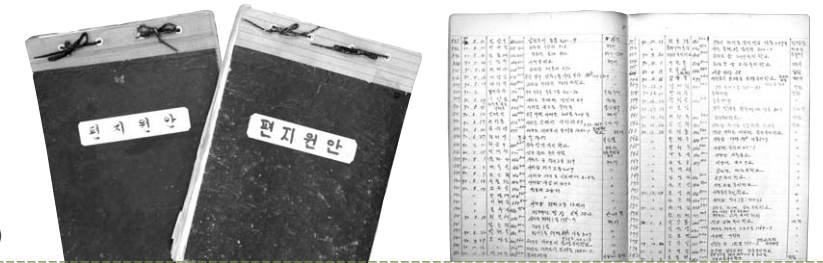
「비망록」(1968~2010)은 박연목씨가 1968년 교사생활 시작부터 오늘까지 받은 봉급내역(1999년 9월부터는 연금내역)을 월별로 정리한 장부이다. 1968년 4월 처음으로 노대초등학교 순회강사를 하면서 받은 월급은 본봉 8,000원(수령액 5,500원)이었으며, 1970년 3월 양성소를 수료하고 준교사로서 받은 본봉은 총 22,010원으로 세금, 연금, 저금 등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은 19,762원이었다.

### 1985년 한 해 동안 몇 통의 편지를 보냈을까?

한편, 박연목씨는 편지를 보내고, 받은 현황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였다. 언제,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또는 누구로부터 언제 받았는지 등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편지 발송부」(1974~1997)와 「편지 접수부」(1986~1996)에는 편지를 보내고, 받은 현황, 발송(접수)일자, 받는 사람(보낸 사람), 주소, 우편물 유형(편지, 엽서, 소포, 청첩장, 세금고지서) 등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다. 자료에 의하면 1974년 초부터 1997년 8월말까지 발송한 우편물 총수량은 1,161건이고, 1986년 1월 6일부터 1996년 8월 12일까지 접수한 우편물 총수량은 1,089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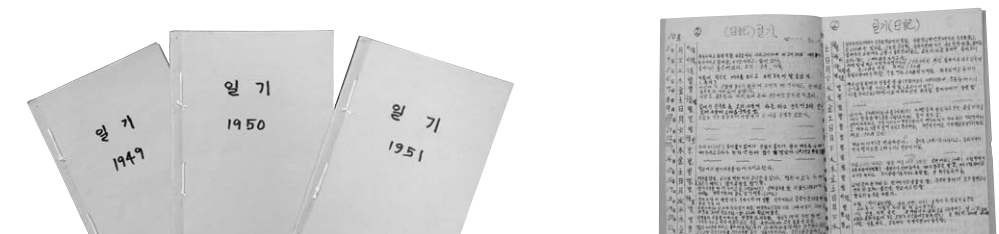
또한 편지를 보내고 보낸 편지의 사본을 별도로 모아두었다. 「편지원안」(1985~1986)은 제자, 동료 교사, 가족 등에게 보낸 편지의 복사본을 묶어 놓은 첩이다. 편지를 쓸 때 항상 먹지(한쪽 또는 양쪽 면

에 검은 칠을 한 얇은 종이)를 이용해 2부를 만들어 원본은 보내고, 복사본은 보관하였던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85년 한 해 동안 48편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 편지원안(1985~1986)

「일기」(1949~2010)는 1949년 9월(진주중학교 1학년)부터 쓰기 시작하였는데, 분량은 매년 1권씩 총 62권이다. 일기는 1949년 9월 14일 '축구시합이 진주운동장에서 열리고 과학전람회가 진주중학교 음악실에서 열림'이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그날 그날의 중요 기사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1968년 4월 8일 일기에는 통영 노대초등학교 순회강사를 시작으로 교직에 몸담게 된 느낌이 적혀 있다. 1999년 8월 31일 일기에는 30년간의 교직을 마감하는 정년퇴임식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30여년의 교직을 마감하고, 내일부터 가정에 임하게 된다. 나로서는 아쉽지 않지만 아이들이 좀 서운하다."라고 퇴임의 소회를 적고 있다.



▶ 일기(1949~2010)

▶ 편지접수(1986~1996)

박연목씨는 「가계부」, 「일기」, 「영농일지」, 「편지원안」 등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간과할 수 있는 일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먼 훗날 내 과거를 돌이켜 볼 수도 있고, 또 그때 무엇을 했는지 참고를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였다. 때문에 박연목씨가 남긴 기록들을 통해 일상의 사연을 담은 기록 하나가 훗날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N**

#### 필자 소개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에서 국가기록전시관 운영 및 특별전 기획·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대한제국의 독도 경영 입증 기록물

# 「울도군 절목」

❖ 유미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울도군수 배계주

### ● 절목이 나오게 된 배경

여기서 소개할 기록물은 1902년 울도군수 배계주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울도군 절목」이다. 절목(節目)이란 업무 담당자 혹은 부서가 구체적으로 시행할 사항이나 절차를 조목별로 적은 것이다. 권농절목, 식목절목, 구황(救荒)절목, 국상(國喪)절목 등의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절목은 내용에 따라 다양하다. 울도군 절목은 중앙 부처의 하나인 내부에서 내각 총리대신 윤용선의 재가를 받아 지방관청 울도군에 내린 일종의 행정지침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에 울릉도를 일개 섬에서 군(郡)으로 격상시키고 군수를 두는 이른바 칙령 제41호를 내린 바 있다. 이때 울도군이 관할하는 구역에는 울릉도는 물론 주변의 섬인 죽도(竹島), 그리고 석도(石島)까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석도는 바로 독도를 말한다. 울릉도 옆에 있는 섬을 따로 ‘죽도’라 명기했기 때문에 석도를 죽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제국 정부가 칙령을 내린 지 2년이 안 되어 다시 이런 구체적인 행정지침을 내린 데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일까? 그 배경에는 울릉도와 주변 도서에 대한 일본의 침탈이 가열되고 있던 상황이 있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 역사는 오래되었다. 멀리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조선 후기에는 이른바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다 일본 어부들에게 끌려간 사건은 양국 정부 차원에서 울릉도를 둘러싼 분규를 일으켜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전으로 비화했다. 1693년에 시작된 이래 2년 여의 정부간 논전 끝에 일본 에도 막부는 1696년 두 섬에 대한 조선의 영유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두 섬에 대한 일본인의 왕래는 일시 단절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단속이 허술한 틈을 타 또다시 울릉도로 와서 어로를 하는 일이 생겼다. 18세기 중반에는 이런 일이 적발되어 운송업자인 이마즈야 하치에몬이 처형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19세기에 들어서면 일본 안에 형성된 정한론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울릉도를 넘보는 세력들이 득세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일본인들은 울릉도를 새로 발견한 섬이라고 하면서 이를 개척하고 싶다는 청원이 일본 메이지정부에 쇄도한다.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일본은 근대국가로 정비해가는 과정에서 영토정비를 위한 지적 편찬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령으로 만들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시마네현은 지적(地籍)에 두 섬을 포함시켜도 좋은지를 내무성에 문의하였다. 내무성은 시마네현이 올린 문서를 검토한 결과 두 섬이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태정관에 요청하였다(1877년 3월 20일).

그 결과 태정관은 “문의한 바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는 본국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내렸다(1877년 3월 29일). 여기서 다케시마는 울릉도를 말하며, 외 일도는 마쓰시마 즉 독도이다. 이는 당시 첨부한 부속 문서로도 입증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이런 조치와는 별개로 한편에서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몰래 들어와 나무를 베고 어로를 하는 일이 잦아졌다.



대한제국의 독도 경영 입증

기록물 「울도군 절목」

1880년대 초기의 상황이었다. 울릉도에서 불법 어로 및 벌목활동을 하던 일본인의 동태는 중앙정부에까지 보고되었고, 보고를 받은 고종도 더 이상 울릉도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1882년 부호군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여 울릉도와 주변 도서에 대한 조사를 명하게 되었으며 이는 울릉도 개척령으로 이어졌다. 1883년 4월부터 본격적인 울릉도 개척단이 들어가기 시작하여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6가구, 54명의 이주민이 섬으로 들어감으로써 본격적인 울릉도 개척이 시작된 것이다. 초기 개척민들은 식량과 양념, 솔단지, 총, 화약 등의 물자와 종자소로 쓸 암소 한 마리의 소까지 데리고 들어가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대장장이와 목수도 함께 들어갔다. 정부는 이들에게 5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배 만드는 일을 허락하여 정착을 도왔으며 도장을 두어 울릉도를 관리하게 했다. 울릉도 개척민들은 1883년부터 190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1902년 단계가 되면 약 3,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 사이 울릉도 관리인의 직함은 몇 번의 변천을 겪는다. 도장이 독직 사건에 휘말리자 평해 군수나 월송포 만호가 울릉도 침사를 겸직하는 상황이 되었다가 전임 도장을 두는 상황이 된다. 전임 도장제 역시 울릉도 치안에 실효가 없자 1895년경에는 도감이 설치되고 울릉도 초기 개척민의 한 사람이었던 배계주가 초대 도감이 되었다. 그리고 이 때가 되면 조선 후기부터 실시되어오던 수토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른다. 배계주는 울릉도 도민으로서 울릉도 현황을 조사하도록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선전관을 돕다가 도감에 차정되었다. 그러나 도감이란 직책은 러시아까지 가세하여 울릉도 목재를 밀반출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월급도 없었음은 물론이고 수하에 부하도 없어 그야말로 고군분투하면서 열강의 울릉도 침탈을 막아야 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배계주는 밀반출된 목재를 찾기 위해 일본 오키와 도쿄 등지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목재를 찾아오는 일에 매진하기도 하여 황성신문(1899년 5월 16일 잡보)이 그의 행적을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를 조사하게 했고 한편으로는 울릉도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의 철수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철수를 약속했던 일본은 돌연 태도를 바꿔 철수하지 않고 버티면서 침탈을 계속하고 있었다. 1899년에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은 수 백 명에 달했다. 중앙에서 파견된 우용정과 울릉도 도감 배계주의 보고서를 접한 조선 정부는 일본인 수백 가구의

행패와 침탈에 대한 기술을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900년 6월에 울릉도를 다녀오고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한 우용정이 울릉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의한 사항은 관계개편이었다. 즉 도감을 군수로 하고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중앙정부의 관제 안에 넣어 관리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1900년 10월 25일의 대한제국 칙령 41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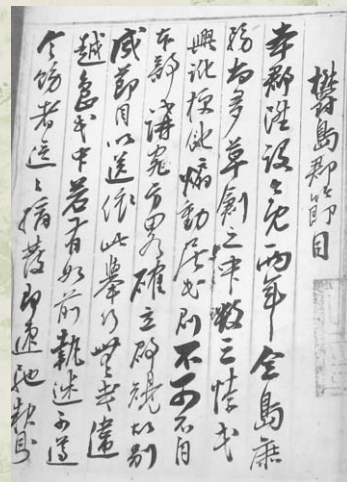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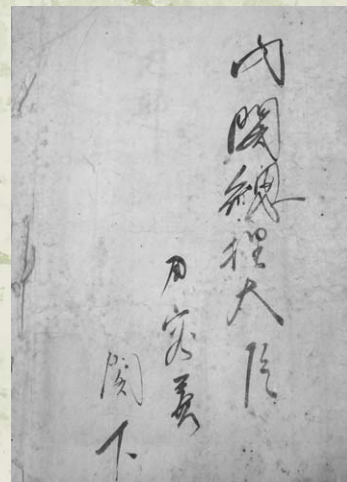
대한제국 정부가 칙령을 내려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배계주를 군수에 서임하여 관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에서의 일본인의 침탈은 근절되지 않았다. 군수 배계주의 보고에 의하면, 500명이 넘는 일본인들이 온 산에 들어가 규목을 베어가고 울릉도민의 벌목을 금하는 적반하장 상황의 계속되고 있으며, 재물까지 빼앗아 도민이 도탄에 빠질 지경이라는 것이다.

또한 토지마저 일본인들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울릉도가 치안 부재의 상황에 놓인데다가 일본에 의한 토지매매 및 불법 경제활동이 성행하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급기야 중앙정부로 하여금 절목을 내려 보내게 만든 것이다. 배계주가 파면되고 잠시 강영우가 군수가 된 적이 있었으나 1902년 3월 4일자 황성신문은 배계주가 다시 울도 군수에 서임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어 절목이 나온 때는 배계주가 군수로 있을 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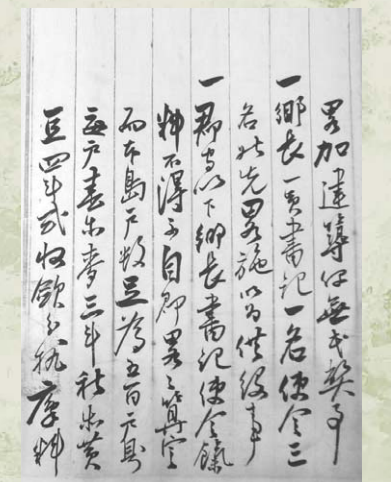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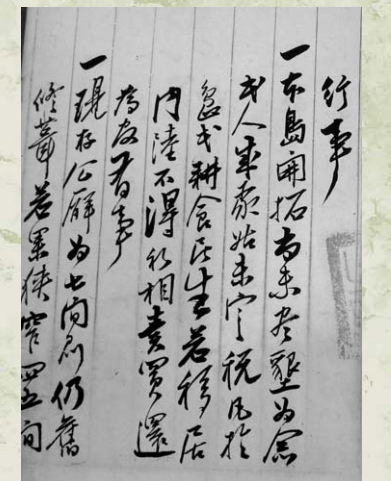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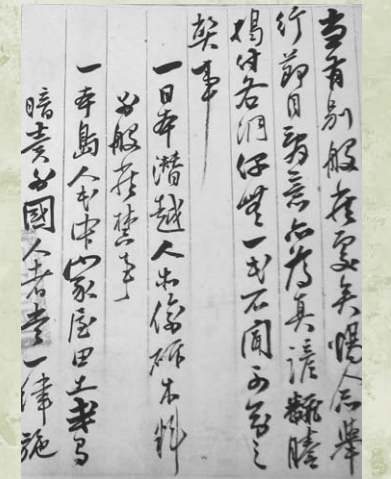
● 절목의 구성 및 내용

울도군 절목은 크게 절목을 낸 목적과 조목, 기타 사항 그리고 후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문은 한문 초서체로 되어 있는데, 본문은 모두 10장이며, 내부 대신의 인장이 찍혀 있고, 내각 총리대신 윤용선 각하라고 쓰여 있어 내부가 총리대신의 결재를 받아 울도군에 내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조목은 ①일본인의 불법 벌목 및 반출에 대한 엄금 ②외국인에게 가옥과 전도 매매 금지 ③개척민 세금 면제, 단 육지로 돌아가는 자의 전담 환수 ④관청 신축으로 인한 민폐 금지 ⑤군수 및 관리에 대한 급료 규정 ⑥상선 및 화물에 대한 징세 ⑦관선(官船) 마련을 위한 대책 ⑧기타 사항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우선 절목의 서두를 보면, 절목을 낸 이유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다. 즉 울도군이 군으로 승격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유언비어가 횡행하여 백성들이 교화되지 않고 기강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절목을 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울도군이 이 절목을 거행하되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엄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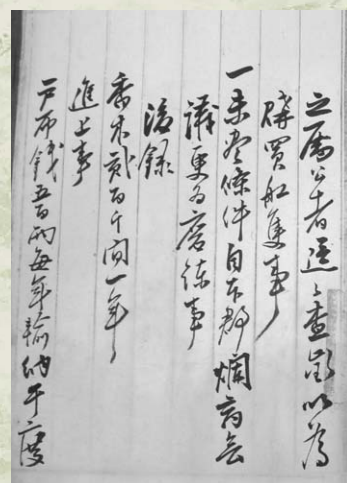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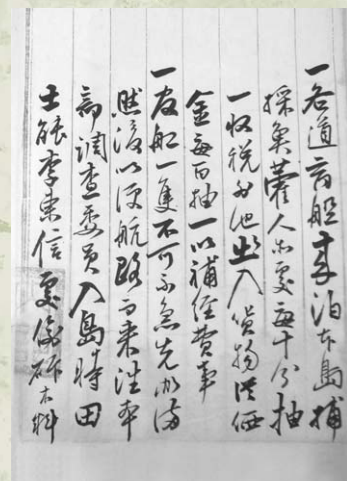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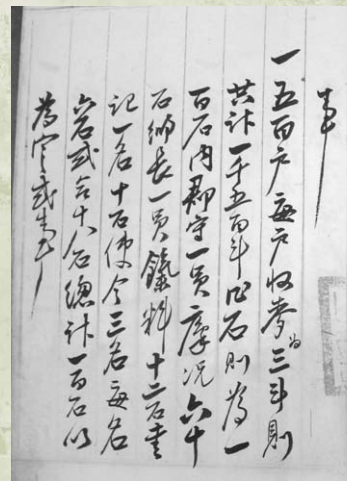


▶ 울도군 절목



대한제국의 독도 경영 입증

기록물 「울도군 절목」



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이 절목을 언문으로도 번역, 각 마을에 게시하여 한 사람도 모르는 일이 없게 하라고 명하고 있다.

이들 조목 가운데 몇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이 있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일본인의 불법 벌목을 엄금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울릉도 도민 중에 가옥과 전토를 외국인에게 몰래 매매하는 자는 일률(一律)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즉 사형에 처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인에 의한 침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세금을 면제해주고 경작지 매매를 금지하며 관청의 신축을 금하고 개수하여 쓰도록 한 조처 등은 개척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조치들이다. 군수를 두었으나 사실상 급료가 없었으므로 봄에는 보리 3말, 가을에는 콩 4말씩을 집집마다 내게 하여 군수와 그 밑의 향장 1명, 서기 1명, 사령 3명의 급료로 지급하게 하는 것도 규정하였다. 당시 울릉도 가호를 대략 500호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각도의 상선(商船)으로서 울릉도에 와서 어채(魚採)하는 사람에게는 10분의 1세, 외지로 출입하는 화물은 물건값에 따라 100분의 1세를 거둬 경비에 보태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나무를 몰래 베어 파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려 그 비용으로 선박을 구입할 것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일본인에 의한 침탈을 막고 울릉도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부록으로 향나무 200근을 1년 간격으로 진상하고, 호포전(戶布錢) 500냥을 매년 탁지부에 납입할 것을 규정한 것 등은 중앙정부의 재정에도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발견의 의미

이상의 내용으로 살펴보면, 「울도군 절목」은 중앙정부가 울릉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처방을 내려주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절목에 '독도'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이 절목은 칙령 41호로 인해 군으로 승격된 울도군의 통치에 필요한 구체적 행정지침으로서 처음 발견된 정부 공문서이다. 칙령 41호에 의하면, 울도군의 관할지역에는 엄연히 석도 즉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칙령 이후 울도군이 실제로 어떻게 통치되었는지는 단편적인 사료에서 언급된 적은 있었지만 이 절목처럼 울도군을 특정하여 지침을 제시해 준 사료는 없었다. 그러므로 이번 절목은 중앙정부에 의한 울도군 관리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차 사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하는 울도 군수에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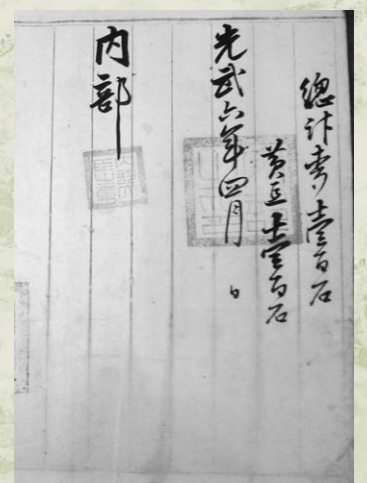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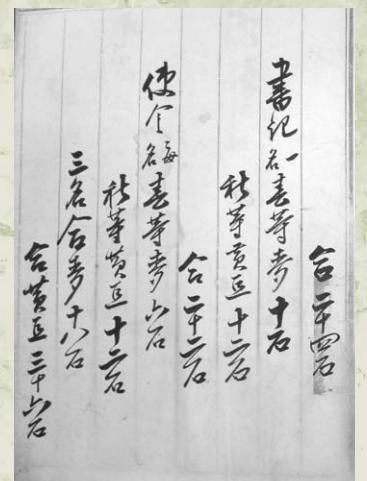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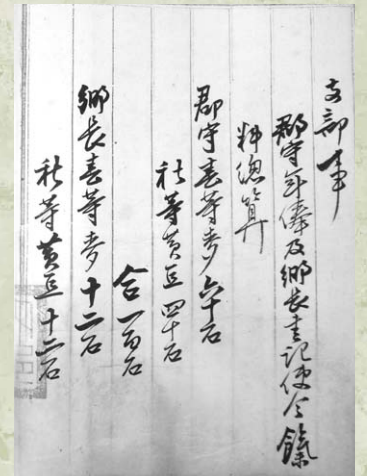
려진 '울도군 절목'은 일본이 독도를 무주지로 편입하기 이전인 1902년 당시 대한제국이 독도를 포함한 울도군의 관할지역을 실효적으로 경영해왔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자료는 울릉군이 배계주의 외증손녀인 이유미씨로부터 2010년 10월 2일 입수하게 되면서 그 존재가 드러났다. 후손의 소장 자료 중에는 절목 뿐만 아니라 배계주 및 그의 장남과 손자의 사진 그리고 배계주의 부모가 받은 교지(敎旨), 1902년 배계주를 군수로 임명한다는 칙명(勅命)도 있다. 그러나 소장자의 말에 의하면, 이 자료는 처음부터 울릉군에 기탁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이미 다른 부서를 전전하다 울릉군으로 보내지고 나서야 이번에 그 내용이 밝혀진 것이라고 한다. 울릉군은 이 자료를 필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자와 기관에도 주었으나 필자에 의해 해독이 서둘러졌던 것 뿐이다. 필자 역시 탈초과정에 다른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야 했듯이, 이 자료는 일반인이 쉽게 알기 어려운 한문 초서로 쓰여 있다. 따라서 이번 자료 공개과정을 보고 느낀 것은 사료 소장자가 손쉽게 기탁할 수 있는 공인된 전문 기관이 있었으면 하는 점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한국고전번역원을 비롯하여 한학 연구기관들이 있다. 또한 국가기록원에서도 정부기록물 뿐만 아니라 주요 기록물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그 역할을 각 지방의 향토문화원이 맡아줄 필요가 있다. 전국에 약 228개의 지방문화원이 있다. 향토사료를 발굴하고 향토문화를 연구·홍보하는 지방문화원이 그 기능과 역할을 자임한다면 주민 누구나 쉽게 문중 자료를 문화원에 기탁하여 소장 자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독도를 둘러싼 한길간 다툼이 아직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더 확고히 할 만한 사료가 더 발굴되기를 기대해 본다. **IV**

필자 소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박사)하였고, 이화여대·향공대 강사 및 민족문화추진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2006년 2월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에서 독도 관련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저술로는 『조선 후기의 정치사상』(2002), 『「울릉도」와 「울릉도 사적」역주 및 관련 기록의 비교연구』(2007), 『개화기 울릉도·독도 관련사료 연구』(2008), 『「독도와 울릉도」번역 및 해제』(2009) 외 다수가 있다.



# 休

## 과거(科擧), 그 문란함

◆ 휴·휴·대·전·대·강·사

### 봄날 새벽의 과거 시험장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작자 미상 「평생도」 중 '소과응시(小科應試)'는 조선시대 과거시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보면, 상단에는 책임 감독관 즉 주시관(主試官) 또는 수시관(首試官)으로 보이는 인물이 관복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으며, 주위에는 시관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중단과 하단에는 천막으로 구분된 안쪽에 시험응시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시험장에는 유건을 쓴 과거시험 응시자인 거자(擧子)들은 햇빛을 막는 일산(日傘) 아래 모여 시험을 보고 있으며, 시험응시자들과 천막 사이에 있는 검은 색의 갓인 흑립을 쓰고 있는 인물들이 서성거리고 있다. 이들은 유건(儒巾)을 쓰지 않은 길로 봐서 시험 응시자라기보다는 진행요원들로 보인다. 그림의 제목과 같이 볼 때, 소과 시험을 보고 있는 중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흡사한 그림이 김홍도(金弘道, 1745~?)의 「봄날 새벽의 과거시험장(貢院春曉)」이 있다. 이 그림에는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제발이 붙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봄날 새벽의 과거시험장, 만 마리의 개미가 전쟁을 치르듯이, 어떤 이는 붓을 멈추고 골똘히 생각하며, 어떤 이는 책을 펴서 살펴보며, 어떤 이는 종이를 펼쳐 붓을 휘두르며, 어떤 이는 서로 만나 짝하여 이야기하며, 어떤 이는 행담(行擔)에 기대어 피곤하여 즐기고 있는데, 등축은 휘황하고 사람들을 왁자지껄하다.



형세가 풍우 같아서 참시관인 경관(京官)은  
눈이 휘둥그래져서 겁을 먹고, 불법을 막아야 하는  
금란관은 머리를 감싸고 숨을 곳을 찾는다

과거시험장의 모습을 만 마리의 개미들이 전쟁을 치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원래 소과는 조선시대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실시한 과거로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 또는 사마시(司馬試)라고도 하였는데, 고려시대 국자감시(國子監試)와 승보시(陞補試)를 계승한 것으로, 진사시는 국자감시·생원시는 승보시를 계승하여 성립된 제도이다. 생원·진사시의 응시 자격은 기본적으로 문과(文科)와 동일하였다. 다만, 기존에 관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응시를 될 수 있으면 제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문과에는 정3품인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만이 응시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생원·진사시에서는 정5품인 통덕랑(通德郎) 이하가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생원·진사시에는 3년에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와 국왕의 즉위와 같은 큰 경사가 있을 때 이를 기념해 실시하는 별시인 증광별시(增廣別試) 등이 있었다.

생원·진사시는 향시와 복시(회시)로 구분된다. 향시는 각 지방에서 뽑았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액수(額數) 향시(鄉試)조에는 문과 초시 합격자의 도별 정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 기록을 참고하면, 성균관(50명)·한성부(40명)·경기(20명)·충청도와 전라도(각 25명)·경상도(30명)·강원도와 평안도(각 15명)·황해도와 영안도(각 10명) 등이었다. 합하면 생원·진사 각 250명씩 500명을 뽑는 것이다. 예조에서 실시하는 복시에서는 생원·진사 각 100명씩 200명을 뽑았다. 즉, 생원과 진사시험의 초시에서는 지역별 인구비례로 합격 인원의 안배를 한 뒤에, 복시(覆試)에서는 시험 성적으로 관리를 뽑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역적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개인의 능력을 적절히 반영하려는 의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생원시는 오경의(五經疑)와 사서의(四書疑)의 제목으로 유교경전에 관한 지식을, 그리고 진사시는 부(賦)와 시(詩)의 제목으로 문예창작의 재능을 각각 시험하였다. 그리하여 합격자에게 생원 또는 진사라고 하는 일종의 학위를 수여하였다. 우리가 TV드라마에서 많이 듣는 '김생원'·'이진사'



▶ 김홍도 <봄날 새벽의 과거시험장>



하는 호칭들이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인 것이다. 한 사람이 같은 해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응시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양시(兩試)에 다 합격한 사람을 쌍중(雙中)·구중(俱中)이라고 하였다. 생원과 진사시는 하나만 합격해도 성균관에 입학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지만, 둘 다 합격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겼다.

이 시험에서 생원과 진사를 각각 100인씩 즉, 200인을 뽑고 이들에게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따라서 합격자 중의 일부 극소수가 생원 또는 진사의 자격으로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관리임용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이 관직을 얻고자 한다면, 성균관에 입학한 이후에 33명의 정식관료를 뽑는 대과(大科) 시험에 합격해야만 했다.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장원급제가 대과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말한다.

### 거벽과 사수가 존재하는 시험장

작자미상의 「소과응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험장과는 느낌이 사뭇 다르다. 상식적으로 시험장이라고 하면 시험응시자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엄숙한 분위기 아래에서 개인 답안지를 작성해야 할 터인데, 이 그림에 보이는 시험응시자들은 일산아래 삼삼오오 모여서 웃는 모습으로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일산을 중심으로 일단의 무리들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답안지 작성을 같이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응시자들의 외형을 보면, 수염이 난 장년의 사내들과 얼굴에 수염이 나지 않는 청년들이 거의 같은 수로 있음을 볼 수 있다. 소과는 성균관 입학시험이므로 평균연령이 그리 높지 않았을 것이다.

즉, 모두 젊을 필요는 없지만, 수염이 난 장년의 사내들의 존재는 이 시험장에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다. 왼편에 모여 있는 무리들 아래쪽에 있는 젊은 시험응시자와 장년의 사내를 보자. 젊은이는 답안지를 펼쳐놓고 있으며, 장년의 사내는 오른 손에 잔을 들고 있다. 그들 앞에는 병이 놓여 있고 잔을 입에 가져가고 있는데 혹 술을



▶ 소과응시, 작자미상

마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장면도 있다.

과연 시험을 보러 온 사람일까. 그림을 좀 더 유심히 보면 붓을 들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염이 난 장년의 사내들임을 알 수 있다. 젊은이들은 이들이 답안지 작성하는 것을 유심히 들여다보고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허립을 쓴 시험 진행요원들도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느라 시험을 감독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기록에 의하면, 응시자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로의 거리를 6척(180cm)로 벌려 앉혀서, 머리를 모으고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대·소변을 보러 갈 때에는 반드시 대간(臺諫)에게 고한 연후에 나가게 하고, 일시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며, 서리(書吏) 등의 잡인(雜人)은 응시자가 앉아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시험이 매우 형식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느낌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시험을 보는 장면으로도 보이는데, 이는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러한 장면과 관련하여 1844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한양가」의 기록을 보자.

집춘문(集春門) 월근문(月觀門)과 통화문(通化門)  
홍화문(弘化門)에  
부문(赴門)을 하는구나 건장한 선접군(先接軍)이  
짜른 도포(道袍) 제쳐 메고 우산에 공석(空席) 싸고  
말뚝이며 말장이며 대로 만든 등(燈)을 들고  
각색 글자 표를 하여 등을 보고 모여 섰다  
밤중에 문을 여니 각색 등이 들어온다  
줄불이 펼쳐는 듯 새벽별이 흐르는 듯  
기세는 백전(白戰)일세 빠르기도 살 같도다  
현재판(懸題板) 밑 설포장(設布場)에 말뚝 박고 우산 치고  
휘장 치고 등을 꿰고 수종군(隨從軍)이 늘어서서  
접(接)마다 지키면서 엄포가 사나올사  
그 외에 약한 선비 장원봉(壯元峰) 기습이며  
궁장(宮牆) 및 생강 밭에 잠복 치고 앉았으니  
등불이 조요(照耀)하니 사월팔일 모양이라

창경궁의 집춘문과 월근문 그리고 통화문을 통해 과거장 안으로 들어가는 부문을 하면서, 과거 응시자들이 선접군을 거느리고 가고 있다. 응시자들은 우산에 앉을 자리 등을 잔뜩 싸 들고 입장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장에 입장 한 후에 과거 시험 문제를 내거는 널빤지인 현재판 밑에 베나 무명으로 만들어진 장막을 치고 말뚝을 박고 우산을 치며 시종들이 다른 응시자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사납게 엄포를 놓고 있다. 같은 접(接)의 사람이 아니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덕분에 세력이 약한 집안이나 지방에서 올라온 선비들은 현재판에서 멀리 떨어진 장원봉의 기습이나 궁의 담장 혹은 생강 밭에 시험 볼 자리를 마련해야만 했다. 자기 무리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행동들을 「한양가」에서는 백전이라 하여 전쟁으로 또는 빠르기가 화살 같이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판 아래가 중시된 것은 답안지를 빨리 내는 이들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그나마 높기 때문이었다. 「한양가」에는 답안지 제출이 백 장이 넘어가면 신기전이 날아가듯이, 흰 눈이 쏟아지듯이 답안지가 한꺼번에 제출되어 언덕이나 피같이 쌓인다고 묘사하고 있기도 하다. 과거답안지는 주관식이다. 따라서 읽어보아야만 점수를 메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언덕이나 산같이 높이 쌓인 글을 다 읽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찍 내야만 적어도 채점 대상이라도 될 수 있었다. 그러니 빨리 내지 않을래야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점들은 저마다 현재판이 잘 보이고 답안지를 내기 편한 자리를 잡기 위해서 힘깨나 쓰는 선접꾼들을 동원했으며, 그 위세 또한 대단했던 듯하다. 과거장에서 시험문제를 빨리 볼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는 모습은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경세유표(經世遺表)」의 기록에서도 찾아진다.

문장에 능숙한 자를 거벽(巨擘)이라 이르고, 글씨에 능숙한 자를 사수(寫手)라 이르고, 자리·우산·남비·가마솥 따위의 기구를 나르는 자를 '수종(隨從)'이라 이르고, 수종 중에 천한 자를 노유(奴儒)라 이르고, 노유 중에 선봉이 된 자를 선접(先接)이라 이르는데, 붉은 빛 짧은 저고리에 고양이 귀 같은 유건(儒巾)을 쓰고서, 혹은 어깨에 대나무창을 메기도 하고 혹은 쇠뿔 동이를 손에 들기도 하며 혹은 짚자리를 가지기도 하고 혹은 평상(平床)을 들기도 하여 노한 눈알이 겉으로 볼거지고 주먹을 어지럽게 옆으로 휘두르고 고향을 지르면서 먼저 오르는데, 뒤면서 앞을 다투어 현재판(懸題板) 밑으로 달려들고 있으니, 만약 중국 사람이 와서 이런 꼴을 본다면 장차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이르게겠는가?

이리하여 부잣집 자식은 입에 아직 비린내가 나고 눈으로는 정자(丁字)를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거벽의 글을 빌리고 사수의 글씨를 빌려서 그 시권을 바친다. 향시가 이 모양이니 경시(京試)도 이와 같을 것이다. 회시를 보기에 미처서는 사람을 사서 대신 들여보내어 짓고 쓰며, 아비를 바꾸고 할아버지를 바꿔서 위문(關門)에 바치는데, 봉미(封彌)를 위조하고 세력 있는 자와 통한다.

문장에 능한 거벽과 글씨에 능한 사수, 그리고 잡일을 도와주는 수종 등이 과거 시험에 동원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나무 창이나 쇠몽둥이를 사용할 정도였음을 말해준다. 수종들 중에는 선접이라 하여 주먹을 써서 현제판이 잘 보이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동원되는 이들도 있음을 말한다. 선접꾼에 대해 우하영(禹夏永, 1741~1812)은 「천일록(千一錄)」에서 “과거 때가 되면, 서울과 시골의 빈둥거리며 놀고먹는 잡된 무리들이 관공이라 핑계를 대고 세력가의 수종이 되기를 스스로 원하여 부문하고 쟁접(爭接)으로 자기를 내세우는 노고와 공로로 삼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약용은 선접꾼이 시험장안에 달려들면, 형세가 풍우 같아서 참서관인 경관(京官)은 눈이 휘둥그래져서 겁을 먹고, 불법을 막아야 하는 금란관은 머리를 감싸고 숨을 곳을 찾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정약용이 사는 시대에는 이 문제가 일상사였음을 알려준다. 이와 동일한 모습이 「백범일지」에도 기록되어 있다.

관풍각(觀風閣) 주위에는 새끼줄로 그물을 엮어 둘러치고 열을 지어 이른바 부문을 한다는 것인데, 선비들이 접마다 흰 베에 산동접(山海接)·석담접(石潭接) 등 그 접의 이름을 써서 장대 끝에 매달고, 저마다 종이 양산을 들고서 도포에 유건을 쓴 모양으로 제 접의 자리를 먼저 잡기 위해 용사들을 선도로 밀려 들고 있었다. 이 대혼잡을 이루는 광경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과정에는 노소 귀천이 없이 무질서한 것이 유풍이라고 한다.

백범 김구가 늙고 어리고 귀하거나 천하거나 하는 사실이 상관없을 정도로 무질서한 과거장의 풍속이 옛날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시 「한양가」를 보자.

어악(御樂)이 일어나며 모대(帽帶)한 환사(宦侍)네가  
어제(御製)를 고이 들고 현제판 임하여서  
홍마삭(紅麻索) 끈을 매어 일시에 올려 다니  
만장중(滿場中) 선비들이 붓을 들고 달아난다

각각 제 접 찾아가서 책행담(冊行擔) 열어놓고  
해제(解題)를 생각하여 풍우(風雨)와 같이 지어내니  
글 하는 거벽(巨擘)들은 귀귀(句句)이 읊어내고  
글씨 쓰는 사수(寫手)들은 시각을 못머문다  
글 글씨 없는 선비 수종군 모양으로  
공석에도 못 앉고도 글 한 장 애걸한다  
부모 선생 권학(勸學)할 제 이런 토심(吐心) 모르던가

임금 앞에서 연주하는 궁중음악이 어악에 맞춰 사모관대를 입은 환관이 임금이 직접 쓴 시험문제를 붉은 색으로 꼬아 만든 홍마삭에 매어 달면 온 시험장 안의 선비들이 현제판 아래서 본 후 재빨리 자신의 패거리들이 있는 접으로 가서 책을 넣어 둔 작은 상자를 열어 여러 책들을 보고 글을 바람과 비와 같이 지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장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시험장 안에 책을 들고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글을 짓는 짓거나 쓰는 인물이 시험응시자가 아니고 거벽과 사수이고 글을 짓거나 글씨를 쓰지 않는 선비들은 접의 시종들처럼 가만히 있다가 글을 달라고 애걸한다는 것이다. 과거 답안지를 기재하는 인물들이 시험응시자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경세유표」에서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리하여 부잣집 자식은 입에 아직 비린내가 나고 눈으로는 정자(丁字)를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거벽의 글을 빌리고 사수의 글씨를 빌려서 그 시권을 바친다. 향시가 이 모양이니 경시(京試)도 이와 같을 것이다. 회시를 보기에 미처서는 사람이 사서 대신 들여보내어 짓고 쓰며, 아비를 바꾸고 할아버지를 바꿔서 위문(闈門)에 바치는데, 봉미(封彌)를 위조하고 세력 있는 자와 통한다.

돈과 세력이 있는 집안의 자식은 글자를 모르더라도 거벽과 사수의 도움을 받아 과거에 합격을 하는 당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돈을 받고 글을 대신 지어주는 인물로 가장 이름이 높았던 사람 중에 하나는 유광억(柳光億)

이었다. 이옥(李錡, 1641~1698)이 지은 「유광억전」을 보면, 그는 받은 돈의 액수에 따라 답안지의 수준을 조절할 정도로 글에 뛰어난 인물이었다.

한 시험에서 1등은 물론이고 2등과 3등의 답안지가 모두 그가 작성한 글이었던 것이다. 유광억은 이 사실이 들통날까봐 자살하고 마는데, 아마도 그는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 없는 신분에 속한 인물로 글공부 한 것을 이렇게 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 외에 「정조실록(正祖實錄)」 정조 원년(1777) 정월 병신 조를 보면, 서울의 고봉환(高鳳煥), 송도(松都)의 이환룡(李煥龍), 호남(湖南)의 이행휘(李行輝), 호서(湖西)의 노궁(盧兢) 등이 그 당시 유명한 거벽으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정조실록」 정조 4년(1780) 5월 기축조를 보면, 서울의 변화한 집 자제는 시골의 글을 잘하는 자를 데려다가 혹 ‘거벽’이라 부르기도 하고 ‘유모(乳母)’라 부르기도 하는데, 또 다시 연줄을 대고 부정한 길로 몰래 뽐히기를 꾀하며 부끄러운 줄 모르며, 십수년 이래로 재상집 자제는 글을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 오래 되었다는 서술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만큼 과거 제도가 문란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국대전」의 예전 잡령(雜令)조를 보면, 시험장에 책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글을 쓰는 행위나 남을 대신하여 글을 지어주는 행위는 2식년(6년)의 과거응시를 금지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없어지지 않은 듯 하다. 심수경(沈守慶, 1516~1599)의 「견한잡록(遣閑雜錄)」에는 남이 대신 글을 지어주는 대작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과정에서 남의 손을 빌려 글을 짓는 것은 금법(禁法)이 매우 엄격하나, 명예와 이익을 좋아하고 파렴치한 무리들은 도도하게 범하여 선비의 기풍을 불미스럽게 하였다. 알성(謁聖)이 있은 후에 제술(製述)로 인재를 취하는 것이 조종조(祖宗朝) 이후에 점차로 잦아져 급작스레 요란하게 되자, 뽑는 것이 정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의 손을 빌려 글을 지어 합격하는 자가 또한 많았다. 명종 때에 외척권신(外戚權臣)의 아들인 이정빈(李廷賓)은 과거 공부도 하지 않고서 표절로 장원을 하고, 빛나고 중요한 벼슬을 역임하였으므로 사회 여론이 일어나 마침내 삭직(削職)을 당하였고, 같은 때에 또 여계선(呂繼先)이란 자는 문사 차천로(車天輅)가 글을 대신 지어주어서 장원을 하였는데, 일이 탄로되어 국문을 당하고 또한 과거에서도 삭제되었으니, 국가의 수치가 어찌하리오.



▶ 강경-치경금제하는 모양(김춘근)



과거 시험장에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 글을 짓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으며, 외척권신의 자제라도 삭직을 당할 정도로 엄격하게 대응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앞서 언급대로 조선 후기 어느 시기부터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과거의 문란상은 순조(純祖)대에도 이어졌는데, 이 점은 「백범일지」에도 기록되어 있다.

우리 집에 와서 보니 선생과 접장들이 작자(作者)·작서자(作書者) 등을 쓰고 있었다. 나는 선생님에게 늙은 선비들이 결과하는 모양들을 말하고 이렇게 청했다.

“이번에 제 이름으로 말고 제 부친의 명의로 과지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은 내 말에 감탄하시며 쾌락했고, 접장 한 분이 또 찬성 해주셨다.

“그럴 일이다. 네가 글씨가 나만은 못할 터이니 너의 부친의 명지는 내가 써주마. 후일 네 과거는 더 공부하여 네가 짓고 쓰고 하여라”

“네 고맙습니다.”

나는 고개 숙여 인사를 올렸다.

이날은 아버님의 이름으로 과지를 작성하여 새끼그물 사이로 시관을 향해 들여보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듣고 있었다. 시관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은 자가 있는가 하면, 시관에게는 보지도 않고 과지 한 아름을 도둑질해간 통인 놈들도 있었다. 또 과장에서 글을 짓고 쓸 때에는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도 들었다.

이유는 글을 지을 줄 모르는 자가 남의 글을 보고 가서 자기의 글로 써서 들인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괴이한 말도 들었다. 돈만 많으면 과거도 할 수 있고, 벼슬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을 모르는 부자들이 큰 선비의 글을 몇백 냥, 몇천 냥씩 주고 사서 진사도 하고 급제도 한다는 것이 아닌가. 어디 그 뿐인가. 이번 시관은 누군가인가에서부터, 서울 아무 대신이 편지를 내려보냈으니 틀림없이 된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개는 시관의 수청기생에게 주단 몇 필을 선사했으니 이번에 꼭 급제를 한다고 장담하는 자도 있었다.

백범 김구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과거답안지를 작성하여 시관에게 들여보냈을 정도인 것이다. 과거 시험이

시험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었음은 답안지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돈에 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된다.

어느 사회나 그렇듯이 우리 조상들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실제로 부정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동원하였다. 현재도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법 중의 하나인 예상 답안지를 미리 만들어 간다거나, 책을 가져다놓고 베끼는 수법도 사용되었으며, 다른 사람의 시험지와 바꿔치기를 한다거나, 채점자와 짜고 점수를 조작하기도 한 것이다. 이외에도 아예 합격자와 비합격자의 이름을 바꿔치기도 하는 경우 등도 있었다.

그렇다면, 타인이 대작해주는 것과 같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면서도라도 과거에 합격하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조선시대는 어느 집안이나 지역의 품격(品格)을 논할 때는 그 집안 또는 지역에서 배출된 홍패(紅牌)와 백패(白牌)의 수가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홍패는 대과 급제자에게, 백패는 소과에 합격한 이들에게 주는 합격증인데, 그 홍패 속에는 일반적으로 무과 홍패는 들어가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 전체를 통해서 한 해 평균 100인이 못 되는 문과합격자들의 사회적 위상은 오늘날 일반인들이 고시합격생을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보다도 훨씬 높았던 것이다. 과거 합격에 대한 당시의 위상은 「백범일지」의 다음 기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또 가관인 것은 늙은 선비들의 결과라는 것인데 관풍각을 향해 새끼그물에 머리들을 들이밀고 큰 소리로 외쳐대는 것이다. “소생은 성명이 아무개이옵는데, 먼 시골에 거행하면서 과시마다 내 참가하였던 바 금년 나이 70도 훨씬 넘었사오니 다음에는 참과하지 못하겠습니다. 초시라도 한번 급격이 되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고함을 질러대고 또 어떤 이는 목놓아 울어대는 것이다. 그 모습은 비루해 보이기도 하고 가련해 보이기도 했다.

70살이 훨씬 넘은 노인들이 과거에 합격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생원·진사에 급제할 당시의 평균연령은 15세기에는 25.72세였으나, 후기로 갈수록 높아져 19세기에는 37.81세로 평균 34.56세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70세가 넘은 노인이 새끼로 친 그물에 머리를 들이밀며 과거를 구걸하는 결과의 장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문과 합격자 1만5151명 중 최연소 합격자는 만15세로 고종3년(1866)에 붙은 이진창(李建昌, 1852~1898)이었으며, 최고령 합격자는 만85세로 고종 27년(1890)에 붙은 정순교(丁洵敎)였다. 정순교가 15세경부터 과거시험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70여년을 과거 공부에 매진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70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하는 조선시대에 85세의 노인이 실제로 관직에 나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응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과거 합격이 갖는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점은 부안 김씨로서 우반동(愚磻洞)에 거주한 일명 ‘우반동 김씨’의 고문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네가……나이 겨우 18세에 그 높고 높은 사마 시험에 합격하였으니 (이는) 비단 우리 한 집안의 영광에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선영에 제사를 드리고 여러 친족이 모두 모여 경사스러운 자리에 빙 둘러 앉았으니 영광스러움이 이보다 클 수 없다. 이에 축하하는 뜻으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계집종 검지의 일소생 계집종 금개……등을 영영 별급하노니……

우반 김씨 김홍원(金弘遠, 1571~1645)이 어린 나이인 18세에 소과인 진사시에 합격하자, 그의 할아버지인 김개(金澗)가 진사 합격을 축하하며 노비를 나눠 준 글의 내용이다. ‘높고 높은 사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과거 합격이 조상에 제사를 지내고 또한 친족들이 축하를 해 주는 영광이 매우 컸음을 말해준다.

3년 후에 김홍원은 다시 문과 초시에 합격하였다. 이에 아버지 김경순(金景順)은 약간의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분재문서를 남겼는데, 내용을 보자.

내가 늘그막에 너를 낳아 날마다 (어서 빨리) 장성하기를 바랐는데 너는 입학하던 초기부터 책임을 게을리 하지 않더니 네 나이 18세에 드디어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이는) 쇠잔한 우리 가문의 큰 경사로 늙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한량없이 기쁘다.

네가 집으로 돌아오던 날에 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몇 명의 노비를 특별히 주셨으며 너의 아비인 나도 (도문연을 여는) 경사스러운 잔치 날에 너에게 특별히 재산을 주려고 계획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집안에 병환이 연이어 생겨 연회를 끝내 열지 못하였으니 통탄스럽고 또 통탄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번에 (또) 별시 문과 초시에 합격하였으니 사랑스러운 마음을 이길 수가 없다.

김경순이 그의 아들인 김홍원이 어린 나이에 18세에 소과에 합격하고 3년 후에 문과 초시에 합격한 것에 대해 약간의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남긴 분재문서에 있는 글의 내용인데, 쇠잔한 부안 김씨 가문의 경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부정한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합격하려는 의도치 않은 결과까지 낳은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인가 보다. **IN**

이 글은 필자의 「옛 그림속 양반의 한평생」(돌베개, 2010)에서 내용 일부를 발췌, 보완한 것입니다.



**필자 소개**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역사학도로서 전통 무예, 애니메이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옛 그림에서 만난 우리 무예 풍속사」,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사」, 「옛 그림 속 양반의 한평생」 등을 저술하였다.

# \* 국가기록원 소식

## 2011년도 국가기록원, 중점 5대 분야 20대 과제 추진

국가기록원은 새해 사자성어로 둔필승총(鈍筆勝聰, 무딘 기록이 총명한 기억보다 낫다)을 선정하고, 기록물 관리를 위한 5대 분야 2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20일 발표한 5대 분야 20대 과제는 ▲공공기관 이전 대책 수립 ▲기록물 체계적 수집·보존 기반 확충 ▲이용자 중심 콘텐츠 개발 및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 ▲기록관리 분야의 국내외 소통 강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기록원은 세종시 등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세종시 이전기관과 혁신도시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 멸실방지, 안전 이송·재배치 등을 중점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기록관 기본 설계에 착수하고 중간기록관 리시설 공사 착공 등 기록보존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 28만권을 선별해 수집하는 한편, 차세대 기록관리를 위한 연구·개발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 밖에 온라인 열람신청서비스 확대, 스마트폰 등에 기반한 국가기록 모바일 서비스 체계 구축, 2016년 ICA(국제기록관리협의회) 총회 유치,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기록문화탐방 및 초청견학 실시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국가기록원 천안함 훼손기록물 복원



국가기록원은 해군측 요청으로 천안함 잔해에서 인양된 해침(海沈) 기록물을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약 4개월간 성남 나라기록관의 첨단장비로 복원하였다. 복원된 기록물은 1월 31일 성남 나라기록관에서 개최된 전달식을 통해 해군 역사기록관리단에 인계되었다. 천안함 잔해를 인양하여 수거한 기록물은 약 2.5톤 분량으로 바닷물, 기름, 땀 등에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이 중에서 국기와 천안함기, 장병들의 복무카드, 편지 등 해군이 요청한 총 92점을 복원했다. 특히, 이번에 복원된 천안함 용사 27명의 복무카드에는 개인별 사진, 출생지, 입대 및 임관일시, 근무경력, 교육, 상훈, 입대전 경력 및 가족사항 등과 표창장, 자격증, 체력검정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희생장병들의 넋을 기릴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역사기록이라 하겠다. 해군측에 인계된 기록물은 평택의 해군 2함대 사령부에 건립중인 '안보전시관'에 전시되어 금년 중에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 기록문화 체험교실 운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과 대통령기록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록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1월 18일~21일(4회)까지 '2011년 겨울 기록문화 체험교실'을 개설·운영하였다. 이번 체험교실은 「옛날에는 어떻게 기록을 남겼을까?」

라는 주제로 역사 속 기록매체의 변천 과정에 관한 특강을 듣고, 천 년 전부터 주요 기록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던 "죽간"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기록관리 전통과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참가들은 역대 대통령의 문서를 보존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서고와 종이기록물의 종합병원인 복원실 등 기록물 관리현장을 견학하고 국새 및 역대대통령 수결 찍기, 팔만대장경 인쇄, 역대 대통령 사진 모형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 등 다양한 기록문화를 체험하였다.



## 세계 최초 광디스크 보존수명 연장기술 개발

국가기록원은 전자정부에서 생산되는 각종 전자기록을 장기보존할 광디스크(Optical Disc)의 보존수명 연장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2008년부터 연구개발사업(R&D)을 추진하면서 그 동안 수집한 국내 및 국외에서 생산된 각종 광디스크의 열화상태 분석, 여러 발생원 등을 분석하고 2010년도에는 그 원인 규명과 이를 극복할 신기술 개발을 삼성전자 TSST Korea(Toshiba Samsung Storage Technology Korea Corporation)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현재 DVD와 같은 광디스크 보존수명은 통상 20~3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개발된 신기술은 디지털정보의 장기보존이 필요한 정부 및 투자기관 등의 기록관과 각급 도서관 등의 전자기록 보존매체 관리의 비용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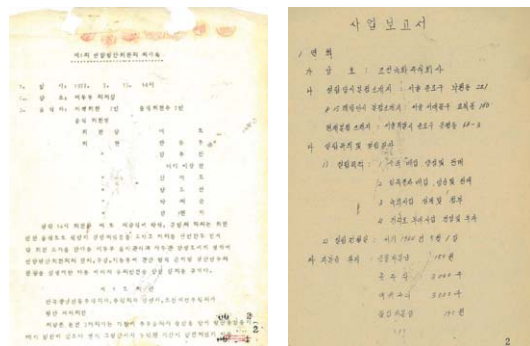
## 'G20 세대'를 위한 대통령기록 콘텐츠 서비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외교 기록전' DVD를 제작하였다. 「정상외교 기록전 DVD」는 지난 전시회(기간 : '10.11.2 ~11.12, 장소 : 청와대 사랑채)에 학생들의 참여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전시 관람의 기회를 아쉽게 놓친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도서, 벽지 등의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였다. 「정상외교 기록전 DVD」는 전시내용을 3D로 구현하여 현장감을 살리면서 초등학생들도 쉽고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아바타 캐릭터가 전시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직접적인 전시관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시기획 의도, 배경 등에 관한 안내 설명문을 수록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 국가기록원 소식

## 기록물 107만여 건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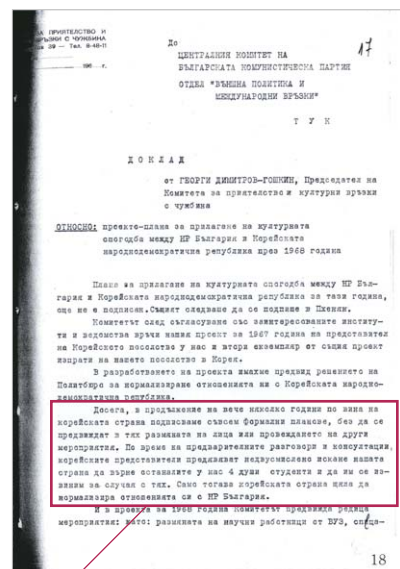
국가기록원은 소장 중인 비공개 기록물을 재분류하여 107만여 건을 공개하고 1월 24일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 및 나라기록포털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지금까지 비공개 기록물 1,190만여 건을 공개한 바 있으며, 공개된 기록물은 열람 제공, 기록목록 서비스, 콘텐츠화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가공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기록물 공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의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공개원칙을 적용하여 1980년 이전 생산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재분류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장기간 비공개로 유지된 30년 경과 기록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면 개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식별정보 등 최소한의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이번 공개되는 주요 기록물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본인 소유재산

등의 처분과정을 보여주는 ▲귀속재산 매각·매수·대부 기록물 ▲국가 귀속 청산법인의 청산종결 결산기록 및 연합청산위원회의사록 ▲1970년대 농업종합개발사업 및 간척사업 기록 ▲1931년에서 1980년까지 강릉·울릉도 축후소의 지상기상관측자장 기록 등이다.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기록물 재분류를 통해 비공개사유가 소멸된 기록물은 적극 공개해 나갈 방침이다.

## 불가리아 소재 북한관련 비밀해제 기록물 최초 수집



「북한 유학생 망명과 북·불가리아 관계 단절」(불가리아 외무부 내부 보고문서, 1968)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 북한 정부의 잘못으로 단지 형식적인 교류만 서명되어졌으며, 인적교류나 문화행사 교류는 전혀 없었다. 사전 대화와 조율 과정에서, 북한 대표자들은 우리정부가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4명의 북한 유학생들을 돌려보내주어야 하며, 이런 불미스런 일에 대하여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다. 이것이 이행되어야만 북한은 불가리아와의 관계를 정상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기록원은 최근 비밀해제된 불가리아 국립문서보존소 소장 북한관련 기록물을 최초로 수집했다. 최근 국가기록원이 수집한 해외기록물은 ▲1950~70년대 북한주재 불가리아대사관에서 생산한 문서 ▲불가리아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불가리아외무부로 발송한 문서류 등 총2,000여 매이다. 최근 불가리아 국립문서보존소가 비밀해제함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본격 수집한 것이다. 이들 기록물은 북한과 불가리아 관계사만이 아니라, 남북한 관계사, 1950~70년대 북한사회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앞으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해외기록물 수집에 적극 나서고, 수집대상도 동유럽·사할린 등으로 더욱 다원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유학생·교수 등을 현지 조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외기록물 조사 및 수집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수집한 기록물은 주제별로 시사회·세미나를 개최하고, 각국의 국가기록원과 공동으로 자료집 등을 발간할 예정이다.

## 1월 「이달의 기록」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관련 기록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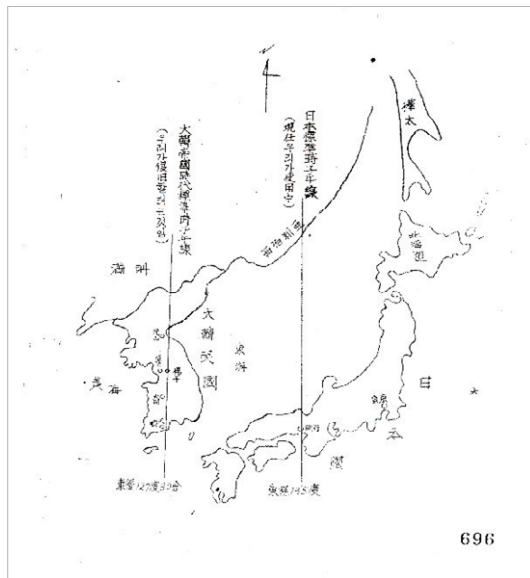


1962년 1월 발표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관련 기록물을 1월 「이달의 기록」으로 선정, 1월 3일부터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번에 제공된 기록물은 문서 7건, 간행물 3건, 시청각 12건 등 총 22건이다. 6.25 전쟁 이후 우리

나라의 경제는 2차산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4.7%의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정치정세의 변동과 성장과정에서의 내재적 불균형이 도출됨으로써, 1957년 이후에는 경제성장을 저하와 인플레이션 만연으로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경제개발계획의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5.16 군사정부는 장면 정부 시절 마련된 안을 바탕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1962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961년 10월 경제기획원에서 마련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사회·경제적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의 달성을 위한 기반을 조속히 구축함」을 기본목표로 하고, 다음과 같이 5대 기본방침을 설정하였다. 1967년 3월 발간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동 계획 기간 중 경제성장률 8.5%, 인구증가율 2.75%, 투자를 11.5%, 국민저축률 6.1%, 해외저축률 8.8%를 달성하였다. 자립경제를 이룩하여 온 겨레가 '보다 잘 살게 될 내일'을 건설하기 위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도약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국가기록원은 '07. 6월부터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 및 관련 기록물을 선정·정리하여 「나라기록포털」을 통해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동안 총 43회에 걸쳐 이승만라인 선언, 광주학생운동, 야간통행금지 해제 등 관련 주제 및 기록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 국가기록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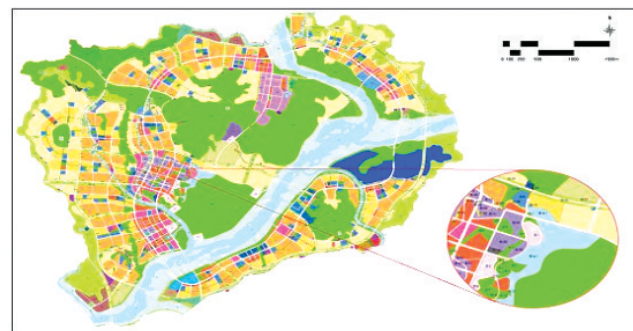
## 3월 「이달의 기록」 '한국 표준시 변경' 관련 기록물 선정



국가기록원은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한국 표준시 변경'(1954년) 관련 기록물을 3월 「이달의 기록」으로 선정하고 3월 2일부터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번에 제공된 기록물은 문서기록 총 7건으로 ▶표준 시간 복구에 관한 이유서, 표준자오선 변경에 관한 건 ▶한국 표준시간 변경에 관한 건 ▶표준자오선 변경에 관한 법률 공포의 건(안) 등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대한제국기 이래로 동경 127.5도(서울 기준)와 동경 135도(일본 아카시(明石市) 기준)를 번갈아가며 4차례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동경 135도(세계표준시에 9시간 더함)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1954년 3월 문교부에서는 “당시 표준시인 동경 135도를 대한제국기의 표준시인 동경 127.5도로 복구하자”는 내용의 「표준시간 복구문제에 관한 이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해당 이유서에 따르면, 동경 135도 기준은 “일광절약시간(Summer Time) 30분을 잃어버리는 폐단이 있고, 실제 한국지방의 시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동경 127.5도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1954년 3월 17일자 관보에 게재된 「표준자오선 변경에 관한 건」에 따라, 1954년 3월 21일 오전 0시 30분부터 표준자오선이 동경 127.5도로 결정되었다. 1954년의 표준시 변경은 일제강점기 이래 일본과 동일하게 사용해왔던 표준시간(동경 135도)을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서울 기준(동경 127.5도)으로 환원했던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통합 대통령기록관 건립 본격화



〈대통령기록관 건립 예정 부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현재 입주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의 나라기록관에서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지향하며 건설중인 세종시로 이전될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세종시 중심행정타운 문화시설용지 28,000㎡의 부지에 연면적 25,000㎡의 규모의 단독청사로 총 1,111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될 예정으로, 2014년 하반기 새로운 탄생을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월 14일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통해 대통령기록관 건립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새로 건립되는 대통령기록관은 최적의 기록물 보존·활용 환경 조성을 통한 첨단 아카이브는 물론,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특화된 콘텐츠를 소재로 민주주의와 대통령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전시·열람·교육하는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설계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Dynamic Archive',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Green Archive',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Digital Archive'의 세가지 설계목표가 제시된 이번 설계공모는 작품접수 및 심사를 거쳐 그 결과가 4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기록관은 건립추진전담반(TF)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광주기록정보센터 개소



국가기록원은 3월 10일부터 호남권 기관·민원인의 기록물 열람 편의와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 광주합동청사에 광주기록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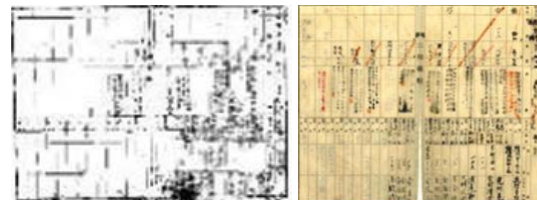
광주기록정보센터는 기록관리 상담과 정보공개청구 접수, 사본 발급, 국가중요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기록원 내부 시스템인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CAMS)을 통한 기록물 열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그간 광주·전북·전남지역 기관·민원인들은 기록물 열람을 위해 멀리서 서울·대전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광주기록정보센터 개소로 국가기록원의 기록정보센터는 서울(서울기록정보센터)과 성남(나라기록관),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부산(역사기록관)을 포함해 5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광주기록정보센터 개소로 광주·전북·전남 지역의 기관이나 민원인들은 기록물 열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전국적인 기록물 열람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더욱더 편리하고 신속한 기록물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 국내기록관리 소식

## 구 토지대장 국가DB 구축

국토해양부는 IT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올해부터 5년 계획으로 약 1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 토지대장인 부책식대장 820만면의 칼라DB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자원의 영구보전과 국민의 편리한 온라인 조화가 가능하도록 행정정보DB표준화 지침을 적용한 색인구조의 통일, 전국데이터의 통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토지대장 국가DB 구축 추진으로 재난·재해 시 과거 공부 소실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DB 활용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흑백스캔

컬러스캔

## 서귀포시 '내 고장 역사찾기'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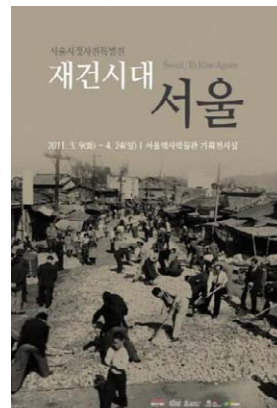
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내 고장 역사찾기' 사업을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탐라기록관리소와 협력해 제주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과정이 담긴 기록물을 조사해 수집하고 안전한 보존관리 대책을 수립·보존할 계획이다.

주요 수집대상은 전근대기록물, 개인소장 근·현대기록물, 관혼상제 등 개인 생활사 자료, 각종 사회단체의

근·현대기록물 등으로 제주 지역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모든 기록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서귀포시는 지난 2009년 중문, 대정, 표선지역 일대에서 179건의 기록물을 수집했으며, 올해 동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시정 사진 특별전 개최 - 재건시대 서울, 1957~1963

서울역사박물관이 3월 9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서울시정 사진 특별전-재건시대 서울, 1957~1963'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6·25전쟁 이후 서울의 재건 과정과 함께 당시에 있었던 주요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1957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시청 공보실이 촬영한 사진 58만점을 정리해 '서울시정사진총서'를 발간하고 특별전을 열어 시민들에게 공개한 것이다. 전시회는 평일(월요일 휴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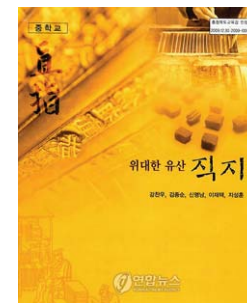


1960년 서독 서커스단 내한 공연 모습



1961년 장티푸스 가두 예방 접종 모습

## '위대한 유산, 직지(直指)' 충북도내 재량교과목으로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直指)'가 충북도내 재량교과목으로 채택돼 도내 9개 중학교 학생들과 만난다. 충북 청주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가 도내 중학교 재량교과목으로 개설됨에 따라 '위대한 유산, 직지' 교과서 2,200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 교과서는 학생

의 눈높이를 고려해 집필진에 현직 중학교 교사가 참여했으며 박물관의 철저한 자문과 고증, 감수를 거쳐 제작됐다.

청주시는 지난해부터 청주 송절중학교에서 3년간 의무 교육을 한 후 도내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올해는 9개의 중학교에서 직지를 교육한다. 직지는 초등학교 5학년 '읽기' 교과서에 직지와 고인쇄박물관 관련 내용이 수록돼 매년 전국 70여만명의 5학년 학생들이 직지를 배우고 있다.

출처-충청매일 2011. 3. 8

## 일제강점기 부·울·경지역 노조활동 항일기록 발굴

일제강점기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치열한 항일운동을 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32명의 항일기록이 발굴됐다. 정재상 하동독립운동연구소장은 1930년대 부·울·경 일대에서 노조를 설립하고, 독립운동을 펼친 하동 출신 김계영씨와 동생 태영·두영 씨 3형제 등 당시 노조간부 32명의 항일기록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아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했다.

서훈이 신청된 유공자는 일제강점기 '조선재건실동맹' 노조간부 10명과 '경남 산업노동조합 협의회' 9명, '경남 교육노동조합 협의회' 13명이다. 조선재건동맹 경남집행위원장 김계영(1902~1950)씨는 하동군 하동을 두곡리 출신으로, 1928년 시대일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하동청년'이란 잡지에 독립과 민족의식 고취에 관한 글을 실어 일본경찰에 체포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어 1931년 경남지역 조선재건실동맹을 조직, 독립운동을 벌였고 다시 체포돼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동생 태영(1907~1974)씨는 경남산업노동조합협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을 맡아 항일투쟁을 주도하다가 1937년 검거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두영(1910~1950)씨는 1933년 3월 부산에서 비밀결사조직인 경남교육노동조합 협의회를 결성하고 학생들에게 민족교육을 시행하는 등 항일운동을 하다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 소장은 이응규, 이상조, 이상선, 김홍규, 이오판 등



김계영을 비롯한 10명에 관한 재판기록. (1933년 4월 20일 판결)

# \* 국내기록관리 소식

부·울·경 지역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항일투쟁을 한 29명의 미발굴 기록도 찾아내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했다.

출처- 부산일보 2011. 2. 25

## 제5대 국새 모형 확정

· 제5대 국새 모형 당선작



인뉴



인문

행정안전부는 국새모형심사위원회 심사 및 국새제작 위원회 추인을 거쳐 2월 24일 제5대 국새 모형을 확정했다.

제5대 국새 모형 공모 결과 인뉴(印紐·손잡이)부문은 전통금속 공예가 한상대씨의 작품, 인문(印文·새겨진 글자)부문은 서예전각가 권창륜씨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각 당선작은 봉황의 자세와 날개·꼬리부분을 역동감 있게 조각하여, 힘 있고 단정하면서도 웅건한 봉황의 느낌을 충실히 표현했고 훈민정음체의 서체를 가장 잘 표현했으며 전체적으로 글씨가 잘 조화되고 품격 있는 작품이라는 심사평을 받았다. 제5대 국새는 4월에 제작에 들어가 철저한 감리를 거쳐 8월까지 국새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다.

## 군산시 중요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 완성

군산시는 1월 18일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행정 정보 공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총 3년에 걸친 연구, 준연구 등 중요기록물의 DB(데이터 베이스)구축 및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에 완료한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은 그동안 종이로 보관됐던 2003년 이전에 생산된 영구, 준연구 등 주요 종이기록물의 서류와 도면 등 이미지를 스캔, 저장하고 색인목록을 DB화했다.

DB화 작업과정은 목록을 조사해 대상기록물을 선별, 분류 및 정리, 정비한 다음 페이지 부여, 색인목록 작성, 원본 종이기록물 스캐닝, 이미지 보정, 기록관리시스템에 이미지 등록한 다음 재 편집 및 서가 배치 등 총 8가지 공정을 거쳤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차에 걸쳐 총 3만5269권 382만 7376면(목표대비 103%)의 중요기록물을 DB를 구축을 완료했으며 이 자료는 2009년도에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물의 검색, 출력 등 중요기록물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군산시가 기록물에 대한 신속한 자료검색 및 활용체제를 구축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는 물론 시민의 알권리가 더욱 충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전라일보 2011. 2. 18

## “한국영상자료원, 온라인 무료기획전 한국영화 기네스 열전 개최”

한국영상자료원(원장 이병훈)은 2011년 3월 한달 간 온라인 VOD 사이트(www.kmdb.or.kr/vod)를 통해 한국영화사에서 “최고”, “최초” 혹은 “최다”를 기록한 한국영화 8편을 무료 상영하는 기획전 “한국영화 기네스



열전”을 개최했다. 이번 기획전은 최초의 키스씬이 등장하는 한형모 감독의 1954년작 <운명의 손>을 비롯, 최초의 해외영화제 수상작 <시집가는 날>, 대중상 최다 수상작 <빠꾸기도 밤에 우는가>, 최초로 본격적인 특수효과를 사용한 작품 <대괴수 용가리> 등 한국영화 역사에 기록으로 남은 작품 8편을 상영했다.

- 운명의 손 (1954, 한형모) 최초의 키스씬
- 시집가는 날 (1956, 이병일) 최초의 해외영화제 수상작
- 성춘향 (1961, 신상옥) 가장 많이 영화화된 소재
- 대괴수 용가리 (1967, 김기덕) 특수효과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영화
- 겨울여자 (1977, 김호선) 가장 오래동안 유지되었던 흥행기록
- 빠꾸기도 밤에 우는가 (1980, 정진우) 대중상 최다 수상작
- 애마부인 (1982, 정인엽) 최초의 심야영화, 최다 시리즈 제작영화
-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1995, 박광수) 가장 많은 이름이 실린 엔딩크레딧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기록화 가이드북 및 DVD 발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영원)는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영상 기록과 아카이브 관리를 위해 「무형문화재 기록화 가이드북 및 DVD」를 발간했다. 이 책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그간 추진해 온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록화 작업의 전반적인 진행절차, 기록범위, 기록방법, 아카이브 관리 등을 수록한 무형문화재 기록화의 안내서이자 지침서이다.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은 무형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진

행되어야 할 과제로 ‘무형유산의 기록’을 권고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현재 국내 시도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기록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무형문화재 기록화 가이드북」이 이러한 국내외의 무형 문화재 기록화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nrich.go.kr)를 통해 원문 및 영상물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무형문화재 기록화 가이드북 영문버전」을 발간해 국외 관련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 한글 사랑으로 꽃피우는 기증



백여 년이 된 한글 고소설과 대한제국기 발행 교육 교재인 「유년필독석의」등 한글 귀중본이 한글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3월 4일 제1차 한글 박물관 자료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글 자료 474점을 수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자료수증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전개된 한글 박물관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대국민 기증·기탁 운동을 통해 수집된 기증

# \* 국내기록관리 소식



자료 474점에 대한 수증 여부를 결정하고 기증자 예우와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일이 앞으로 국민들의 한글 자료 기증을 활성화시키고 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많은 한글 자료를 기증한 사람은 서수열씨(78세, 광주 광역시)로 그가 평생 수집한 고소설 「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 「장끼전」, 「춘외춘」, 교육 지침서인 「유년필독석의」 등 국내에 몇 남지 않은 희귀 자료와 일제시대 및 미군정 시절에 발간된 「조선어 독본」(1~7권), 「조선말 큰사전」 초간본(1947년) 등 전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자료 365점을 기증하였다.

그 외에도 한글운동가 이봉원씨(65세, 안양시)가 한글운동 관련 회보, 요람, 펜던트 등을 기증하는 등 10명의 소장자들이 평생 수집한 귀중한 자료 총 474점을 기증하였다.

‘한글박물관’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체육관광

부에서는 지속적인 기증·기탁 운동 전개, 세종대왕탄신일 계기 홍보프로그램의 제작·방영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개인이나 문중에 소장된 한글 자료의 기증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국민 인식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강원도 기록물관리 담당자 기록물관리 운영 교육

강원도는 3월 9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실·과 소 및 시군 기록물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운영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록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행정 정보 공개 및 열람요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직원들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특강과 기록물관리 세부지침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김형국 학예연구관은 “자치단체의 역사화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록물의 역할”이라는 특강으로 직원들에게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자체 교육에서는 부서 기록물의 생산·관리·이관·폐기·재분류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교육으로 강원도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민원인에게 양질을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강원도에서는 “금년에 기록물관리시스템 도입 운영으로 30년이상 기록물 2만여권을 전산화하고 그동안 강원도와 시군 기록물 서고에 보관 중인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제1회 강원도 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하여 강원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양시, 마을역사 기록 남기기 사업 추진



경기도 고양시는 한 국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곧 사라지게 될 마을에 대한 역사기록 남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 3월 중 대대적인 마을 철거를 앞두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일명 도래울) 마을은 창릉천 주변의 전통 마을로 곳곳에 한옥이 있고 석탄 이신의 선생의 유적과 지명이 남아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또한, 고려시대부터 사람들이 집성촌(集成村)을 이루어 인동 장씨, 김해 김씨, 원주 원씨가 수백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도당산 굿과 임진왜란 의병활동지 등 역사와 민속적으로도 중요한 마을로 평가 받고 있다.

고양시는 도내동의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을 파악하여 개발 발표 후부터 마을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수백여점의 유물을 기증받는 성과도 이루어냈다.

이번 마을역사 기록남기기 현장 조사는 사라지기 이전의 마을역사를 남기고 마을 곳곳에 남아 있는 민속유물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한 역사조사 및 전통한옥에 대한 사진촬영, 마을 전경 기록, 마을 회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채집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사진촬영과 유물수집 외에도 360° 사진, 동영상, LBS(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였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장 조사를 담당한 정동일 문화재 전문위원은 “기록된 역사와 모아진 유물은 잘 정리하여 후대 역사에 책자 및 영상 등으로 기록되며 개발 후 새로운 주민들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상기록과 정리를 담당한 심준용 학예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첨단 아이티 강국에 걸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Youtube, Facebook, Foursquare 등의 소셜커뮤니티에서 활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그간 이러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요예산 없이 8,500여 점의 유물을 확보하여 그 의미를 더욱 높이고 있다.

# \* 해외 기록관리 소식



## 영국 국립기록보존소(TNA) 디지털 파일 관리 소프트웨어 DROID 개발



영국 국립기록보존소(TNA, The National Archives)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파일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파일 인식 도구인 DROID(Digital Record Object Identification)는 까다로운 디지털 데이터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로, 국립기록보존소 웹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한 번에 수백만 개의 파일을 스캔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문서, 오디오, 비디오 및 이미지 파일을 포함한 수백 개의 상이한 파일 포맷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DROID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이용자들이 보유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개인 이용자에서 기업체, 정부기관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인 파일 관리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참고-DROID 이용 방법과 무료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http://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droid-how-to-use-it-and-interpret-results.pdf>  
<http://droid.sourceforge.net/>



## 미국 국립기록관리청(NARA) 2010년도 기록관리 자체평가 보고서 발간



미국 국립기록관리청(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은 2010년도 기록관리 자체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립기록관리청은 2010년 5월 2009년도에 실시한 시범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기록관리 자체평가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기록관리 자체평가의 목적은 연방기관들이 법률에서 정한 기록관리 요구사항들을 얼마나 충실히 따르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 95%에 달하는 연방기관들이 기록의 무결성, 진정성, 신뢰성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기록관리에서 상당히 높은 위험 수위를 보였다. 부적절한 기록 관리나 폐기 관행이 만연해 있고, 일부에서는 기록물을 보관하고는 있으나 검색, 열람, 해석 등 활용에 있어서는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국립기록관리청은 기록관리 자체평가 보고서가 연방정부 내에서 기록 관리를 평가하는 데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며, 기관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립기록관리청은 기관 감사에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 자체평가와 감사를 통하여 국립기록관리청과 연방기록 관리기관들이 현용기록물 관리 실제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연방기관들이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적절히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참고\_국립기록관리청2010년도 기록관리 자체평가 보고서  
<http://www.archives.gov/records-mgmt/pdf/rm-self-assessment.pdf>

## 미국 정부인쇄국(GPO) 설립 150주년 기념



지난 3월 4일은 미국 정부인쇄국이 연방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 정보를 생산하고 배포해 온 지 15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정부인쇄국은 1861년 3월 4일에 개국하였는데 이 날은 아

브라함 링컨이 취임선언을 한 날이기도 하다. 정부인쇄국은 역사적으로 의회, 연방기관,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학기술을 적용해 왔다.

과거에는 인쇄에만 치중하였으나, 현재와 미래는 디지털 정보기술로 정의될 수 있다. 오늘날 정부인쇄국은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꿈으로만 여겼을 다양한 유형의 제품과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로 최신 검색기법을 활용하여 일반 대중들이 무료로 기록물을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e-Book, 여권, 스마트 카드, 인쇄물, 웹은 물론이고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활용한 정보 제공에도 앞장서고 있다.



## '당안사업발전' 현안은 당안법(档案法) 개정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상해시정협 부사무장 장저런(张喆人) 면담



2011년초 원자바오(温家宝)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재차 강조한 “당안사업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는 《당안법》(档案法) 개정작업이다”라고 발표하였고 이러한 기초아래 국가당안국은 《당안법》개정업무반을 구성

하여 《당안법》수정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2010년 말 수정초안을 완성하였다.

첫째, 각급 정부가 당안관 사업건설 과정에서 수반되는 의무규정을 명확히 할 것. 둘째, 동급 인민정부에서 당안 행정관리 부문을 설립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셋째, 당안국 뿐만 아니라 동급 인민정부 행정기관 서열을 규정화할 것. 넷째, 각급 인민정부가 도시건설과 문화기반시설 건설 전체계획에 의무적으로 국가당안관 건설규정을 삽입하도록 하고 당안사업 발전을 위한 예산재정의 보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당안개념을 확산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와 사회에 대해 보존가치가 있는 당안의 구체적인 범위규정을 명확히 할 것. 여섯째, 당안 공개범위의 확대를 위해 당안 비공개 기한을 합리적으로 제정하여, 공개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할 것. 일곱째, 공개하는 당안의 범위를 제정하는 작업을 국가당안국에 의해 진행하도

# \* 해외 기록관리 소식

록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는 아직 공개재분류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못한 당안에 대해 해당 범위 내에서 모두 공개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출처-중국당안보 2011. 3. 14 총제2127기 제1판

## 중국 공산당 창당90주년 기념 국훈보반(国魂宝盘) 중앙당안관 기



2011년 1월12일 중국 공산당 창당90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 90년의 찬란한 역사를 표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90매의 국훈보반(国魂宝盘) 기증식이 북경에서 열렸다.

중앙당안관 관장이며 국가당안국 국장인 양동추안(杨冬权)이 기증식에 참석하고, 연설을 하였다.

기증식은 중앙당안관부관장이며 국가당안국 부국장 양쉬보(杨继波)가 주관하였다. 중국서화예술원원장이며 당대 저명한 서예가인 동풍수(董凤树)대표가 국훈보반(国魂宝盘) 90매 전체를 기증하여 전달하였다.

사진 오른쪽은 중앙당안관관장이며 국가당안국 국장 양동추안(杨冬权)이 기증식에서 국훈보반(国魂宝盘)을

기증받는 장면이다. 국훈보반(国魂宝盘)은 정면 가장자리는 만리장성 도안 이 있고, 중간부분은 중화인민공화국 지도 위에 중국공산당 당기가 선명히 그려져 휘날리고 있다. 국훈보반(国魂宝盘)은 1921년부터 2011년까지 특별고유번호가 부여되어 매 장마다 중국공산당의 해당년도의 고난과 영광의 역사가 간략하게 적혀있다.

출처-중국

당안보 2011. 1. 17 총 제2106기 제1판



Japan

## 일본, 2011년 4월부터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9년 7월에 공포된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0년 6월 28일 설치된 공문서관리위원회는 그동안 모두 6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였다.(2010.12.22, 정령 제250호,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이와 함께 위원회는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특정 역사공문서 등의 보존, 이용 및 폐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경찰청·검찰청을 포함한 각 부성(府省)의 「문서관리규칙(안)」, 및 「역사자료로서의 공문서」를 보존·관리하고 있는 국립공문서관, 외무성 외교사료관, 공내청 공내공문서관 등의 「이용 등 규칙(안)」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이 (안)들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15일 현재 공문서관리위원회의 분과회 자문을 거쳐서 4월 1일의 법률 시행과 동시에 승인될 예정을 보인다. 원래는 3월 15일 제7차 공문서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관동지진의 여파로 전체 회의 형식이 아닌 사무국과 해당 위원들끼리 논의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1. 공문서관리위원회의 활동 내용에 대한 모든 자료

<http://www8.cao.go.jp/koubuniinkai/index.html>

2.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archives.go.jp/law/index.html>

## 국립공문서관 종이 기록물의 대체보존 방침 발표 (2011년 3월 15일)

국립공문서관은 종이 기록물의 대체보존 방법으로 스캐닝에 의한 디지털화와 동시에 마이크로필름 촬영 지속 방침을 발표하였다.

종이매체의 보존상태, 내용, 이용빈도 등에 따라서 대체물을 작성하는 방법이나 매체를 적절하게 달리한다는 것이다. 즉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경우에는 디지털화에 의한 대체물(스캐닝에 의한 디지털화 방침) 작성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열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열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는 종이 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화에 의한 대체물 작성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방침은 2010년 5월에 설치된 「역사공문서 등 보존방법 검토 유식자회의」가 제출한 「역사공문서 등 보존방법 검토 보고서」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역사공문서 등 보존방법 검토 보고서」(역사공문서 등 보존방법 검토 유식자회의 작성)

<http://www.archives.go.jp/about/activity/pdf/hozonkentou.pdf>

## 일본-캐나다, '이상적인' 기록관리 방향 논의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

2011년 2월 2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 캐나다대사관에서 “이상(理想)의 전자정부문서관리, 국립도서관, 국립공문서관-지적자산 보존과 이용을 위한 새로운 틀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캐나다가 지향하는 공공의 기억, 설명책임, 행정의 중심으로써의 기록관리」(다니엘 캐론, 캐나다 국립도서관장), 「이상의 전자도서관」(나가오眞, 국립국회도서관장), 「이상의 공문서관리를 요구하며 : 일본국립공문서관의 당면 과제와 전망」(다카야마 마사야, 국립공문서관장), 「캐나다정부에 의한 전자정부와 문서관리정책진보상황(가제)」(캐서린 도나휴, 캐나다대사관 참사관), 「공문서관리와 아카이브의 신제도실시를 향한 대처」(오카모토 신이치, 내각관방 공문서관리검토실 참사관)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japan-japon/commerce/\\_canada/ict-20110202-tic.aspxlang=jpn](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japan-japon/commerce/_canada/ict-20110202-tic.aspxlang=jpn)

## 전사료협(全史料協), 동북지역의 기록물관리 기관 정보 파악에 주력

전국역사자료보존이용기관연락협의회(이하 전사료협)는 '동북지방태평양양반다지진' 사태로 인한 동북지역의 전사료협 기관회원의 안부확인 정보를 확인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해당 지역의 기록물관리기관들의 피해상황과 대처상황에 대한 첫 번째 소식이 3월 13일에 게재된 이후 3월 18일 현재 다섯 번째 소식이 게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는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이 유출된 후쿠시마현의 후쿠시마현문화센터에 관한 소식도 들어 있다. 이를 통해서 후쿠시마현역사자료관을 포함한 후쿠시마현문화센터가 엄청난 재해 속에서도 '긴급임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피해상황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전사료협의 활동 및 후쿠시마현문화센터의 긴급임시홈페이지는 다음을 참조 <http://www.jsai.jp/>

<http://yamagatuko.sakura.ne.jp/bunka/newpage1.htm>



일본 소식 : 이경용(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중국 소식 : 강현민(국가기록원 사서주사보)

영미 소식 : 조영주(국가기록원 사서주사보)

## 🌱 국가기록원 발간 자료

**1**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Ⅳ (의료·세관시설편)**



이번 해제집은 2010년에 발간된 「일제시기 건축도면 III-법원·형무소편」에 이은 4번째로, 일제시기에 작성된 의료와 세관시설 3,208매의 건축도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료집의 수록내용은 총설, 유형별 도면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도면 및 시설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한의원·인천세관 등의 도면 350매가 수록되어 있다.

**2**


**기록물 보존복원 제3호**



국가기록원 보존복원연구과에서 진행하는 각종 기록물의 보존복원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연구보고서이다. 이번 3호에는 '영조 정순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 복제본 제작', '19C 신정만국전도(新訂萬國全圖) 복원', '1900년대 초제지에 사용되었던 섬유에 대한 고찰', '공공기관의 항공사진 보존관리 방안' 등 8편의 글이 실려있다.

**3**


**공개재분류 중요기록 해제집Ⅲ**



이 책은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에 따라 공개된 1950~70년대 생산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경제 관련 주요 기록을 선별 해제한 것이다. 이 기록들은 1950~1970년대 주요 경제정책을 살펴볼 수 있도록 중화학공업, 장기수출계획, 석유개발, 한미협정서, 대일청구권지급관계, 부정축재처리 및 귀속재산 매각 관련 기록을 해설하고 있다.

**4**

**역대 대통령 해외기록물 수집 목록집 - 미국편 1**




이번에 발간된 「역대 대통령 해외기록물 수집목록집 - 미국편 1」은 미국 대통령도서관 중에서 존슨, 카터, 레이건대통령도서관에서 수집한 약 21,300매에 대한 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60~'80년대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정상간의 서신 및 주한미군철수, 10·26사태, 박동선 사건 등 한국의 외교·안보와 관련된 미국의 정책과 기록물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 📖 국내 일반도서

**1**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 1**



한국영상자료원은 '일제강점기 자료총서'의 새로운 시리즈로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 1〉을 출간했다. 〈신문기사로 본 조선영화〉가 국내에서 발간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된 것이라면,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는 국외의 자료를 대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출간된 잡지만만 아니라 조선에서 출간된 일본어 잡지를 대상으로 조선영화 관련 기사를 수집하고 번역한 이 자료집은 꾸준히 시리즈로 발간될 예정이다.

**2**


**이방인의 눈에 비친 제물포**



「이방인의 눈에 비친 제물포」는 일본, 중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근대 개항장 제물포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으며, 당시 외국인들의 기록 및 풍부한 도판을 수록하여 제물포가 단순한 항구가 아닌 백여 년 전 식민근대의 아픔과 욕망, 그리고 희망으로 뒤얽힌 하나의 작은 세계임을 보다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3**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한국전쟁과 분단에 얽힌 은폐된 진실과 거짓의 역사를 파헤치고 있다. 제1부에서는 쓰시마의 재일조선인, 전쟁 중 쓰시마로 간 사람들, 이승만과 김용주의 재일조선인 강제소환 사건 등을 다루었고, 제2부에서는 '빨갱이'로 지목돼 무차별적인 죽음에 내몰린 사람들에 대해, 제3부에서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전쟁으로 불려지는 전쟁포로수용소 내의 학살에 대해 다루었다. 마지막 제4부는 방첩대의 간첩조작사건, 김영삼 모친 살해사건과 간첩단 사건을 다루었다.

**4**

**벽광나치오**



「벽광나치오」는 조선 후기의 전문가 열한 사람의 치열한 삶 속으로 파고든다. 여행가, 프로 바둑기사, 춤꾼과 무용가, 조각가이자 만능 과학자, 책장수, 원예가 등 역사적 위대한 인물이 아닌 그 시대의 새로운 문화와 커뮤니티를 만들어간 문화적 리더들을 소개한다. 이들의 삶과 행위를 조사하고 해석한 이 책은 신분의 제약과 의식이나 지향이 획일적이었던 그 당시에 새 분야를 개척한 이들의 용기와 집념의 이야기를 전한다.

## 제2회 대통령연구자 육성을 위한 우수논문 공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전문적인 대통령연구자 육성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대통령관련 우수논문을 공모합니다.

### ■ 공모개요

- 응모대상 : 대통령기록관 소장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연구논문
- 연구분야
  - ① 이승만~최규하 대통령 재임기간 중의 정책 연구
  - ② 새로운 대통령기록물의 발굴 및 현황 연구
  - ③ 대통령기록관 소장기록물의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
- 연구형태 : 단독 또는 3인 이내의 공동연구 가능
- 응모방법 : 대통령기록포털을 통한 사전신청 후 결과물 제출
- 응모기간
  - ① 사전신청 : 2011년 3월 21일 ~ 2011년 5월 31일
  - ② 결과물 제출 : 2011년 8월 1일 ~ 2011년 9월 30일

### ■ 시상 내용

시상등급	시상인원	시 상 내 역
최우수상	1	상장 및 부상(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우 수 상	2	상장 및 부상(70만원 상당의 상품권)
장 려 상	4	상장 및 부상(50만원 상당의 상품권)

### ■ 문의처

- 전 화 : 031-750-2183(대통령기록관 연구서비스과)
- E-Mail : wisekim@korea.kr
- ※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기록포털(www.pa.go.kr)를 참조하세요

### ■ 원고 모집

국가기록원 계간지 「기록인 IN」은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록관리 및 문화소식과 현장에서의 느낀 소감·제안 등을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기록인 IN」 편집담당자

| 전화 | 042-481-6393 | 팩스 | 042-481-6371 | 이메일 | yhkim1@korea.kr

# 기록인<sup>IN</sup>

2011 SPRING + Vol.14

기록원(IN)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계간 정보지입니다.

### • 발행인

이경옥 / 국가기록원장

### • 편집위원회

이민원 / 기록편찬문화과장

김형국 / 정책기획과

조이형 / 정책기획과

이주현 / 표준협력과

이강수 / 특수기록관리과

김영선 / 기록편찬문화과

유환석 / 기록편찬문화과

고종오 / 기록정보화과

최찬호 / 대통령기록관 기록보존과

### • 편집실

윤대식 / 기록편찬문화과

김양희 / 기록편찬문화과

김은진 / 기록편찬문화과

김현정 / 기록편찬문화과